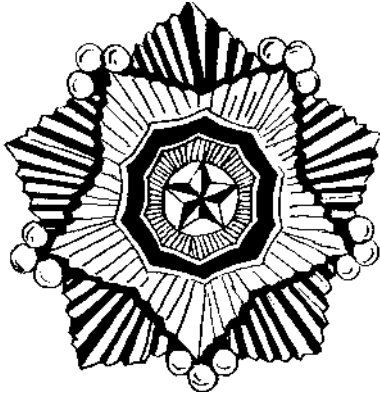




8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8호

(루계 제778호)

## 차례

### 선군의 총대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

못 잊을 불빛이여(시) .....	함영주(3)
나의 시계(시) .....	비전향장기수 손성모(4)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5)
1960년 8월 25일(시) .....	차승수(5)
선군의 총대가 번개를 친다(가사) .....	문기창(3)
<b>단편소설 사랑의 약속</b> .....	곽성호(6)
우리의 최고사령관 외 1편(시) .....	조광철(21)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시) .....	김정순(19)
<b>주체문학의 대강</b> .....	(20)
<b>선군메아리</b> (혁명일화) .....	(20)
축복받은 아들에게(시) .....	박상민(22)
<b>평</b>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	
<b>위대한 업적에 대한 역사적화폭</b> .....	박춘택(23)
<b>론</b> 선군승리의 불멸의 화폭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세계 .....	권선철(27)
강성원은 노래한다(련시) .....	백하(31)

### 선군령장의 발걸음따라 청년들 앞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청춘(시) .....	최주원(34)
청춘과 화불(시) .....	박세일(45)
청춘의 언제(시) .....	주경(45)
포전의 우등불야회 외 1편(시) .....	리영일(49)
청춘시절 추억(시) .....	리계주(50)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 김 정 은

단 편 소 설	해방년의 초여름에 .....	김 홍 균(35)
	재 부 .....	전 충 일(51)
	보이지 않는 증거 .....	리 명 현(65)
수 필	창성의 푸른 숲을 보며 .....	박 경 철(47)
	침묵의 배고동소리 .....	김 경 일(75)

## ◇ 시 ◇

비래봉으로 가는 길 .....	김 명 철(46)
황금산은 영원하리 .....	곽 명 철(61)
건설자의 땀 .....	전 수 철(62)
그리움의 거리 그리움의 밤 .....	권 오 준(63)
아이가 퇴고파라 .....	성 연 일(63)
어머니와 함께 글을 씁니다 외 1편 .....	조 석 영(73)
아가야 .....	박 천 걸(74)
14세기 후반기 반침략애국주의주제 시문학에 대하여(자료) .....	김 은 주(79)
상 식 .....	(33), (48), (64), (72)

표지2면: 《조선청년행진곡》 (노래)

3면: 《타오르라 우등불아》 (노래)

# 못 잊을 불빛이여

함 영 주

내 마음속엔 어려오누나  
못 잊을 해방년의 가을 그밤처럼  
이밤도 수령님 지새우시는듯  
끝없는 생각을 불러주는 해방산기슭  
수령님 계시던 숙소의 불빛이여

항일의 혈전만리  
쌓이고쌓이신 피로를 푸시라고  
투사들 간절히 아뢰었건만  
해방된 조국엔 할일도 많다시며  
밀영의 그밤처럼  
순간의 휴식도 모르신 수령님

붉은기 펄펄 날리던 인민혁명정부  
그 지붕우에 비낀 봄하늘을 그려보셨던가  
분여지에 기쁨의 표말을 박을  
토지개혁의 발머리를 다 걸어보시는듯

화디엔의 등잔불밑에서 찾으신 진리  
등강의 우등불가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을  
해방조국에 하루빨리 꽃피우시려  
백두의 려장을 풀지 않으신 밤

저 불빛아래서  
5천년력사가 기다리고  
망국의 세월이 원하고원하던

가 사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  
제힘으로 일떠세울 밝은 앞날을 환히 밝혀주셨  
나니

아, 《사향가》의 노래속에 그려보시던  
고향 만경대가 지척인줄 잊으셨던가  
조국에 돌아오신 그밤마저  
오로지 부강조국건설에 바치신 수령님

우리 수령님 애국헌신의 그 로고 잊지 말라고  
계속혁명의 그 위업 만대로 빛내라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수도의 해방산기슭에  
옛모습 그대로 밝혀주신 불빛이여

바라보면 불수록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오고  
장군님의 높이신 뜻이 안겨와  
우러러 발걸음 못 떼는 이 마음

이밤도 꺼질줄 모르는 저 불빛에서  
확신에 넘쳐 바라본다  
수령님과 장군님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내 나라 내 조국땅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드시 밝아올 최후승리의 그 아침을

## 선군의 총대가 번개를 친다

문 기 창

하늘땅 진감하며 선군의 총대가 번개를 친다  
천만의 대적도 쳐부실 강군이 우뢰쳐간다  
맞받아나가는것은 조선의 기상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승리로 이끄신다

멸적의 불을 안은 선군의 총대가 번개를 친다  
일심의 발걸음 지구를 울리며 우뢰쳐간다

결심하면 하는것은 조선의 의지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승리로 이끄신다

백승을 떨쳐가는 선군의 총대가 번개를 친다  
원썬들의 최후의 종말을 우리가 보여주리라  
싸우면 이기는것은 조선의 전통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승리로 이끄신다

# 나의 시계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시간이 멈춤없듯  
인생도 멈춤없다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듯  
인생도 되돌려세울수 없다

하여  
인생의 귀중함 말할 때  
시간의 귀중함 외운다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시간을 아끼라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즐기치게 땃땃하게 살라고  
누구나 말한다

그 시간을 간직하듯  
그 인생의 거울인듯  
변함없이 흐르는 초침소리  
유정히 울리는 나의 시계

언제나 나의 손목에  
내 심장의 박동인양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눈오나  
운명을 같이한  
나의 시계여

때없이 바라보면  
해빛처럼 파스한 빛이  
내 정신에 스며들어  
우렁이 빛나는 수령님존함

아, 우리 수령님  
그 모습 우러르면  
수령님의 한생이 떠오르고  
그러면 고난도 시련도 두려움없어  
그이의 존함 외우면  
수령님 자애로운 미소 떠올라  
태양의 파스함 인생의 봄을 떠올려  
힘과 열정 사랑이 샘솟아

하는 일마다 긍지롭고 빛나더라

그이의 존함 부르면  
심장은 다시금 열정으로 뿔뿔하고  
늘을수 없는 전사의 삶  
보람있게 땃땃하게 살자  
한마음 더욱 굳어지고

그 열정으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총구가 노리는 준엄한 길도 웃으며 걷고  
살을 지지고 뼈를 꺾던 순간도 이기며  
철창도 교수대도 차던졌나니

때로 원쑤의 악착한 고문에  
의식마저 가물거릴 때도  
수령님존함 모신 나의 시계  
너의 초침소리 나를 세차게 깨웠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태양의 전사 아니냐고—  
하여 그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였나니

누구는 말했다  
철창속에서 인생의 수십년을 잃었다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태양의 존함 빛나는  
나의 시계 있는 한  
신념을 지켜싸운 나의 참된 인생은  
멋은적 없다고  
수령의 참된 전사는 원적 없다고

아, 나의 사랑  
나의 존엄  
나의 영광  
나의 시계여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대를 이어  
충정의 초침소리  
영원하리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것은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었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 당조직의 성원들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었다.

얼마전에 우리는 공청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 1960년 8월 25일

차 승 수

흘러간 나날의 잊지 못할 추억들은  
망각의 심연속에 사라져가라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위훈의 순간들은  
세월의 락엽속에 묻힌다 하라

허나 이날만은 이날의 자욱만은  
후대들의 하늘에 별처럼 빛나리  
1960년 8월 25일

변할줄 모르는 총대를 앞세워온  
불멸의 자욱이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군대를 내세워  
백승의 전통을 만대에 이어놓은 력사의 날이여

그 자욱따라 온 길  
온 나라 강산은 철옹성의 갑옷 펼쳐입었고  
온 나라 인민은 만장탄하였어라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으로

그 자욱따라 걸어갈 길  
조국은 비약의 나래를 펴고  
인민은 존엄의 상상봉으로 오르리  
주체의 붉은 노을 밝아오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는 마지막비명을 남기며

멸망의 지옥속에 묻히리

이 세상 모든 불의와 압제를 타승할  
만능의 보검을 안겨준 자애로운 품이여  
이 세상 모든 행복의 대문을 열어제길  
만능의 열쇠를 쥐여준 은혜로운 손길이여

위대한 은인 **김정일** 동지  
선군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강산에  
인민은 그이를 태양으로 모시고  
천세만세 영광을 떨치리  
천세만세 노래불러 칭송하리

흘러간 나날의 잊지 못할 추억들은  
망각의 심연속에 사라져간다 하라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위훈의 순간들은  
세월의 락엽속에 묻힌다 하라

허나 이날만은  
이날의 자욱만은  
꺼질줄 모르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한 숨결로 고동치리  
1960년 8월 25일

주체95(2006)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발사되었다.  
인차 위성이 발사될 것이라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가 발표되자부터 불맞은 승냥이처럼 길길이 날뛰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이제와서는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도용해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는 미공군기지들, 우리의 위성운반체에서 분리된 부분품을 찾는다고 소란을 피우는 일본반동들, 동해상에 밀려드는 적함선집단들...

바야흐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쏠려지고있었다.  
이제 조선은 과연 어떻게 나올것인가?...

# 1

국방위원회일군 한철무장령은 뜻밖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지난 밤도 적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하여 꼬박가지새운 한철무는 지체없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무엇때문일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작전 전투방안과 관련한 임무를 주시려는것일까?

혹시 지하핵시험준비와 관련한 문제는 아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차에서 문건을 보며 기다리고계시였다. 금시 어디로 떠나시려는듯 했다.

철무는 황황히 달려가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 제가 그만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문을 여시고 미더운 눈길로 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알릴듯말듯 머리를 가로저으시였다.

《아니, 늦은게 아니지. 사실 우리끼리 떠나

려다가 동무 생각이 나서 찾은거요. 자, 어서 올라타오.》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자리를 내여주기까지 하시였다. 한철무는 황송한 표정을 지으며 그이의 옆자리에 조심하 앉았다.

《또 밤을 꿇구만. 그렇게 혹사하다가 몸이 견디겠소?》

《장군님, 일없습니다. 이쯤한건 얼마든지...》

《허허허... 자, 떠납시다.》

가볍게 웃으시며 운전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였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이께서는 이미 보시던듯 한 문건을 마저 번지고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특산물가공공장동무들이 참 장하거던. 임무를 준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박하사탕생산을 다 끝냈다는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요. 사실이 임무는 껌 공장에 주려고 했댔소. 그들이 태양절을 앞두고 아이들 껌생산때문에 너무 바빠하길래 특산물가공공장에 알아보라 했던건데... 이 동무들은 계획수행이 긴장한 속에서도 사탕생산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철야전투를 벌렸다는게 아니겠소. 언제봐도 그 정운수지배인이 일을 제길줄 알거던.》

《?!...》

《내가 동무를 찾은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공장에 함께 가보자는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오?》

《최고사령관동지, 전 사실 정세두 정세니만치...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때를 맞추어 적들이 몹시 갈개구있기때문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물론 우린 웅당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

시해야 하오. 하지만 할일이야 해야지. 더구나 정윤수지배인은 동무와 구면지기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지배인두 만나보구 공장두 돌아보면서 머리집을 좀 하라는거요.》

한철무는 그이의 말씀에 가슴이 후터워오름을 느꼈다.

적들이 새 전쟁도발책동에 피를 물고 날뛰는 이때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여유작작하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고계시는가.

은연중 배심이 든든해졌다.

한철무는 숨을 길게 내쉬며 무의식중에 《정윤수!...》 하고 그의 이름을 되뇌이였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이시고 명상에 잠긴채 창밖을 내다보시는 그이의 시선을 따랐다.

아전차의 고르로운 진동, 눈앞에 규칙적으로 다가왔다가 바빠 뒤로 사라지는 가로수들,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봄물어린 따뜻한 도시의 풍경, 활기로움에 넘친 시민들의 밝은 모습...

《박하사탕사연을 듣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참 세월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회에 젖은 음성으로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한철무는 갑자기 눈곱이 찌릿해왔다.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다.

...여름철의 한밤중, 가락지모양의 얇은 달무리가 켜던 검푸릿한 하늘, 방금전까지 내린 소나비를 함썬 머금은채 달빛에 번쩍이던 전선길...

바로 그 길가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으로 물동량을 나르는 운수중대군인들을 만나시였었다.

먼저리를 출창 달리느라 달아오른 기관도 식힐겸 길옆 산기슭의 공지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금방 둘러앉은 운전사들이였다.

그들에게 췌기밥도 권하시고 운행길에서의 생활도 알아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졸음에 쫓기느라 부석부석해진 얼굴과 피발진 눈, 갈린 목소리들에 안색을 흐리시였다.

철무도 가슴이 저려들었다.

사실 그자신도 안변청년발전소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변》하면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뚫는 군인들부터 생각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나니 낮과 밤이 따로없이 늘 운전칸에서 생활하면서 파곤한 음식보다 차고 마른 음식을 더 자주 드는 운전사들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돌리지 못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피곤하지? 이런 밤길엔 아마 졸음을 이겨내기가 제일 배찰거요. 그러니 밥맛도 없을게구...》

그이의 음성에는 사려깊은 근심이 어려있었다.

병사들의 눈가에 감사의 빛이 번뜩이는데 문득 맑고 쉿쉿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까짓 졸음 하나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거대한 중량물차에 비하면 너무도 판이하게 체소해보이는 장경철이라는 병사의 두볼에서 옴뚱 패이는 볼우물을 보시며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게 뭔데?...》

《박하사탕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속 놀라시였다.

경철은 가벼운 동작으로 썩 차에 잤다왔지만 한절반 축난 사랑봉지여서 그런지 별로 주뭇거렸다.

《졸릴 때 이걸 입에 넣으면 정수리까지 단박 싸해집니다. 뿌드드한 입맛까지두 싹 돌아서게 하는데 이것이상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말에 끌리신듯 사랑봉지를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시였다.

한철무에게까지 코마루가 쟁하게 박하향이 내뿜기는 누르کمکم한 사랑은 습기를 빨아들여선지 서로 엉켜붙어있었다. 게다가 입안에서 녹느라하면 이발에 늘쩍늘쩍 묻어날것만 같은 옛사탕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딸기색의 장식글체로 《박하사탕》이라고 쓴 비닐봉지의 밑가락을 내려다보시였다.

제대로 찍히지 못했는지 그동안 닳아버렸는지 《...공장》이라는 희미한 글자만이 보일뿐이였다.

장경철이 보조개를 피우며 바빠 말씀올렸다.

《장군님, 사랑이 보기는 그래도 맛은 참 좋습니다. 한번은 외국제박하사탕을 먹어본적 있었는데 포장만 와디디했지 맛은 우리것보다 한참이나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 사탕을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소?》

장경철은 신이 나서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자기 부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 어느 자그마한 식료공장에 대해 말씀드렸다. 자연 그 공장 지배인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종당에는 그를 자랑하는 이야기로 번져지고말았다.

《정말 쉽지 않은 일군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뭔가 애로를 느끼면 어떡하나 해결해주기 위해 아득바득 애를 쓰곤 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중대에 왔을 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호물자를 가득 싣고 왔다가 떠나기에 앞서 지배인은 병사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자, 뭔가 제기되는게 있으면 기탄없이 터놓



소.》

수첩을 꺼내들며 던지는 그의 말에 병사들은 모두 없다고 합창했다.

《왜 없겠소? 더우기 운전사들이야 노상 객지에서 지내기가 일쑤인데...》

병사들을 둘러보는 지배인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장경철은 여직껏 바재이던 속생각을 슬며시 터놓았다.

《저... 졸음을 쫓는 약 같은건 없습니까?》

《응?》 너무도 뜻밖인듯 지배인의 두눈썹이 쯤긋 이마위로 튀어올랐다.

결에 있던 한 사관이 웃음을 가무리지 못한채 사연을 설명하였다. 원래부터 초저녁잠이 류달리 많았던 장경철이 며칠전 야간운행도중 까딱 턱방아를 찰는찰나 길옆 산벼랑을 들이받을뻔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문에 야간운행에서 제외당했고 이런 일로 그가 이즈음 풀이 죽어있다는 것이었다.

《병사동문 박하사탕을 먹어본적 있나?》

한참만에 지배인이 묻는 말이였다.

《예. 헌데... 그걸 먹으면 졸음을 이겨낼수 있습니까?》

《있지...》

《야, 그럼 그 박하사탕부터 해결해주시시오.》

경철은 너무 기뻐 다짜고짜 부탁을 들어줬지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지나쳤음을 알아차렸다.

《지배인동지, 내가 괜히...》

그러자 지배인이 손을 뻗어 내저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내 두루 타산을 해보던중이야. 한달후엔... 그래, 한달후엔 내 꼭 박하사탕을 만들어가지구 올테니 그때 만나지요. 우리 약속하자구.》

지배인은 수첩에 또박또박 적기까지 했다.

《...그후 난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말았었는데 한달후엔 지배인동지가 진짜로 이 박하사탕을 가지구 척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보면 정말 지배인동지는 우리와 한 약속을 한번두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박하사탕을 생각깊은 눈길로 다시금 바라보시었다.

《그 지배인의 이름이 뭐요?》

병사는 대뜸 말문이 막혀 허둥거리였다.

《이름까지는 미처... 그저 우리 부대에서 중대장을 하다가 제대된 영예군인이라는 사실밖에는...》

이들이 속한 부대명칭을 재삼 확인하며 사위여가는 모닥불우에 삭정이를 올려놓으시던 그이께서 철무에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이래전인가 내 이 부대의 정찰중대를 두번째로 찾아간적이 있었소. 헌데 이미 면목을 익혔던 전 중대장이 훈련도중 크게 다쳐 종시 군복을 벗었다는게 아니겠소. 일욕심이 있고 병사들에 대한 복무정신이 남다른지 지휘관이여서 인상에 남았었는데... 혹시 그가 아닌지 모르겠소. 잠운령중대를 동무도 알고있지?》

그 중대라면 한철무에게도 기억에 새겨져있었다.

깊은 골짜기안에 휴양소마냥 꾸려진 아담한 병실, 염소며 토끼며가 넘쳐나는 집짐승우리, 남새절임을 비롯한 부식물이 짝 들어찬 창고, 특히 늦은 봄철인데도 처마밑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던 빨간 고추타래와 겨울을 난 싱싱한 무우들 등 풍족한 살림살이의 단면들이 아직도 표상에 뚜렷한 중대였다.

당시 전연에서 부대장을 하던 한철무는 다른 부대였지만 소문난 그 중대에 가본적이 있었다. 전군적인 방식상학이 진행되었던것이다.

아마도 중대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름모를 옛 중대장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을것이다.

병사들을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그런 중대장이기에 이렇게 박하사탕까지 만들 생각을 한것이 아니겠는가.

감동은 컸지만 한철무의 생각은 이에 머무르고 말았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지배인에 대하여 계속 마음을 쓰고계신다는것을 그는 이튿날에야 알게 되었다. 그날 예정된 어느 구분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신 장군님께서 한철무를 찾으시였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운전사들에게도 박하사탕을 공급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더했는데... 그 지배인이 내 걱정을 덜어주었구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 영예군인의 몸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게 결코 험치 않은 일인데 그는 박하사탕까지 만들어냈거던.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자꾸 걱정되는게 일손이 잡히지 않누만. 내 짐작엔 꼭... 그가 제대된 정찰중대장처럼 생각되오. 그게 맞다면 아마 이름이 정운수일거요. 동무가 그에 대해 알아봐줘야겠소.》

한번 만났던 지휘관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운명에 대하여 그토록 남다른 관심을 돌리시는 그의 사랑에 철무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철무가 찾아가보니 아닌게아니라 지배인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운수였다. 운수는 얼마안되는 군인가족들을 이끌고 한쪽으론 공장건물을 한동한동 늘어가는 한편 이미 지은 건물안에는 자체의 힘으로 사탕설비를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꾸리던중이었다. 그가 왜 병사와의 박하사탕약

속을 힘들게 하였는가는 더 설명을 듣지 않고도 잘 알수 있었다.

그후 철무는 어느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복도에서 얼핏 만났던 정윤수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원료때문에 공장이 고충을 겪고있을 때 이 실정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 직접 우리나라에 흔한 여러가지 농토산물들과 산나물 같은 것으로 각종 특산물들을 만들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는데 그때부터 공장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것은 몇달전 안해가 그 공장에서 만든 식료품만을 전문판매하는 상점에서 사온 강냉이국수며 산갓김치 그리고 은행나무잎차 등을 맛보면서 톡톡히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며칠전 장군님께서 위생관계종합지휘소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것처럼 바쁘신 일정이였지만 우정 동평양지구에 있는 그 특산물상점 앞거리로 지나가자고 하시였었다. 그때 석양에 불그스레 번쩍이던 상점의 창문들, 출입문이 메이게 쉬임없이 드나들던 사람들, 저저마다 갖가지 상품을 사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의 모습이 다시금 새삼스레 안겨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의 불구름이 사납게 밀려들고있는 때이다. 하여 수시로 변하는 적정을 놓고 최악의 경우까지 예견하였던 그였다.

바로 이런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장군님께서 나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정세와 하등 아무런 판도 없는 수도교외의 평범한 공장으로 동행하게 해주셨으니 진정 여기에 어떤 의미가 깃든것일가?

한철무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 갔다.

## 2

위성발사성공에 대한 소식은 집과 마을, 거리와 일터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든 날아들었다.

이날 아침 특산물가공공장 술작업반에서도 역시 위성에 대한 자랑으로 이야기가 끊길줄 몰랐다.

이런 때면 항상 앞자리를 양보할줄 모르는 김정심반장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녀인은 함박꽃같은 웃음으로 하여 더욱 보름달같은 얼굴을 풍만한 몸매우에 둥싹 떠올리며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뽀뽀뽀니해두 난 장군님을 모시구 기념사진을 찍은 위성과학자들속에 우리와 다름없는 녀성들이 있다는게 제일 부럽더구만요. 그래선지 어제 밤엔 글썽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시는 꿈을 다 꾸었다니까요. 지배인동지, 우리한테 언제

면 그런 영광이 차례질가요?》

작업탁의 한켠에 앉아 술병에 각종 술상표를 붙이던 정윤수는 손을 힘쫓았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때마다 그리고 오늘처럼 남들이 받아안은 영광이 막 부러울 때이면 더더욱 가슴속에 절절히 품어보곤 하던 소원이고 진정이였다.

저 물음에야 어떤 대답을 할수 있단 말인가?!

윤수는 대번에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였다.

자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여 아직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던것이다. 불시에 언제인가도 이 비슷한 감정을 체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아마 당비서 박경호가 새로 부임되어왔던 때의 일일것이다.

《이거 상품포장들은 때뻬이를 했는데 공장포장은 시원치 않은데요?》

그가 공장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을 때 정윤수는 몹시 섭섭했었다. 지금껏 공장에 깡그리 쏟아부은 자기들의 노력이 여지없이 무시당한듯한감을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다음말에는 저으기 신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을 꾸린것두 그래, 종업원들을 만나보아두 그래 뭔가 불만스러운것이 있더군요.… 이제는 공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수 있게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가요?》

윤수는 얼굴이 뜨끈해왔다. 그가 그치없이 고마왔다. 지금껏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소원,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진심을 당비서가 이렇게 대변해준것이다.

마주잡은 두 손, 똑같은 지향이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공장의 원림화, 구내에 울리는 경제선동과 예술소조활동의 힘있는 노래소리, 생기발랄한 종업원들의 밝은 웃음과 높아만 가는 생산열의...

정윤수는 박경호가 미덥게 생각될수록 자책감은 더욱 커만 갔다. 자기가 뒤떨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던것이다....

윤수는 입을 꼭 다문채 기계적으로 손을 놀리며 상표를 붙이기만 했다.

어째서 지나간 추억이 느닷없이 떠오르는것인가.

...갈대만이 설렁이는 진펄, 그 한가녀의 크지 않은 천막, 이것은 10여년전 공장의 첫 모습이였다. 그 천막이 그대로 사무실이고 생산현장이였으며 식당이자 잠자리였다. 천막안에 자체로 만든 사랑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아글타글 생산을 하면서 공장을 건설하던 그 나날, 생산과 건설을 함께 내밀자니 억대우같은 장정들도 힘에 부쳐했다. 종업

원래반이 녀성들이라 그들의 수고는 더욱 이루 말할수가 없을 정도였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여서 남편들과 아이들의 밥그릇에 통강냉이와 함께 눈물을 담아야 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미래를 라관하면서 그 어떤 험한 작업에도 주저없이 어깨를 들이밀며 일하고 또 일하지 않았던가. 녀인들이 제일 바빠한것은 퇴근문제였다.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느라면 막차에나 겨우 오를수 있었는데 그나마 정전이 될때엔 오도가도 못하고 궤도전차안에서 밤샘을 하여야 했던것이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까스로 한동한동의 건물을 늘여가던 그때의 속타던 마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어느날 간난신고끝에 얻어온 세멘트 몇차를 입고시킨 후 정윤수는 당시 자재창고장을 겸하던 경심에게 밤에 비가 내릴것이 예견되니 비막이대책을 단단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낮껏 구름 한점 볼수 없었던지라 김경심은 그냥 퇴근길에 올랐다. 결국 밤중에 들이닥친 폭우가 종시 사달을 내고야말았다.

철강재를 싣고 아침녘에 들이닥치자마자 술한 사람들이 세멘트창고에서 북적대는것을 본 정윤수는 그만 억이 막혀버렸다.

어떻게 마련한 세멘트이길래...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번지고 입안의 혀에는 채찍같은 욕설이 휘감겼다. 짹 앓다문 입귀로 하여 턱뼈가 빼근하게 아파났다. 허지만 그는 용케 참아냈다.

《뭇—있구만. 돌격명령은 이렇게두 내려지는가? 저걸 다 소비하자면 오늘은 온종일 허리 한번 펴새없을게요.》

어차피 비맞은 세멘트로 블록나 찍어야겠기에 하는 말이였다.

처녀때의 아련한 용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심의 해쓱해진 얼굴에서 눈이 사발만 해졌다...

그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일부 사람들속에서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던 창고의 기초를 치던 어느날 경심이 세멘트를 출고하지 않는 바람에 하루종일 작업이 중지당하는 일이 생겨났다. 원인은 기초공사에 필요이상의 세멘트가 낭비된다는것이였다. 그날 공장설계를 맡았던 설계사업소의 기사가 무슨 일로 왔다가 자기가 한 설계보다 엄청나게 비대해진 콘크리트기초를 보고 이 사연을 경심에게 이야기했던것이다. 물론 거기에 윤수의 그 어떤 타산이 계획되어있다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주관과 독단... 주먹구구식일본새... 로력과 자재 낭비... 결국 정윤수는 비판무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고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겹쳐 나중에는 해임문제까지 상정되게 되였다...

윤수가 그야말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어슬렁에 경심이 찾아왔다. 벗어든 머리수건을 꼬깃꼬깃 비틀며 한참이나 바재이는 녀인의 수척해진 얼굴에서는 고뇌의 흔적인양 한쪽눈가에만 새로 생겨난 쌍까풀이 파르르 떨고있었다.

《지배인동지, 미안해요. 전 사실... 세멘트를 극력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가나니...》

그의 심중을 김새챈 윤수는 히뭇이 웃었다.

《그거야 좋은 일이지.》

그 순간 녀인의 서글픈 눈매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배인동진 늘 그렇게 대범한가요?》

윤수는 색다른 의미가 비낀 그 말에 언뜻 녀인을 치며보았다.

《사실 전 이미전부터 공장을 떠날 생각을 해왔지요. 만약 내가 세멘트를 못쓰게 만든 일만 아니였다면... 아니, 그때 지배인동지의 그 너그러운 아량만 아니였다도 전 이미... 떠나가버리고말았을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버텨왔는데 이젠... 더이상 이겨내기 힘들어요.》

윤수는 한참나 아연해졌다가 편뜻 정신을 차리며 황급히 웨쳤다.

《안되오. 우리 이를 악물구 1년만 참자구. 그뻔 모든것이 좋아지구 생활도 한참 펴일거요. 꼭 그렇게 하겠소. 약속하오!》

《...》

《왜, 믿어지지 않소?》

녀인은 호—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힘든건 얼마든지 참을수 있어요. 하지만 제구실두 못하는 이런 공장에서 값없는 땀이나 출창 흘릴바엔 차라리... 전 일을 해두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드릴 그런 공장에서 맘껏 일하고싶단 말이에요.》

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우의 재털이가 쟁충 튀어올랐다.

《나를 두고는 암만이구 욕하오. 하지만 공장에 대해선... 공장에 대해선...》

윤수는 등골로 찌릿하게 줄달음치는 동통을 느끼였다. 웅— 귀가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소리...

윤수는 두다리가 휘청거려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였다. 그러다나니 천막입구를 들치고 누가 들어섰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여기 지배인이 누구요?》

어둑시근한 안으로 들어서선지 누구에게라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은 이내 눈에 익숙해진 모양 윤수를 가려보고 재차 물었다.

《동무가 정윤수지배인이요?》

어정쩡한 눈길로 낮선 장령을 쳐다보며 《예.》

하고 엉거주춤 일어서던 윤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다.

《맞구만, 지배인동무!...》

왜서인지 장령의 어조는 격정으로 떨리었다. 하지만 윤수에게는 그것을 가늠해들을 정신적여유가 부족했다.

《전 이미 각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윤수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제가 여기로 동자로 남아서라도 이미 술한 군인들과 한 약속만은... 그 약속만은 지키게 해주십...》

《그건 대체 무슨 소리요?》

그의 손을 맞잡을듯 가까이 다가서던 장령이 주춤 굳어졌다. ...

윤수는 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한철무장령이라는것을 알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그가 전하는 이야기, 그이께서 중대장시절의 자기를 기억하고계실뿐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박하사탕을 친히 보아주셨다는 사연을 싯뜻 믿을수가 없었다.

우두커니 서있는 윤수의 옷자락을 잡아흔들며 경심이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곱씹어 설명을 해주어서야 그는 차츰차츰 혼몽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 누구도 관심않던 우리 공장을, 그 누구도 알아주려 하지 않던 내 마음을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헤아려주시다니...

속으로 맥락없이 중얼거리던 그는 바늘에 찔린 것처럼 흠칫 놀랐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박하사탕, 그 보잘나위없는 사탕을 정녕 장군님께서 보아주셨단 말인가?

아, 우리가 좀더 성의를 기울여 만들었더라면, 보다 더 훌륭한 사탕을 그이께 보여드렸더라면...

《장군님께서서는 사탕의 질을 더 높이고 포장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자신께서 밀어주겠으니 손꼽히는 그런 박하사탕을 만들어보라고 하시였소. 그러시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내면 꼭 보아주시겠다는 사탕의 약속까지 하여주시였소.》

《예?!...》 정윤수는 또다시 꿈을 놀랐다.

약속! 유별히도 이 말마디가 그의 심혼을 흔들며 메아리쳤다. 그 말속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아마 윤수밖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괴롭게 입귀를 실룩거리는 윤수를 대신하여 경심이 한철무장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다.

《무슨 소리요? 그럼 동무는...》

한철무는 억이 막히는지 더 말을 못 잇더니 씹하고 밖으로 나갔다.

윤수는 후날 경심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그가 밤을 새우며 종업원들을 모두 만나보고 해당 일군들과 진지하게 무엇인가 의논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장령은 윤수와 다시 마주앉았다.

《제기된 문제는 실로 엄중하오. 동문 이결 인정하오?》

윤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실력전의 시대요. 현대과학기술을 몰라가지고선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단 말이요.》

답답한듯 목단추를 끄르고난 그는 밤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건설공학, 식료공학과 관련된 두툽한 과학기술도서들을 윤수앞에 밀어놓았다.

《이제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구 어떻게 하나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해야겠소. 동무에 대한 장군님의 믿음이 크다는걸 알아야 하오. ...》

이렇게 되어 정윤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속에 일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

《음-》 윤수는 저도 모르게 내지른 신음소리에 와뜰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 편치 않으세요?》

걱정이 실린 경심의 눈길이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

윤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3

정윤수는 저으기 번거로운 생각을 안은채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국수작업반쪽으로 향하던 그는 문득 완만한 경사를 이룬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원래 이 복도는 지형조건에 맞게 배치하였던 개개의 생산건물들을 연결하면서 생겨난 것인데 공장에 처음 오는 사람들마다 건물시공도 기성판례를 깨뜨린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다 밀차나 지게차가 자유로이 드나들수 있게 복도를 형성한것이 아주 이채롭다고 한결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하지만 층계없는 이런 복도에도 자나깨나 영광의 그날을 그리는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다는 모를것이다. 터벅터벅 걸던 윤수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굽도리밀의 손바닥만 한 인조석미장이 별로 윤기가 덜해보였던 것이다. 이전에는 왜 이것을 미처 가려보지 못했을까?

국수반을 지나서 들린 수산물가공반의 비좁게 느껴지는 현장에서 그의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지금보다 작업장이 더 크고 흰했으면... 처음의 품들였던 공장설계가 부정당하던 그때 내가 더욱 설

득력있게 완강히 자기 주장을 세웠더라면 이런 패  
늦은 후회는 없었을게 아닌가.

정윤수는 사랑반에 들어섰다. 청신하고 싱그  
러운 박하향기가 쌓인 피로를 몰아내고 정신을 말  
짱 정화시키는것만 같았다. 천정에 닿게 그득그득  
쌓인 박하사랑지함들...

불현듯 가슴치는 회한과 감격이 한꺼번에 물밀  
듯이 몰려들었다.

한철무장령으로부터 박하사랑과 관련된 못 잊을  
사연을 전해들으며 죄송함과 부끄러움, 후회와 자  
책으로 몸부림치던 그날의 괴로움이 다시금 심장  
을 아릿하게 허비고든다. 그래서인지 그날 떠나기  
에 앞서 한철무가 《장군님께서 동무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요. 동문 참 행운ాయ오!》 하던 목소리  
가 지나간 세월을 거슬러 귀전에 다시금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행운아! 행운아란 어떤 사람인가?

나라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우리 장군님께 최  
대의 기쁨을 드린 사람, 그래서 그이의 기억속에  
사는 그런 인간들만이 이런 영광의 부름을 받아안  
을수 있는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는?...

윤수는 한철무장령에게 더놓았을뿐 그 누구에게  
도 감히 헤쳐놓지 못했던 자기의 쓰라린 과거를  
가슴아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중대장시절, 구름도 쉬여넘는다는 잠운령의  
정든 중대, 부대에서부터 중대까지는 아득한 백여  
리, 전쟁때에 원호물자수송으로 생겨났다는 험  
하디 험한 달구지길만 나있을뿐...

초복이 지난 어느날 윤수는 키가 킁두룩한 한  
병사와 함께 길가의 구멍이식땅호박밭으로 침범한  
돼지무리들을 쫓아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  
다. 이제 한마리만 남았다.

《보나마나 또 얼룩일겁니다. 고놈은 누굴 닮았  
는지 영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전번에두...》

수의축산부문에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있는것  
으로 하여 축산박사로 통하는 그 병사는 누가 탓  
하지 않는데도 구구히 변명을 늘어놓다가 슬쩍 목  
소리를 낮추며 한쪽편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거기서는 통통 살찐 얼룩얼룩한 중돼지가 제법  
가마뚜껑만 한 널찍널찍한 잎그늘속에 몸을 숨긴  
채 짙드막한 두다리로 애호박을 깔고앉아 외삭와  
삭 추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저놈 좀 보십시오, 럽치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처럼 위장복을 입은게 갈데없는 경찰병같지  
않습니까?》

윤수는 킬킬대는 그의 뒤덜미를 쿡 눌렀다.

바로 그 시각 호박밭입구에서 윤수네들을 위해  
우정 걸음을 늦추신분이 계신다는것을 그는 전혀  
알수 없었다.

산간군에 대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지역에 새로 전개된 부대  
군인들의 생활형편이 념려되시여 우정 시간을 내  
시였다는것을, 하여 막바지에 있는 중대를 찾아  
부대일군들과 함께 오시였다는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것이다.

그들은 《얏-》 하며 동시에 돼지를 덮쳤다.

《잡았다!》

윤수에게 붙들린 얼룩이는 발버둥질을 치며 짹  
짹거렸다.

《하하... 그놈 붙잡혀서두 호박호박 하누만.》

청청한 음성에 절로 마음이 끌리어 뒤를 돌아보  
던 정윤수는 대번에 눈이 커졌다.

야전복차림의 경애하는 그이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다가오고계시였던것이다.

윤수는 어느새 얼룩이가 나뉘어져 옆으로 뺄소  
니치는것조차 모르고 그 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날째기란 경찰병 한가지구만!》

와하- 수행원들속에서 즐거운 목소리가 터져  
올랐다.

정윤수는 그제서야 팔소매를 내리고 바빠 차림새  
를 바로하며 병사에게 《차렷!》 구령을 내렸다.

장군님께서는 손을 들어 만류하시며 그를 가까  
이로 부르시였다.

《중대장이라, 면바로 만난셈이구만. 자, 그  
럼 주인이 우릴 안내해야지.》

그이께서는 윤수의 땀에 젖은 버그러진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그렇지 않느냐는듯 수행원  
들을 둘러보시였다.

바빠난것은 정윤수였다. 어디에 그이를 모신  
단 말인가? 천막설비그대로인 병실에? 기초구멍이  
에 막돌이나 채운데 불과한 병영자리예?

일생에 이때처럼 이마에 즐편한 땀이 맺히기는  
처음인듯싶었다.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의 심  
정을 헤아리신듯 그이께서는 조용히 이르시는것  
이였다.

《중대로 가는 길에 부엌밭부터 좀 보지요.》

장군님께서는 얼룩이가 형클어뜨렸을 줄기와 잎  
사귀들을 바로잡아주며 여기저기에 포탄처럼 실하  
게 드리워진 크고작은 호박들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좀 있으면 핑장하겠구만. 그러니 벌써부터 얼  
룩이가 여길 노릴수밖에...》

그이께서는 채 정리되지 못하여 번두리와 중심  
의 군데군데에 돌무지가 그대로 있는 부엌밭쪽으  
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거름독이 올라  
시꺼먼 강냉이대를 만져도 보시고 꽃망울이 부풀  
어오른 콩포기들도 헤쳐보시며 작황을 가늠해보시  
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오이며 도마도 등 갖가지 남새작물이 푸르싱싱 자라는 포전에 이르시였다.

《이거 없는데 없구만. 한테 저 표밭쪽에 뭐라 썼소?》

거기에는 작물별로 구획을 나누고 《중대장, 정치지도원포전》, 《소대장포전》, 《부소대장포전》 등 직급별명칭이 따로따로 적혀있었다. 사실 군관들과 사관들이 훈련의 여가마다에 제 손으로 성의껏 가꾼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병사들에게 먹이자고 윤수가 착상한것이였다.

《좋소, 아주 좋소. 경쟁적으로 포전을 가꾸면서 서로서로 위해주니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쭉쭉 자라서 좋아, 병사들을 잘 먹이니 배가 불씩해져서 좋아, 정말 신통한 생각이요.》

윤수는 그이의 치하에 가슴이 찡해왔다. 중대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후 적지 않은 일군들이 왔다 갔지만 그 누구도 이런데까지 관심을 돌려본적은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그래, 남새절임두 해먹이겠소?》

《저… 한창 수확할 때여서 많이 절구지는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산벽을 깎아내고 갱도식으로 널찍하게 지은 부식물창고에까지 들리시였다. 고사리, 고비, 밝은쟁이 등 말린 산나물이 태반이고 오이 절임을 한 몇개의 단지들과 빈 독들이 한켠에 줄서놓여있을뿐이였다.

《절임통들이 결정적으로 모자라겠구만.》

장군님께서 앞에 있는 단지에다가가시여 뚜껑을 열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고 색과 냄새를 가늠해보시다가 긴장하게 서있는 윤수에게 미소를 보내시였다.

《오이가 새파란게 먹음직스럽구만. 한테 장절임은 못 만들어보았소?》

윤수는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붉히였다.

《예… 아직…》

《장절임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식이요. 이런 오이도 그래 또 호박말리두 그래 장절임을 만들어먹으면 한결 입맛을 돋구지.…》

그이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종합적으로 잘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라지나 더덕, 참나물이나 두릅 같은 산나물도 많이 채취하여 장절임을 만들어먹일데 대해서와 지방산업공장들과 부대에서 장과 소금도 보내주고 단지와 오지독도 많이 만들어줄데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집집승우리까지 돌아보고나신 그이께서는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만하면 중대살림전망이 팬찮소. 중대장이 많이 노력하는게 알리오. 난 모두 길이 험하다고

반대하는걸 무릅쓰고 예까지 왔는데 중대장이 일하는걸 보니 맘이 놓인단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영터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윤수를 부르시였다.

《헌데 어떻게 되어 이런 중대가 병영건설에선 망쥬이요?》

정윤수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사실 부대가 여기로 진출할 당시 중대는 무력부적인 경찰병훈련관정에 참가하다나니 뒤늦게야 병영건설에 착수했다. 철을 놓치지 말아야 할 부업, 구질구질한 보리장마, 갓 중대장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백이 적지 않았던 이러저러한 사정이 진정 그 원인이었던가? 부끄러운것은 이러루한 모든것을 야전생활에 습관되어야 할 중대의 실정에도 바이 나쁘지 않다는 자체위안으로 굶겨려 한 사실이였다. 왜 이미전에 등짐으로 물동량을 저날라 서라도 병실을 지을 생각을 못했던가?

《중대장동무, 이런 빈 기초엔 언젠가도 벽체를 세울수 없지. 명심할건 동무들이 바로 병사들의 운명을 책임진 중대의 기초이고 기둥이란거요. 물론 부대일군들부터가 잘못했소. 어머니란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욱 관심하는게 아니겠소.》

그이께서는 맨앞에 서있는 부대의 일군들을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리고는 정윤수를 돌아보시였다.

《중대장, 그래 중대의 힘으로 병실 하나 짓지 못하겠소? 우리 항일투사들은 도끼 하나만 가지고도 백두산의 엄동설한속에서 불이 번쩍나게 손색없는 귀틀집을 척척 지어내군 했소. 문젠 병사들을 어떻게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는 지휘관들의 관점상문제란 말이요!》

윤수는 낮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부대장이 자책어린 어조로 그이께 말씀올렸다.

《장군님, 당장 세멘트부터 날라올 대책을 취해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렇게 해야 하오. 아무래도 기초를 치는덴 세멘트가 들어야 하니까. 한테 말이요, 밭에서 쳐낸 돌들두 그래 아까 여기로 오면서 본 저 거뒀한 산벼랑두 그래 다 석회석이 분명하오. 갱도벽의 토질은 석비레더구만. 그러니 여기에 석회로만 세우면 병영건설 같은건 식은죽먹기가 아니겠소.》

윤수에게는 좀전에 부업밭에서 주먹만 한 돌을 들어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알았습니다. 석회로를 세워 병영건설을 내밀겠습니다.》 목메인 소리로 말씀올리는 그의 가슴속에는 막급한 후회만이 겹쳐들었다.

석비레, 석회석… 이 좋은 건재들이 나에게는



왜 한갓 흙과 돌로만 보였을가? 왜? 어째서?

《중대장동무, 훈련두 부업두 다 중요하지만 병실부터 짓는것이 더 중요하오. 그건 중대가 집단주의와 동지애가 키워지는 요람이구 병사들의 정든 보금자리이기때문이요.》

그날 떠나시기에 앞서 장군님께서서는 윤수에게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중대장동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휘관들을 위해 병사들이 있는게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이 있소. 중대가 병영을 잘 꾸려놓고 부대적으로 제일 잘살게 될 땐 내 꼭 다시 오겠소. 중대장동무, 그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할수 있겠소?》

《장군님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윤수는 힘주어 말씀올렸다.

행복에 겨워 가슴 들먹이던 영광의 그날에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게 하던 그 약속, 그것을 위해 피와 땀 아니, 이 한목숨 깡그리 다 바친대도 아까울것 없으련만...

허나 그 약속을 윤수는 종시 지킬수 없게 되였다.

그해 어느날 밤, 강하훈련도중 뜻밖의 일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끝내는 군복을 벗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이였다.

중종뇌좌상, 사요추앞좌골절로 뇌수와 허리가 상한데다 많은 피를 흘린것으로 하여 생사기로에서 헤매던 그가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비상대책의 결과였다.

비바람을 뚫고 훈련장까지 날아온 직승기, 유능한 의료집단의 편성, 몇차례의 대수술, 1년반이라는 기나긴 입원생활...

침상에 매인 몸이 되어서도 윤수는 꿈자리에서조차 짓다만 병영이 떠올라 소스라치듯 깨어나곤 했다. 그 건설에 자기의 땀방울을 쏟지 못하는 안타까움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또다시 중대를 찾으시였다는 장군님소식을 보도를 통하여 들었을 때 그리고 몰라보게 달라진 중대를 두고 그이께서 못내 만족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윤수는 울고 또 울었다.

아, 약속은 더없이 신성한것! 하물며 장군님과 한 약속은 천백번 거꾸러진대도 기어이 지켜야 할 량심의 언약, 한생의 맹세이거늘 정녕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나같이 불충한 놈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마음은 당장이라도 한달음에 중대로 달려가고싶었지만 정녕 가고싶어도 갈수 없는 곳이 있다는것을 윤수는 처음으로 절감하였다.

하루하루를 살을 저미는 고통속에 보내던 어느날 중대정치지도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뗏뗏이 얼굴을 마주할수 없었다.

그러는 윤수에게 정치지도원은 어떤 말을 했던가?

《...중대장동지,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중대장동지의 병치료상태도 알아보시고 다시 군복을 입기 힘들것 같다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못내 가슴 아파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꼭 일으켜세워 주자고, 그를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면 병사들을 위해 투신할줄 아는 그 동무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과의 약속을 훌륭하게 지켰을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정치지도원의 손을 으스스리게 틀어잡는 윤수의 눈귀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솟아나왔다. ...

영예군인증을 받아안던 날 그는 분연히 일떠섰다. 여직껏 받아안은 대해같은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자기와 가정의 성의가 깃든 갖가지 원호물자를 가지고 옛 중대를 찾아가곤 하였다. 그러나 부대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되자 그는 자기의 정성이 모자라는것만 같은 위구심을 항상 털어버릴수 없었다. 이러저러한 병사들의 애로를 풀어주자 해도 종전의 방법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출로는 있었으나 결코 쉽게는 결심할수 없었다.

그 어디든 바라볼데도 없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기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 군인가족들만으로 꽤 공장을 일떠세울수 있을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조차 말했는데... 자반뒤집기로 결심을 내리지 못하던 그 나날 자강도땅에서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 숨죽은 공장들이 살아나고 현대화의 거세찬 동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계정신, 이것은 이미 안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의 계속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겠다던 나는?...

그는 강심을 먹고 결연히 일떠섰다.

사연많은 박하사탕이야기도 그때에 생겨난것이다.

윤수는 점차 무슨 일이든 만족을 모르는 사나이로 변해갔다.

식료가공분야의 지식을 독파하기 위한 무수한 낮과 밤, 끊임없는 품종개발과 확대, 도안전문가를 비롯한 각이한 분야의 인재선발과 양성, 대중적기술혁신운동...

제일 안타까운것은 끝없이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윤수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나라에 흔한 농토산물같은것으로 특산물을 전문가공하여 상품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었다.

장군님께서 자기들에게 공장의 명맥, 경영 전략의 종자를 안겨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그이의 심원한 사상과 의도를 다 알았던가?

후날 윤수는 장군님으로부터 강냉이국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파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국수발의 굵기와 색도, 질감성 정도와 조리방법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인민들이 누구나 호평해마지않는 새로운 강냉이국수가 태어나는 과정을 환희에 넘쳐 목격하면서 자기 머리속에 굳어진 특산물이라는 종전의 관념이 여지없이 깨어져나가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의식하게 되었다.

감자죽식국수와 고구마국수, 영양가루와 연두부...

진정 공장에서 개발된 수백가지의 특산물들이 이렇게 장군님의 류다른 관심과 은정속에서 태어난 것들이었다.

인민들을 위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해주시고 그 실현과정을 현명하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길에서 오늘은 공장이 식료가공공업의 최첨단에 당당히 들어서지 않았던가.

그날 오후 상표도안실에 들린 정윤수는 도안공청년과 함께 컴퓨터에 마주앉았다. 당위원회에서 수차 토론한대로 공장의 능력을 몇배로 확장한데 맞게 새로 작성한 설계안을 놓고 컴퓨터모의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누군가의 가쁜 숨소리에 놀라 윤수는 고개를 돌리었다.

당비서 박정호였다.

《지배인동무!...》

왜서인지 그의 목소리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어떤 정황에서도 침착하고 로숙한 당비서였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주하기만 해도 절로 평온과 안정만을 느끼게 하던 듄직하고 통투무례한 그의 얼굴에서 지금은 격앙된 감정이 확확 내뿜기고있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반복되는 다급한 부름소리...

《지배인동무!...》

윤수는 그 어떤 예감으로 심장이 똑 떨어버리는 듯 한 충격을 느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 4

김정일동지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야전차에서 내리시는 그 순간 윤수는 왈칵 눈물이 솟구쳐올라 《경애하는 장군님!...》 하고는 목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뿌듯해진 눈동자속에

는 중대장시절 산골길을 헤치며 찾아오셨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짙 차고넘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배인을 다정히 바라보시었다. 허우대가 늘씬한 몸매에 검붉은 얼굴의 부리부리한 눈빛, 날이 선 코마루...

깨끗이 면도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이 센 수염 그루로 하여 퍼릿퍼릿해보이는 턱에서 남성적인 강인함과 드눌지 않는 배심이 엿보였다.

문득 그이의 머리속에 지금보다는 젊고 씩씩한 모습, 땀젖은 가슴팍에 얼룩뎌지를 안고있던 중대장시절의 그 모습이 선히 떠오르시었다.

《동무가 보고싶었댜소.》

《장군님!...》

윤수는 눈을 습벅거리며 그이만을 우려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윤수를 앞세우시고 10여년전 중대를 돌아보시던 그날의 심정으로 현판을 지나 복도에 들어서시었다.

2층으로 향한 완만한 경사의 낮고도 널직한 층계단을 오르시느라니 이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순결하고 가식없는 정이 가슴뜨겁게 어려오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제품진렬실에 들리시었다.

국수류, 떡류, 주류, 차류, 농토산물류...

진렬대마다에 짙 차있는 갖가지 상품들이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물씬 풍겨오는 산천의 향기, 그때 중대의 부식물창고에서 맡으셨던 그 모든 향기가 일시에 되살아남을 느끼시었다. 진공포장된 상품들이라 그 무슨 냄새가 나랴만 울긋불긋한 상표마다에 차넘치는 향취와 빛갈, 정서만으로도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거 요란하구만. 지배인동무, 혹시 3대혁명전시관과 사업하구 슬쩍 옮겨다놓은 건 아니요?》

한껏 주눅이 든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우정던지시는 룡담이시었다.

정윤수는 두눈을 습벅이며 어쭙은 표정을 지을 뿐이였다.

한철무장령이 그이께 무릅없이 청을 드렸다.

《장군님, 이거 좀 만져봐두 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맛까지 보면 더 좋겠습니다.》

《허, 작전부호와 노상 씨름질하더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욕심이구만. 승인이야 주인에게서 받아야지. 하긴 지배인동무와는 통하겠지 만 말이요.》

그이께서는 상봉의 기쁨을 나눌 기회가 차례지 않았던 두 일군을 이렇게 맞대면시켜주시었다.

《자, 오늘은 모두에게 인심을 쓰는게 어떻소?》

윤수가 처음으로 시름잇은 웃음을 빙싯 지으며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말씀올리자 수행원들속에서 《야!》 하는 탄성이 터져올랐다. 슬그머니 지배인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보우 지배인동무, 저 구기자차 말이요. 저게 그렇게 좋다면서...》

《저 뽀잇한 막걸리를 보니 목젯이 다 꿀떡거리누만.》 등등 자기 속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흥성이는 장내를 즐겁게 바라보시며 유쾌한 어조로 으름장을 놓으시였다.

《공편 하나두 없소. 먹구싶으면 다 값을 물어야 해.》

헉헉한 웃음의 파도가 넘실거렸다.

이어 상표도안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콤퓨터탁앞에서 일어서는 다부진 청년을 보는 순간 그이께서는 무척 놀라시였다.

《낮익은 동무구만.》

《옛! 도안공 장경철.》

병사식으로 패기있게 대답올리는 청년의 싱글거리는 얼굴에서 보조개가 인상깊게 패이였다.

《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소?》

《장군님, 병사시절의 박하사탕향기를 늘 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된 후 콤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상표도안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야심안고 공장에 자진하여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벽에 주련이 게시한 갖가지 상표도안들을 주의깊게 바라보시였다.

《음, 전국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한 상장과 메달두 있구만. 대단하군, 대단해. 그러니 어제날 병사가 공장의 인재가 되었던 말이지.》...

진정 기쁨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생산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하시였다.

국수반, 고려차반, 고려약반, 파자반, 지어 이런 공장에 어울리지 않을상싶은 도자기반...

어디서나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노래가락처럼 울려퍼지고 보시는 곳마다에서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특산물들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그이께서 다음공정으로 걸음을 옮기시려는데 정윤수가 당황하여 말씀드렸다.

《저... 거기는...》

《왜? 왔던바에야 빠짐없이 다 돌아봐야지.》

그이께서는 마른 낙지를 한창 가공하고있는 작업장에 들어서시였다.

비좁고 답답해보이는 현장이였다.

윤수의 심정이 대뜸 리해되시였다.

《내 많은 공장들에 가보았는데 간혹 덩지가 요란해도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공장이 없지 않았소. 그러나 체통은 작아도 알 잘 낳는 닭이 진짜 좋은 닭이 아니겠소. 이 공장이 생산면적은 크지 않은데 그야말로 설비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었소, 생산능률도 높고... 정말 실리가 있소.》

전혀 뜻밖인듯 윤수의 얼굴빛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그이께서는 윤수의 꾸밈없는 그 태도에 가슴이 뚫히듯 느끼시였다.

이윽하여 가공술작업반에 들어서니 한 녀인이 그이께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꿈속에서도 장군님을 뵈왔건만...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니 정말... 정말...》

《그래서 이렇게 왔지. 일 잘하는 동무들이 보고싶어서 말이요.》

그이께서는 녀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장알이 박히고 마디마디가 불거진 그 손은 녀인의 부드럽고 섬세한 미모에 비하면 너무도 대조되였다.

《고생을 많이 했구만. 경심반장이라고 했지? 이 손이 보배손이요. 이 손이 결국은 이런 보배공장을 일떠세운게 아니겠소.》

《장군님!...》

두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저 맑은 눈물, 정녕 그것은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당을 따라 선군길을 꿋꿋이 헤쳐온 이 나라 인민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녀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여기엔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소?》

정윤수의 설명을 들으시며 술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흐름선의 맨끝에서 상표를 붙이는 녀인들의 작업모습에 한동안 눈길을 멈추시였다.

《지배인, 저런 손로동도 없애야 해. 그래야 만점짜리공장이라 말할수 있소.》

윤수의 얼굴에 자책감이 진하게 어리였다.

《장군님, 사실 전 그렇게까지는... 다 제 탓입니다.》

《알았으면 됐소. 하긴 동무네 기술력량으로 뭐 힘들것두 없지, 어떻소?》

《장군님말씀대로 꼭 만점짜리공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고려약술병들이 세워진 탁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손수 《칠보산송이버섯술》이라는 상표가 붙은 목이 긴 병을 집어드시였다.

《가만, 칠무동무의 고향이 칠보산이 있는 명천이던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오. 고향특산물이요.》

뒤켤에 있던 한철무가 한발 나서며 그 술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밤빛의 투명한 액체가 든 술병의 마개를 따내고 흠흠 냄새를 들이맡았다.

《첫날 새색시처럼 그게 뭐요? 한다하는 싸움군 같지 않게… 쪽 마셔봐야지.》

그이의 권고에 한잔 따라 머리까지 뒤로 젖히며 맛갈스레 들이키고난 철무는 만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이거 진짜 송이향기가 나는게 별맛입니다. 간밤의 피로가 다 가해지는것만 같습니다.》

《허, 칭찬이 너무 과하다? 지배인체면을 세워주자는건 아니요? 정말 인민들이 좋아할까? 이 술은 누가 개발했소?》

윤수가 경심반장의 착상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아뢰이며 그 술이 인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속에서까지 특산물로 인기가 대단하다는데 대해서 설명해드렸다.

《그래야지. 우린 웅당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하오. 식료가공공업에서두 세계의 패권을 잡아야 한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이시었다.

사탕작업반은 다음 생산건물에 자리잡고있었다.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무드기 쌓인 박하사탕지함들을 바라보시는 순간 감개가 무량해움을 어쩔수 없으시여 지함을 여시고 봉지를 하나 꺼내드시었다.

박하포기가 그려진 포장, 알마다 진공포장된 투명한 연노란색의 동글납작한 사탕…

어느새 잊지 못할 추억이 뭉클 가슴을 흔들었다.

달무리 켜던 전선길의 밤, 기세좋게 타오르던 화토불, 알싸한 그을음내, 병사들의 정다운 목소리… 그밤, 공장이름도 제대로 찍히지 못했던 수수한 사탕봉지에서 폐장깊이 들이키셨던 그윽한 향기가 오늘은 이 공장 어디서나 정겹게 흘러 넘치고있지 않는가. 일단 뿌리를 박으면 무진장히 땅속줄기를 뻗치는 생활력이 강한 박하마냥 하나의 사탕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350여가지의 상품을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100프로 국산화를 실현한 이들에게 진정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으신 심정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건물현관을 나서시여 그리 넓지 않은 마당이지만 한복판에 인공산을 조성해놓고 주변에 향나무와 같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구색에 맞추어 심은것으로 하여 립체적인 효과를 잘 살려낸 공장구내를 애무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일을 많이 했구만. 더구나 건강치 못한 몸으로 이런 훌륭한 공장을 일떠세우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그이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모두 헤아려주고싶으시었다.

《장군님…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은 그저…》

더 말을 잊지 못하는 윤수의 눈빛은 끝없는 고마움에 푹 젖어있었다.

그이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윤수를 바라보시었다.

역시 향기는 감출수 없는 법이다. 이런 인간이기에 자신께서 그토록 못 잊어하시는것 아니라.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뼉뼉히 젖어드시여 정윤수에게 공장의 전망에 대해 물으시었다.

그는 강냉이국수공장과 감자죽식국수공장, 콩우유공장을 더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다.

《대단하구만. 그런데 그걸 어디에 짓는다?》

좁은 공장부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장군님, 2층으로 지은 저 건물우에 몇층 더 올려세울 결심입니다.》

정윤수는 밑에는 기차방통처럼 길다란 창고가 있고 그우는 연혁실과 기타 현장지휘부가 있는 앞의 건물을 가리켜드리었다.

《기초가 일없을가?》

박경호당비서가 대신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우리 지배인동문 저 건물기초를 앉힐 때 이미 4~5층 지어두 끄떡없게 다 타산했습시다. 그것때문에 곡절은 좀 겪었지만…》

그이께서는 언뜻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으시었다.

공장건설초기에 제기되었던 그의 해임문제가 바로 이때문이었던가? 그때 한철무의 보고를 들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던 그 모든것이 이제야 선명해지시었다. 그걸 이겨내자니 오죽했을까?

어제날에 그가 겪었을 번뇌가 다 어려와 그이께서는 윤수의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으시었다. 어디선가 은은하면서도 진하디진한 박하향기가 풍겨오는듯… 아마도 그것은 언제나 안팎이 다름없이 진실한 한 인간의 깨끗한 녀에 대한 감동의 느낌이 아닐가?

그이께서는 마치 건물의 높이를 헤아려보시는듯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2층건물을 바라보시었다. 그 건물을 감싸고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한눈에 안겨드시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위성이 세계를 굽어보며 자유롭게 날고있는 저 하늘!

문득 엇그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만났던 과

학자들, 특히 처녀들과 가정부인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시었다. 위성은 진정 운반체에 의해서만 하늘에 띄워지던가? 아니다, 아늑한 보금자리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서슴없이 애국의 뒤전에 밀어놓을 줄 아는 이런 진주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의 고귀한 정신력이 원동력으로 되었기에 위성은 저 광막한 우주를 거침없이 날고있는것이다.

바로 그런 진주보석들을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 서도 수없이 찾아보게 되시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르로운 동음소리...

이것은 분명 활력에 넘친 공장의 거세찬 숨결소리 아니,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소리이다. 그때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여 이 전진을 잠시라도 멈춰 세울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우리 당이 인민과 한 약속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친대도 우리 당은 이 신성한 약속을 추호도 어기지 않는다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이 억년지반을 이룬 강성국가건설이기에 절대로 흔들림없다는것을 온 인류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운수에게로 다가가시여 그의 손을 짹 들어주시었다.

《중대장! 동무는 약속을 훌륭히 지켰소. 난 사실 이미전부터 동무를 만나보고싶었댔소. 하지만 동무가 군대때 나와 한 약속때문에 피로워할가봐 참아왔던거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 믿고 기다려온거요. 자, 이제 어깨를 짹 펴오. 병사들과 한 약속, 인민들과 한 약속에 언제나 성실했던 그것이 바로 나와 한 약속을 지킨게 아니겠소.》

《장군님!...》

운수는 현훈증에 비칠거렸다. 곁에 서있는 한철무의 팔굽에 손을 의지한채 그는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역센 사나이의 손바닥을 질벽하게 적시며 턱가에 주르르 맺히는 초물처럼 진한 눈물방울...

《그러나 지배인동무, 우리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소. 왜냐면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리상이기때문이요. 준엄한 선군의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에게는 웅당 제일 맛 좋고 보기도 좋고 포장도 잘된 그런 특산물만이 그득그득 안겨지게 해야 하오. 이 공장에서 나오는건 다 세계적인 특산물이 되어야 하오. 특산물이란 뭘겠소?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즐겨찾는 그런것이 아니겠소. 앞

으로 통줄임을 비롯하여 제품의 가치수도 높이고 특산물상점도 더 내고 또 이 모든걸 낮은 값으로 인민들에게 봉사하게 하자는것이 나의 의도요. 지배인동무, 그래 이걸 나와 약속할수 있겠소?》

《예. 장군님, 저는 그 약속을 기어이... 기어이 지키겠습니다.》

운수의 피끓는 맹세가 귀전에 메아리쳐오는 순간 한철무의 심장은 세찬 흥분으로 뿔뿔였다.

아, 정운수에 대한 장군님의 류다른 관심, 공장에 대한 그이의 남다른 애착은 바로 이때문이였구나.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약속!

그 신성하고 위대한 약속의 세계를 소중히 가꾸고 키워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의리와 믿음속에서 오늘 정운수는 어떤 거인으로 자라났는가!

철무는 걱정애 겨운 감사의 눈길로 그이만을 우러르고 또 우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부동자세로 서있는 운수의 허리를 눈여겨보고계시었다. 넓은 가족따를 차서인지 작업복자락밖으로 알릴듯말듯 도드라져 보인다. 비록 영예군인이지만 조국과 인민이 권하는 꽃방석을 마다하고 저 성하지 못한 몸으로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해 복무의 나날처럼 량심의 자욱만을 새겨온 일군...

그때, 그에게 군복을 입혀주고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해주자...

그이의 눈가에서 해살이 번쩍 빛났다.

《동무들, 이 공장은 경공업,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씨이고 본보기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웅당 전국의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에로 더 힘있게 추동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동무들도 다 아다싶이 당에서는 이미 각 도와 군들에 식료공업의 기초를 마련하여주었소. 수령님께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신 그때처럼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이 공장에서 창조된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를 그대로 따라배운다면 온 나라의 식료공장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시에 현대화할수 있다고 보오.》

일군들은 새로운 신심과 활기에 넘쳐 장군님을 우러렸다.

그이께서는 한철무를 자애의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어떻소? 철무동무, 머리가 거뽏해지지 않소? 우리 인민이 얼마나 훌륭하오. 이런 인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총칼로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법이

# 팔을 끼고 어깨를 곁고!

김 정 순

천만군민이 하나가 된  
일심단결의 조선의 모습  
그 모습 그러볼 때마다  
못 잊을 불멸의 화폭이 있어라

혁명은 동지  
동지는 혁명  
우리 수령님 혁명의 초행길  
혁명의 붉은기에 새겨주신 신념의 글발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너는 김혁  
나는 성주...

동지애로 시작한 혁명을  
동지애로 완성하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당의 만년초석을 쌓으시던 나날  
승리의 진리로 남기신 의리의 글발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

위대한 수령님  
너와 나 변치 않을 맹세로 시작한 우리 혁명

우리 장군님  
너와 나 당의 충실한 전사의 의리로  
줄기차게 걸어온 우리 혁명

오늘도 울려온다  
4월의 대축전장연단에서  
천만군민에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불변의 선언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입니다

오, 달리는 살수 없는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백두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우들  
목숨바쳐 그이를 옹위하리!

수령님따라 천만리  
장군님따라 천만리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찬란히 펼치며  
**김정은**장군님따라 천만리

오, 팔을 끼고 어깨를 곁고!

~~~~~

요. 난 정말 오늘 지금껏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  
는것 같소.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려 성공하였을 때  
만치나 기쁘단 말이요!》

쿵— 가슴치는 충격, 솟구치는 걱정 of 분출...  
철무는 눈곱이 찌릿해왔다. 지금껏 찾지 못했던  
대답, 이 공장의 참판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찾은  
듯 한 느낌이였다.

겹겹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을 이렇듯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포성으로 말  
끔히 가셔버린 저 맑게 트인 봄하늘아래서 한  
껏 진동하는 이 풍만한 향기...

아,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믿음이 하  
늘갈오신분이여서 그이의 담력과 배짱이 이리도  
강한것인가? 이런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시고있  
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느 원주가 감히 건  
드린단 말인가!

흥그럽고 즐거운 기분이 뇌리속의 뿌잇한 안개  
발을 가셔내는듯 한 이 시각 한철무는 자기의 키  
가 더 우쩍 자라고 산악같은 힘이 근육마다에 한  
껏 내뻗침을 후련하게 느끼였다. 그리고 여직껏  
생각지 못했던 무적필승의 섬멸의 지략이 뇌리속  
에 평곳평곳 섬팡치는것만 같았다.

그는 환희의 눈물어린 눈길로 공장정문너머 대  
동강반을 바라보았다.

봄별이 재글거리는 강변의 누르불그무레한 색채  
속에서도 그는 진달래며 개나리 등 꽃판목들의 연  
한 새움과 망울들을 다 가려볼수 있을것만 같  
았다. 물씬 풍겨올 진한 향기마저 입술에 닿는 보  
드라운 안개비마냥 살풋이 감촉되는듯 한 유쾌한  
기분이였다.

아, 봄은 정녕 얼마나 좋은가. 이 땅에는 바야  
흐로 봄, 봄이 오고있었다.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예봉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는데 돌려져야 한다.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위한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은 이성뿐만아니라 감성에도 적극 작용하기때문에 사람의 사상문화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계관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학예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우리는 문학분야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문학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 혁명일화

## 선 군 메 아 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주 체 98(2009)년 10월 1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의 길에서 울림폭포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일행이 울림폭포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있을 때였다.

아직 울림폭포까지 가자면 한참 가야 하는데 어디선가 짹짹 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울림폭포의 장쾌한 메아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한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언제 들어도 정답고 장쾌한 느낌을 준다고, 자신께서는 울림폭포에 올 때마다 그 메아리에 심취되곤 한다고, 울림폭포의 메아리가 하루빨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의 심장을 광광 울려주는것만 같다고 온 골안이 울리도록 찌렁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범상하게만 생각하는 메아리, 산이 있고 폭포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메아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울림폭포의 메아리를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않으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역경의 시기에 우리 인민군군인

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지고 찾아낸 선군시대의 새로운 절경—울림폭포, 그 폭포가 울리는 메아리여서 뜨거운 심장으로 그 울림에 화답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우리는 이 땅, 이 하늘아래 기어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무적필승의 총대에 떠받들려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선군메아리라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인민군군인들이 울림폭포를 찾아내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메아리도 울림폭포와 함께 영원히 자연의 비밀속에 가리워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선군메아리!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장군님이 아니시고서는, 선군의 내 나라를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가려들을수 없는 선군조선의 메아리였다.

오늘도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엄적을 길이 전해주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온녋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라고—

# 우리의 최고사령관 외 1편

## 조 광 철

얼마나 림름하신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4월의 봄하늘을 찢쩍 울리며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을 선포하시던  
젊디젊으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희세의 열의인  
우리 당의 만년초석을 억척으로 다지시며  
주체문학예술의 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대전설을 진두지휘하시던  
열정에 넘치신 우리 장군님 그날의 모습처럼

땅크를 몰아 험한 산밭을 넘으실 때에도  
함선을 타시고 사나운 파도를 헤치실 때에도  
백두의 산악같은 그 모습은 조선의 힘  
해빛같은 그 미소는 강성조선의 밝은 해돋이

언제나 인민들과 병사들속에 계시며  
불타는 열정에 넘치신 그이  
그 무엇으로도 가늠 못할 친화력으로  
마음과 마음들을 순간에 그려안나니

생각하노라 해방된 조국땅에서  
해돋이 아침해마냥 젊음이 넘치신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우리러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기쁨의 격정을 터뜨리던 열혈의 시인처럼  
나도 온 세상에 위치고웨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오,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우리 그이만을 믿고 따르노라  
포문을 열어놓고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  
우리 식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높은 자존심을 안고사는 영웅들과 청년들

가없이 열린 내 나라의 하늘이여 땅이여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조국이여  
그렇다 온 세계가 부러워 경탄하는  
우리 장군님의 정의에 불타는 열정은  
조국과 민족의 심상한 힘  
후손만대의 질푸른 미래

그 열정에서 뿜어치는  
백두산악같은 담력과 배짱으로  
체국주의운명에 종말을 선언하신분  
그 타끓는 사랑과 정으로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고  
사회주의기치를 더 힘차게 날리시는분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억척으로 담보해줄 용용한 그 힘과 열정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었거늘

오, 희세의 천출명장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아침태양처럼 열정넘친 사랑과 정으로  
우리 당과 국가 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다 강성조선의 래일을!

## 나 의 중 대

부모들의 슬하를 떠나  
어머니품처럼 내 안겨사는 곳  
중대여  
친근한 너의 이름은  
사랑이란 말 정이라는 말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말

너는 내 병사생활 첫 배낭을 풀며  
생소함에 잠 못이루던 밤

고향집아래목처럼  
이 몸 덮혀준 신입병사잠자리  
결에 누운 갑산내기분대장이  
슬그머니 덮어준 《마안산》모포

너는 병사의 생일이면  
친부모의 사랑인듯 다심하고 품성하게  
특식을 차려놓은 그 식탁  
보기만 해도 흐뭇한 콩비지

제일먼저 곱배기를 청하던  
양덕내기구대원의 절절한 목소리

노래는 아닐가 중대여 너는  
장군님 보내주신 노래반주기재앞에서  
어깨 들썩 흥을 돋구던 병사의 랑만  
훈련의 설참  
사단장과 팔씨름을 겨루는 병사의 승벽

미더운 전우들과 어깨 나란히  
고향의 편지를 돌려가며 읽던  
포도덩굴아래 의자를 두고  
병사들을 위한 날  
중대군관 안해들이 담근 참나물김치를 두고  
중대여 나는 너를 나의 집이라고 부른다

한해 또 한해  
복무의 나날에 바친 병사의 땀이  
구석구석마다 보석처럼 스민 집  
풍력발전기 옆소우리 석비레 깐 룡구장...  
짜리광주리 터질듯 살찐 콩나물에도  
병사의 애뜻한 정 어리어있어

때없이 마음 후더워지는 그 이름

중대지휘관들과 전사 임무는 서로 달라도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용위할  
하나의 심장만이 맥박치는 곳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에 맞추어  
척척척 영광의 한길로만 나아가는 중대

너의 이름은 위훈이란 말  
너의 이름은 승리라는 뜻  
한생토록 퍼내고퍼내도 마르지 않을  
위훈과 승리와 아름다운 추억의 샘터가 되어줄  
아, 나의 중대여

떠나선 못살아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이 나라 병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운명을 같이할 전우로 산다  
병사시절의 보금자리  
오, 중대여 나의 중대여!

## 축복받은 아들에게

### 박 상 민

산촌마을 귀염둥이 내 아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니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내 아들

경사라도 이런 경사 또 어디 있으랴  
꿈에라도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가고싶은 마음  
종이비행기에 실어보던 내 아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보내주신 비행기를 타고  
하늘길로 평양으로 갔으니  
꿈같은 경사를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비행장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진 내 아들의 모습  
어찌 산촌마을 아이라고 하겠소  
대오의 앞장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미덥고 대견스러웠던가  
만수대언덕에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께 드리는 꽃은  
백두림산마을 우리들의 마음 아니었던가

철부지 웅석반이로만 알았더니  
어찌면 저리도 달라졌단 말ियो  
아무렴 백두산지척 마을에서 태어나고  
백두산을 바라보며 자랐으니 그럴수밖에  
아들아 온 나라 아이들앞에 자랑하여라  
나는 백두산마을의 복받은 소년단대표  
나는 백두산마을의 별목공의 아들이라고

그렇다 내 아들이  
너는 립산마을분교 15명 학생중 하나여도  
너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소년단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천만배의 충정으로 보답해야 할  
선군조선의 나어린 소년혁명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의 주인

고향은 너를 굳이 믿는다  
조국은 너의 앞날 굳게 확신한다  
오늘엔 너는 산촌학교의 소년단대표라면  
래일엔 너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 기억하시는  
수령결사옹위의 제1투사가 되기를 굳게 믿는다

##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역사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에 대하여

박 춘 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흘러간 력사의 한 페이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게 하는 장편소설이 나왔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전홍식 작)이다.

한없는 감회와 추억을 안고 장편소설의 페이지를 번지면서 우리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준비하던 1940년대 전반기 흘러간 력사의 갈피갈피에서 울려나오는 력사의 진실에 대하여 가슴후덥게 받아안게 된다.

### 시대에 새겨진 력사의 진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는 1940년대 전반기 력사적시대가 가르쳐주는 본질적의미—력사의 진실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 화폭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잘 형상하여야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보다 깊이 인식시킬수 있다.》

소설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과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빛나는 승리로 조지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거창한 력사적화폭속에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은 조국해방 위업수행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소설에 형상된것처럼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2(1943)년초 원동의 바쁘쑈예훈련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열리였다. 논의의 초점은 최후결전준비에 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정간부회의에서 샤오하얼바령(소할바령)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조국해방의 3대로선을 내놓으신다. 조국해방의 3대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전인민적봉기의 배합, 소부대 및 인민무장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동무들, 우리는 손에 총을 들고 10여년세월 나라를 찾기 위한 피어린 싸움의 로정을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선혈을 뿌리며 우리결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념원까지 다 담아 조국해방3대로선을 내놓음으로써 항일혈전의 마지막리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아들들로서 망국노의 운명을 끝장내기 위한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순간도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조국해방3대로선관철에 총집중해나갑시다!》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새 로선을 받아안은 안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통찰력과 전무후무한 용병술에 경이감을 금치 못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친다.

(아, 천출명장!)

그의 뇌리로오는 오직 이 말만이 지심깊은 암장밑에서 거대한 분출을 서두르는 용암처럼 세차게 굽이치며 용을 쓰고있었다. 하늘이 낸 위인이 아니 고서는 누구도 감히 이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것이다. 안길은 이 3대로선이 하루이틀사이에 나온것이 아님을 잘 알고있었다. 원동의 훈련기지로 들어오신 후 **김일성**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바로 이 3대로선을 도출해내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

와 헌신과 로고로 일관되어있었다. 군정훈련이나 소부대활동을 지도하시는 전과정이...

안길뿐아니라 최석천(최용건), 최현, 강신태(강건)도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이 환해지고 조국의 해방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다고 걱정을 터친다.

소설은 민족해방의 신비스런 방략인 조국해방 3대로선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걸출한 품모를 안길의 절절한 체형세계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심장의 웨침을 통하여 감명깊게 부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전술적안목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력사의 진리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총서작품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단계별로 그리는 총서작품은 해당 시대를 혁명로선으로 관통시켜 형상하여야만 혁명발전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다. 로선문제를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총서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해방전야》는 이 미학적요구를 구현하여 로선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따라 인간들의 운명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해방3대로선문제가 직선적으로, 개념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그것이 인간문제로 전환되어 인간들의 운명선을 타고 밝혀짐으로써 로선문제가 형상과 밀착되어 전반적인 형상의 주선을 확고히 이루고있다.

죽음보다 못한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여 목숨을 내대고 라진지구 지하조직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안길의 처남 강만수, 온 조국땅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하신 지하조직망으로 덮여있으며 나라를 찾기 위한 반일항쟁이 전국적범위에서 준비되고있다는것을 알고 장군님을 따라 나라를 찾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결심하고 감옥들에 갇혀있는 애국자들을 모조리 학살하려던 조선헌병대 사령관놈의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자폭하는 처녀 한소연, 일제의 경찰로 복무하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로 진격할 통로를 개척할 사명을 지닌 백산혁명위원회의 무

장폭동책임자로 되는 강필선 등의 형상은 이에 대한 레증으로 된다.

소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3대로선이 자신들의 생활과 운명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깨닫고 그에 열렬히 공감하여 투쟁으로 나서는 각계각층의 여러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3대로선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형상으로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사선을 넘어 국내로 들어가시어 전민항쟁준비를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헌신의 자욱자욱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전민항쟁력량이 마련된 력사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 감명깊이 형상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조국땅에 나가서 찾아보자고, 조국땅중심에 깊숙이 들어가 소부대와 혁명조직성원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관철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시며 소부대를 이끄시고 신흥지구로 진출할것을 결심하신다.

이때 신흥일대는 그곳의 한 소부대성원이 부전강발전소에 대한 단독정찰을 나갔다가 적수비대와 맞다들어 싸우다 희생된 사건으로 하여 적들의 대대적인 수색과 검거선봉이 불고있었다. 하여 안길은 소스라쳐 놀라며 사령관동지께서 신흥지구로 나가시는 문제는 좀 고려했으면 한다고, 나가시더라도 놈들의 소동이 증축해진 다음에 나가실것을 말씀드린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황이 어렵다고 지체할수는 없다고, 우리의 걸음이 하루 늦어지면 전민항쟁준비는 백날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며 3대로선을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관철할 방도를 찾기 위해 결연히 조국으로, 신흥지구로 나가신다.

신흥지구로 가는 사령부소부대의 행군은 참으로 어려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원동의 훈련기지를 떠나 지엔다오(간도)의 훈춘, 왕칭(왕청), 연지(연길), 허룡(화룡), 안투(안도)일대의 소부대들과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고 이어 무산과 연사를 거쳐 국내중심에로의 천리행군을 이끄신다. 무서운 폭설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단행된 간고한 천리행군이였다.

부전령산줄기 수림속의 생논판을 헤치시며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 도착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사령부파견원 류삼손(류경수)과 흥남지구 정치공

## 위대한 인간의 생활세계

작원 김석연을 만나시어 그동안의 활동정형을 로 해하신다. 두무봉밀영의 훈련장에서 신흥인민무장대의 분렬행진과 창격전훈련을 보아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각지 소부대 및 소조책임자, 정치공작원,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여시고 그들의 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나서 전민항쟁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올려세우고 배후연합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도시건 농촌이건 혁명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다 무장대를 꾸릴데 대하여 밝혀주신다.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를 본보기로 하여 그와 같은 활동거점들을 전국적판도에서 조직하여 전민항쟁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나오시어 걸린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우수한 지휘성원들을 각지 비밀근거지들에 파견하시어 조국해방3대로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도록 하신다.

장편소설은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백두산지구의 간백산밀영에 강력한 공격부대가 준비되고 조국땅 방방곡곡에 비밀근거지가 꾸려지고 국내 각지에 인민무장대가 조직되어 온 조선땅이 그대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전투진지로 변함으로써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완성되었음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히틀러도이첼란드가 패망하여 수천만의 생명과 막대한 재부를 삼켜버린 유럽지역에서의 대전이 종지부를 찍었을 때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세우시고 그 작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가 감명깊게 형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내세운 구호는 《모든 힘을 항일대전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이 구호의 요구대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으로 나가 구체적인 실정을 따져가며 작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소부대와 함께 위험천만한 적구로 떠나신다.

이처럼 장편소설에서는 당시의 력사적사실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1940년대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전민항쟁력량이 마련되고 최후공격작전이 승리적으로 진행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무게있게 형상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장편소설 《해방전야》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력사의 진실이다.

총서작품창작에서 인간학으로서의 본성적요구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하고 묘사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에는 안길과 그의 처남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깊게 그려져있다.

안길은 **김일성**동지를 몹시 흠모하고 따르며 또 그의 사상과 의도를 제일 정확히 파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가끔 파격한 성격상 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그것은 일단 흥분하면 리성을 망각하고 감성의 포로가 되기때문이다. 처남되는 사람을 그토록 질시하고 배척하는것도 그런 약점의 발로인것이다.

안길과 같이 혁명에서 책임적인 지위를 차지한 사람일수록 그릇이 커야 한다, 그래야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각계층의 인민대중을 한덩어리로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만큼 우리 혁명에서 큰 기둥의 역할을 놀아야 할 안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소한 티라도 그냥 내쳐둘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이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안길에게 자신께서도 동무의 처남이란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짓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져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준절히 말씀하신다.

《더구나 처남이란 사람은 동무의 이해와 혈육간이 아니요.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오누이사이의 정이 특별히 친밀하다고 했소. 그런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남편을 밀고하여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뜬소문을 그대로 믿는 동무의 이해가 그 남동생과 결별하고 어데론가 떠나가버렸는데... 어려운 때 서로 믿고 의지해살아야 할 친혈육이 원수로 되어 갈라져산다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요.

조국해방이란 사실상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동무의 처남과 같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소?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책감으로 기를 못 펴고 살게 될거요. 마음은 언제나 캄캄한 어둠속을 헤매게 될거란 말이요. 처남뿐이겠소? 그의 이해나 자식들도 다 그렇게 될거구 또 동무의 이해 역시 늘 마음속에 그늘을 안고 살기마련이요.》

안길에게 의심과 배척은 모든것을 잃고 믿음과



사랑은 모든걸 얻게 되는 법이기에 자신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혁명은 총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한다고, 나라를 찾자면 총대의 무성한 숲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뜨거운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를 펼쳐놓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인간사랑의 고상한 정신과 숭고한 리념, 인간의 운명에 대한 뜨거운 감수와 세심한 념려가 어려있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세계가 비껴있다.

장편소설 《해방전야》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이러한 위인적품모와 위대한 생활세계에 대하여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위탈을 앓는 김책에게 병치료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닳새에 한번씩 그 정형을 보고할것을 요구하시는 수령님의 전문,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우바오중(주보중)에게 베푸시는 너그러운 아량, 마유산전투에서 희생된 용석과 조선헌병대사령관놈의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자폭한 한소연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체험세계...

크나큰 감동없이 읽을수 없는 이러한 생활장면들은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고 그들모두의 운명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리념과 뜨거운 인간애로 하여 눈굽을 적시게 한다.

## 합리적인 구성형식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에서는 내세운 형상적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구성형식을 탐구이용하고있다.

총서작품에서 로선문제를 형상의 주선으로 확고히 끌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작품의 내용을 조직하는 구성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서작품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의 구현과정으로 일관하게 그려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구성의 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장편소설 《해방전야》에서는 로선문제를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줄거리도 로선문제에 바탕을 두고 끌고나가고있다. 안길, 김책, 최현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 강만수, 한소연, 강필선 등 인물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소설의 전반적인 이야기줄거리가 조국해방3대로선의 제시와 관철, 승리의 력사를 줄기차게 격동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

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혁명활동을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생활반영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다양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원동훈련기지생활, 국제련합군편성과 관련한 생활, 간백산밀영과 신흥지구 비밀근거지, 평양과 서울, 라진과 혜산, 창바이(장백)지구, 평남의 성천과 양덕지구 등 각지의 소부대와 소조, 인민무장대의 생활... 참으로 다양하다.

한마디로 작품의 생활령역은 어느 한 지역이나 부문이 아니라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되고있는 국내외의 수많은 비밀근거지들과 소조, 인민무장대이며 온 조선땅 전체를 포괄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생활분야와 인물들이 작품의 형상권안에 들어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과제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소설은 총서작품으로서의 풍격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이 조국해방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최후공격작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에 복종되면서 작품의 종자해명에 자기의 몫을 뚜렷이 가지고 합류하고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중심에 모시고 당대의 각계각층의 대표적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와 최후공격작전이라는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대서사적화폭을 구성하면서 1940년대 전반기의 시대와 여러 인간들의 운명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구성에서 또한 특색있는것은 매질의 앞머리에 년대와 지명을 밝혀줌으로써 력사적진실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수령형상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장식해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뜻을 이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리고 승리의 한길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세찬 발걸음을 더욱 고무추동해 주는데 이바지할것이다.

## 선군승리의 불멸의 화폭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세계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을 읽고)

권 선 철

오늘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선군의 길에 우리 조국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령도의 천만리길이 어려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뿌리 뜨겁게 하는 오성산.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박운 작)은 사연도 많고 추억도 깊으며 노래로 길이길이 전해지는 오성산의 굽이굽이 평봉에 깃든 위대한 선군령장의 신념의 세계를 감명깊은 형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산은 결코 기묘하고 절묘한 경치로만 이름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천만국민이 언제나 가슴속에 안고사는 오성산의 참모습은 그 굽이굽이마다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자욱을 따라 진실하게 펼쳐진다.

### 오성산이 안고있는 철학적의미의 해명

소설의 마감장을 덮었으나 오성산의 장엄한 모습이 금지로운 오늘을, 환희로운 래일을 떠올리며 심중에 다가든다.

선군으로 안아온 승리의 오늘을, 선군으로 승리 떨치며 펼쳐갈 보다 광휘로운 미래를 불타는 노을빛에 감싸안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오성산!

오성산은 선군의 상징이며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신념과 믿음으로 오성산을 안고사는 인민에겐 언제나 승리만 있다.

이것이 장편소설 《오성산》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충격이다.

오성산은 작품의 형상권내에서 직접적으로는 단

한번밖에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일화, 세부들이 다 오성산을 심장에 안고 살며 숨쉬는 인간들의 생활로 이어지고 깊어지고있으며 이야기줄거리는 오성산을 축으로 하여 립체적으로 엮여지고있다.

소설에서는 전선중부의 험준한 산악인 오성산이 품고있는 형상적의미가 철학적으로 밝혀지도록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업적을 장엄한 서사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안개비 내려 위험천만한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질풍같이 몰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토로가 오성산이 안고있는 철학적의미의 해명을 암시해준다.

《안개덮인 저 언덕, 아직은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희망의 평마루를 향하여 야전차는 달리고있다.

지금 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아니, 하나의 상징적인 큰뜻이 깃든 전혀 새로운 세기의 평마루를 향하여 달음치고있다.》

그 순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에서 뜨겁게 굽이친것은 무엇이었던가.

칼벼랑길에서 야전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할 때에 조차도 번개치는 사색속에서 티엔차오령(천교령)의 눈보라소리, 《반일전기》의 메아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천길벼랑끝으로부터 겨우 30센치미터가량 되는 곳에 멈춰선 야전차앞에서 오열을 터뜨리는 지휘관들, 그들을 일으켜세우시고 차체에 어깨를 들이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자신에게 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아뢰시는 뜨거운 말씀이 세차게 고래치고있었다.

《수령님, 방금 야전차가 벗어섰던 지점이 우리 혁명을 시험하는 극한점, 력사의 최후의 지행점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이 조선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 그 유일무이한 기둥인 우리 군대를 믿고 이 조선을 일떠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수령님께서 력사우에 내세워주신 인민입니다.

저 신령스러운 오성산에 올라 선군의 총대를 더

욱 높이 추켜들겠습니다.》

이 숭엄한 화폭은 결코 우리의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길의 엄혹성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 행성의 운명을 책임지신 그이께서 선군이라는 절대불변의 선택을 승리의 열쇠로 찾아주시고 역적의 신념으로 굳히시는 력사의 순간에 대한 화폭인 동시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헤쳐넘으실 선군길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장엄한 화폭인 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의 길을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끝까지 이어가시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지쳐내리는 야전차를 몰고 험준한 칼벼랑길을 오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와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오성산이 우리 선군혁명력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풀어내고있다.

오성산 칼벼랑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지신 신념의 땀은 조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를 안아오는 근본뿌리로 되었으니 정녕 오성산은 전선중부의 고지로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상징으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굳건히 새겨지게 되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린 저 오성산을 생각하면 천밤을 새워도 힘이 우쭐우쭐 납니다. 우리 지휘관동지들은 이 령길도 진지공사장도 다 오성산을 지켜선 성새라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뢰이는 한 평범한 병사의 대답속에서 역센 신념과 믿음의 거목으로 뿌리를 내린 오성산이 보여지고 군대와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온다. 오성산은 선군의 상징인 동시에 천만군민의 신념과 믿음의 보루였던 것이다.

오성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선군길은 최후의 승리에로 질풍같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병사의 소박한 대답속에 숨배여있으며 그 오성산을 지켜 천겹만겹의 성새가 될 신념과 역적의 의지가 그 대답속에 안겨온다.

오성산이 안고있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의 선군길이 어떻게 열려지고 우리의 승리가 무엇으로, 어느분에 의해 마련되는가에 대한 의미깊은 문제를 안고 그의 철학적해명의 깊이로 사색과 형상의 폭을 넓혀간다.

과오를 범한 동생때문에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며 해임제의를 써놓고 주눅이 든 사단장 김무전을 안아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쏘오시었던가. 그의 일이 마음에 걸리시여 넘어서시였던 철령을 다시 넘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세찬 눈보라속의 광풍을 뚫고 전진하는 야전차행렬, 평범한 전사-동지

를 찾아 눈사태 쏟아진 령길을 걸어서 넘으시는 령장의 힘찬 발걸음에서 《철령이 안고있는 의미》가 철학적으로 해명되고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혈연적인 관계로, 참다운 전우-혁명동지의 관계로 감명깊게 그려내고있다.

병사들의 흠뻑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직관속보판의 《군민일치》 고정글을 《인민을 돕자!》라는 글로 바꾸는 문제조차 《병사들과 토론》해보고 결론하라고, 그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 최고사령관의 결론으로 생각하라고 이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가 다심하고 따뜻한 사랑의 정으로 무한한 감동의 열매를 낳고있다.

사랑은 거짓으로 지어낼수 없고 차거운 심장으로는 더구나 낼수 없는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각이한 인물들의 가정사태로부터 그들이 남긴 일화며 개개의 성격과 취미까지도 모두 환히 꿰뚫고계시며 가장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은 믿음과 사랑의 오성산을 충정과 보답의 산악으로 아아하게 일떠세웠다.

각 군종, 병종의 지휘관들과 평범한 병사들과 로동계급, 그들의 가정과 일가친척들에게까지 배풀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열과 정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화폭은 위인의 숭고한 인간적품격을 돋구어주고있으며 가장 소탈하고 다심하며 인정미 넘치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찬탄의 격정을 낳고있다.

북남군사실무대표단 단장인 유진철대좌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이야기는 그 어떤 숙명적인 행운도, 우연의 일치도 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필연적인것이다. 다심하고 사려깊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기에 먼 전선길에서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떠밀어보내시며 유진철을 맞받아나가는 즉시 자신께서 동지들을 위해서 비상약으로 간수하고계시던 귀한 약을 먹이라고 당부하신다.

천출명장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이러저러한 정황에서 각이한 인물들의 운명선을 통해 생활적으로 납득이 가게 진실하게 그려내고있으며 이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를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품위있게, 뜨겁고도 절절하게 형상하고있다.

오성산이 안고있는 철학적의미의 또다른 측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에 대한 깊이있는 해명이다.

전선부대 지휘관들의 심장속에 선군길에 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며 국방위원회 일군들과 대적투쟁에 나선 외교사절들에게 높은 정책적안목과 지략의 눈을 틔워주시고 그들모두가

헤아리지 못했던 전략전술적방도도 제시해주시며 대답하게, 통이 크게 미제와 남조선군부를 다 불려대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서해전역의 전선길에서는 연평대첩을 이룩한 지휘관들의 작전전술적안목도 띄워주시고 자주적근위병의 존엄높은 오성산이 서해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나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하늘길에도 오성산의 메부리는 거연히 솟아있었다.

미제의 대형전략정찰기를 단방에 쏘떨구겠다는 김영문소좌에게 혼쌀을 내어 놈들의 비행기를 우리 령공박으로 쫓아내도록 명령하기까지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속에서도 《오성산의 그 운명의 분초》가 흘러간다. 미제의 정찰기에 대한 격추보다도 더욱 큰 행성의 평화를 내다보시는 령장의 비범한 예지가 오성산너머의 아름다운 래일로 확대발산되며 깊어간다.

《리령수, 대중이 하늘이야. 더 깊이, 더 아래로! 전사들을 믿으라구.

만약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다름아닌 인민대중, 전사대중이요!》

지휘관들의 전략전술적안목을 띄워주시는 천재적위인의 비범성은 전사들에 대한, 인민에 대한 믿음을 사색과 활동의 기준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바다와 하늘, 땅에서 침략적인 도발을 감행해오던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천재적인 예지와 전략적안목으로 꿰뚫어보시고 천만군민의 산악같은 힘으로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가 오성산의 찬연한 빛발로 눈부시다.

선군의 상징—오성산이 안고있는 여러갈래의 깊은 의미를 단 한마디—승리라는 언어로 규정지며 김무전의 내면독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우린 이번 미제와의 대결에서도 또 승리할거다.

저 안개에 덮인 숭엄한 오성산이 백악관의 작전도를 늘 내려다보고있으니까. ...)

힘준한 산악으로 독자들에게 첫선을 보였던 오성산이 숭엄한 자태를 드러낸 여기에 소설의 시작과 끝이 안겨주는 사상정서적울림의 여운이 있다. 안개에 덮인 오성산에선 또 그 어떤 불가항력의 힘이 자라고있는것인가.

## 형상의 묘술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이 역사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을 형상적화폭으로 재현하여 위대한 승리로 엮어진 선군혁명의 과정을 장엄한 화폭으로 그려볼수 있게 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소설에서는 인물성격이 구체화되고 개성화되어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도 성격의 개성화는 필수적이다. 왜냐면 천출위인일수록 남다른 성격적특성과 천재적기질을 지니고 높은 지성과 인격을 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수령을 추상적으로 격식화하여 그리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살아움직이는 생동한 인물로 그리면서도 수령의 풍격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여준 여기에 소설이 거둔 창작성과가 있고 창작기교의 좋은 경험이 있다.

선군을 사회주의조선의 생명으로, 운명으로 틀어쥐고 선군의 길을 끝까지 주저없이 가야 한다는 력사의 리정표가 오성산에서 세워지기까지의 위대한 장군님의 심리세계묘사가 매우 시사적이다. 오성산을 뚫아오르는 길에 그이의 심중에 더해지는 천만가지 추억은 정녕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위대한 인간만이 겪으실수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모지름이기에 장군님께서서는 야전차바퀴가 멈춰선 천길벼랑끝을 《우리 혁명을 시험하는 극한점, 력사의 최후의 지탱점》으로 간주하시고 변함없이 선군으로 내 조국을 이끌어가기려는 드팀없는 신념을 티엔차오령의 눈보라 울부짚음속에 굳히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격형상에서 보다 개성적이며 감동적인것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아버지수령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수령님께 자신의 결심도 보고올리시며 마음속에 항상 수령님의 모습을 간직하시고 수령님식대로 일해나가시려는 자세와 념원이다. 하기에 오성산에 오르시며 혁명의 요구에 앞서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을 실현해가신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사색이 고매한 형상으로 안겨오고 수령님처럼 인민을 믿고 군대를 앞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실 철석의 신념을 굳히시는 장군님의 형상이 불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만드신 강낭죽을 달게 드시던 추억이며 현지도의 길에서 가벼운 해학으로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바로잡아주시던 수령님의 평민적모습에 대한 회억에서 어떤 울림이 울려나오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격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며 가장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안겨오는 장군님의 인간적향기를 심장으로 느끼게 한다.

소설에서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성격적개성도 잘 살려 흥미진진함과 친근감을 돋구어주고있다.

이러한 성격적특질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사업과 실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간직하고 그이의 선군령도를 드팀없이 받들려는 충직성을 하나와 같이 체질화한 그것이다. 총정치국장은

로부터 지휘관, 병사에 이르기까지 울고웃으며 흐르는 생활의 자연스러움속에 드러나는 산 인간의 모습들이 소설의 형상세계를 풍만히 해주 고있다.

《감성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박은철은 성격과 사고의 이모저모에 공상적인데가 다분히 섞여있었고 그것은 혈치 않고 짧지 않고 또 단순하지도 않은 군사복무의 나날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앞날을 낙관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군인품격을 갖추는데로 변화되어갔다.》

《함대사령관 전명호는 평소에 생활에서나 사업에서 썩 여유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중하면서도 속이 탁 트인 장령이었다. 무슨 일에서나 침착하고 너그럽게 처신했으며 큰배가 천천히 떠난다는 격으로 덤비는것을 질색하였다.》

《정치위원의 얼굴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으나 쌍겹진 두눈만은 저وقي 류다른것이였다. 눈동자가 큰 그 눈은 솔직해보이고 감정을 은연중 직선적으로 내비추이는, 이를테면 맑은 거울같은 것이였다.》

인물들의 성격적면모가 확연한 레의 문장처럼 그들의 사업과 생활이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 그 선에서 탈선하여 마찰음도 내도록 함으로써 성격의 개성화를 이루고 산 인간의 형상창조에 이바지하고있다.

부쉬, 포웰, 램스펠드, 라이스 등 실재한 적대 인물들을 형상함에 있어서도 포악성과 교활성에 있어서 제나름의 쟁기와 정견, 책략을 갖춘 성격을 창조하여 조미대결전의 형상적폭과 심도를 준엄하고 예리한 환경으로 깔아주고있다.

성격창조에서뿐아니라 인물관계 설정에서도 이채로운것이 눈길을 끈다.

사단장인 김무전과 아들인 서해함대 함장 김성림, 딸인 군의 김온림 그리고 제대군관 백순남과 아버지가 섰던 최전연초소를 지켜선 아들 백미성 대대장, 형 리갑동갑판장과 동생인 리갑성병사, 국방위원회 한정산국장과 김무전사단 정치부지도원 한순산중좌...

지켜선 초소와 말은 직무, 관등급은 달라도 오성산과 혈연의 정을 맺고 뿔뿔해야 뿔수 없는 운명의 길—선군길에 온넛을 다 바치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이 작품의 형상세계속에서 감동적으로 안겨온다.

세부활용과 언어구사에서 보여준 묘기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측면이다.

김무전의 갓김치세부는 거듭 반복되면서 매번 새로운 느낌과 의미를 더해준다.

처음에 갓김치세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흠모하여온 김무전의 깨끗한 마음을 보여주며 이어 중학시절 주눅든 리평수를 데리고 댕

으로 가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만드신 강남쪽에 받쳐 갓김치를 달게 드셨던 장군님의 지난날의 추억을 불러준다. 다음은 김무전이 소중히 메고다니던 갓김치통을 잊고 방을 나서려던 모습에 비낀 정신적변민과 허탈, 리만순정치위원의 깨우침으로 다시한번 자신을 다잡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진지공사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갓김치통을 드리는것으로까지 쭉 편결된다. 갓김치세부는 이처럼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인간성격의 발현과 더없이 소중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억세여지는 인간성격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밖에도 소설의 여러 장면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맞으시는 눈보라에 대한 생동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레사로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간고한 선군길을 헤치시여 이 땅우에 승리의 봄, 행복의 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과 사색의 세계를 느끼고 그이의 내적인 체험과정을 강렬히 받아안게 된다. 실로 눈보라에서 울리는 다의미적인 형상의 목소리는 얼마나 웅심깊고 충격적인것인가.

언어구사에서 특징적인것은 줄임법에 의한 함축과 생략, 비약의 활용이 매우 적극적이것이다.

또한 통신, 방송, 담화, 합의서 등 력사적인 사실기록들을 적절히 배합해넣은것은 력사문헌적인 총서작품의 격을 살리는데 합리적인 구성형식이라 해야 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형상을 모신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신형장갑차를 몰고 장군님께서 가셔야 할 전선길을 먼저 밟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용직승기로 한발 먼저 결전진입계선에 도착하여 정황을 보고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커다란 감동을 받아안게 된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선군길은 영원하며 승리로 이어지리라는 크나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선군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주는 오성산.

선군의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그들의 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줄것이다.

련 시

## 강성원은 노래한다

백 하

### 그이의 발걸음

간절히도 마음속에 그리고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기쁨넘친 강성원에 들어서시자  
감격에 겨운 봉사자들  
그이의 두팔과 손을 불안고  
눈물이 글썽 만세를 웨치며  
불같은 눈물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도 바라오던 마음속 소원을 품듯  
못 잊을 추억의 먼길을 쓰다듬어보듯  
눈가에는 후더운 눈물이 가랑가랑  
불을 타고 소리없이 흘러내린다

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장군님의 령구차에 손을 얹으시고  
온 행성의 슬픔을 다 담아  
한자욱 한자욱 무거이 옮기시던  
그이의 그 걸음

가슴터지는 온 나라의 절통함을  
한품에 다 받아안으시고  
쓰러진 인민을 일으켜세우시여  
걸음걸음 부축하시며 옮기시던  
위대한 은인의 그 걸음

가슴찢기는 조국의 아픔을  
한품에 다 안으시고

견고걸으신 길 몇천몇만리던가  
불과 불이 부딪는 판문점의 로대도  
결연히 딛고서시었던  
천출명장의 그 발걸음

파도솟는 초도방어대의 포진지도  
거연히 눌러디디신  
조국수호의 그 발걸음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이어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이 없이  
견고걸으시는 천출위인의 발걸음

그 자욱자욱 살펴보는가  
그 걸음걸음 안아보는가  
녀인들은 그이의 자욱자욱우에 후두둑  
더운 눈물을 떨구고 또 떨군다  
시간을 당겨 세월을 당겨  
이 땅우에 뜨거이 새기시는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우에

아, 그이 오신 꿈같은 이 시각  
행복에 겨운 이 시각  
주체혁명의 멀고 험난한 길  
천만리라도 억만리라도  
오직 그이만을 따를 철의 신념을  
녀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앞에  
뜨거운 눈물로 새기고새기여라

### 사랑의 메아리

수도의 체육관을 여기에 옮겨왔나  
현란히도 눈이 부신 강성원의 체육관  
넘어져도 무릎이 상하지 말라고  
바닥에 고무판을 깔 체육관  
넓고 시원하고 관람석도 아담해  
모두 웃음발이 병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마음이 안 놓이신듯 보시고 또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룡구공을 가져오시오

공을 받아드신 그이  
웬일이신가 룡구공을  
바닥에 치고 또 치신다  
일군들 서로 얼굴만 마주보는데  
나직이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제야 일군들  
눈가에 피어나는 밝은 빛  
쿵쿵 가슴벽을 울리며

숨차오르는 걱정  
—들리지 않습니다  
—울림이 전혀 없습니다

순간 환히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체육관이 소음방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는가  
이런 다심한 보살피심도 있는가

극장무대도 아니다  
기악연주실도 아니다  
하지만 체육관에도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경험있는 인민군부대를 건설에 붙여  
소음방지대책까지 세워주신 그이

로동계급에게 주는 체육관인데  
한점의 흠도 있을세라  
골조만 일어난 건설장에 몸소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건설공법까지 가르쳐주시며  
체육관을 극장꾸리듯 하여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 세심한 그 보살피심

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올리신  
가벼운 툽구공소리  
들릴듯말듯 소리는 낮아도  
그 사랑의 메아리  
후더운 가슴들을 한껏 한껏 흔들었어라

## 약 속

벽마다 거울이 빛을 뿌리고  
폭신한 리발의자들 손님을 부르는  
아담한 리발실 눈부신 방  
창광원처럼 훌륭한 설비들  
그쫘히 갇춘 희한스런 방

못내 흡족하시여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기쁨을 금할길 없는데  
리발사처녀들 자랑이 끝없어라  
창광원에 가서 기술을 전습받았다고  
이제는 그 어떤 리발형태도 다 자신있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밝게 웃으시며  
못내 흐뭇하시여 대견하신듯  
기쁨넘쳐 말씀하시여라  
—나도 여기서 한번  
리발을 하고 갈가

그러자 희열의 파도가 일었다  
낮과 밤 한순간도 쉼없이  
현지지도의 길 가고가시는 그이앞에  
저마끔 다투어나셨네  
여기서 꼭 리발을 하고 가시라고

기쁨넘친 눈빛들 소원에 타는 눈빛들  
세상에 없는 리발실을 꾸려주시고도  
다시금 안겨주시는 그 크나큰 믿음  
너무도 허물없이  
푹푹 정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이께서도 무척 기쁘신듯  
넘치는 정을 담아 둘러보시여라

—그러면 누가 깎아주겠습니까?  
순간 환희의 폭풍이 터졌다  
저저마다 그이앞에 나서며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금시 리발의자에 앉으실듯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이앞에  
꿈같은 행운을 제 먼저 안으려  
기쁨겨운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다투어 다가서는 리발사들  
행복에 겨운 그 눈빛 그 절절함

한없이 미더운 그 모습들  
기쁘시여 보시고 또 보시는 그이  
—고맙소 고맙소  
내가 이렇게 공장들을 다니다가  
꼭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하겠소

끝내 터지고야말았다 만세의 환성이  
한생의 소원을 다 푼듯  
세상없는 행복을 독차지한듯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한가슴에 받아안고  
울고웃으며 쿵쿵 뒸다

아, 그 약속 사랑의 약속  
소박한 리발사들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름없는 봉사자들의 그 진심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고  
로동자들에게 심장을 다 주시였어라

# 하 나 의 맥 박

즐거운 명절 근로자의 명절 5.1절  
인적드문 산간벽지의 공장에  
꿈같이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강성원의 방과 방을 다 돌아보시며  
주시고주신 사랑 끝이 없었네

한생토록 이 순간을 간직하고싶어  
영원토록 행복한 이 순간에 살고싶어  
아뢰었네 간절히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그이 걸음 멈추셨네  
—무슨 소원입니까?  
—기념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순간 흐르던 시간도 멈춰선듯  
나래치던 기쁨도 깃을 거둔듯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강행군길을 가고가시는 그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여기 오시였던가  
얼마나 바쁘신 몸 오래도록 지체하시였던가

무릅없는 소청을 올리고는  
죄지은듯 가슴만 조이는데  
오히려 기쁘신듯 기특하신듯  
밝게 웃으시며 둘러보셨네  
—그럼 어서 사진을 찍읍시다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찍읍시다

아, 이 행복 이 영광  
방과 방들 문이 활짝 열렸네

탁구장에서 물놀이장에서 전자도서관에서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달려나왔네  
저마다 그이의 옆에 서려 싱갱이했네  
그이의 량팔을 불안고 어깨에 매달리며  
허물없이 그이의 앞에도 나섰네

모두 철없는 어린애들이 되어  
그이와 굳게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그이를 에워쌌네 한덩이 되었네  
그러자 이 무슨 올림인가  
툑툑툑 가슴가슴을 흔들며  
올려왔네 세차게 박동하는 맥박  
위대한 심장에 피줄을 잇고  
뜨거이 굽이치는 힘찬 맥박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 위해  
걸음걸음 천만고생을 다 바치시며  
인민의 행복을 쫓피워가시는 그이  
그 위대한 사랑에 숨결을 잇고  
고마운 그 은정에 높뛰는 맥박  
사랑과 충정이 하나로 이어진 맥박

높이 올리였네  
위대한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맥박  
세계를 놀래우며 누리를 흔드는  
일심단결의 맥박  
오, 하나의 맥박  
이 맥박을 멈출 힘 세상에 없어라

## 상 식

### 대기를 오염시키는 방울나무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에서는 방울나무가 휘발유승용차보다 오존을 10배나 더 많이 발생시킬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로 가로수로 심어온 방울나무는 30℃의 온도조건에서 한그루당 하루 40g의 이소프렌( $C_5H_8$ )을 내보낸다고 한다.

이소프렌은 휘발유성유기화합물(VOC)의 하

나로서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빛화학반응을 하면서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등 대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울나무 한그루가 내보내는 VOC의 량은 승용차 10대가 달리면서 내보내는 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김정은

##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청춘

최주원

저 하늘의 해도  
백열의 화광 활활 뿜어대는  
내 조국의 8월이다  
대줄기같은 장마비에도  
푸르른 참대순 쪽쪽 뿜어나가듯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주로우에  
승리의 신심 가다듬고나선 청춘  
강성국가건설의 비약의 힘  
용솟는 젊음에 화산처럼 뿜어대는  
내 나라의 청춘을 보라

얼마나 좋으나  
계절도 불타는 열정의 8월  
피도 뚫어 신심도 뚫어  
미래에로 거침없이 내닫는 청춘  
조국은 그리도 아끼고 사랑해  
주체년호로 빛나는 또 한세기를 떠맡겼나니  
청년절! 뜻깊은 이 명절  
온 나라 인민이  
그대들을 열렬히 축복한다

아, 우리 수령님  
《ㄷ.ㄷ》의 기발아래  
조선의 운명을 구원할 주인으로  
굳건히 묶어세우신 전위대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조직  
백두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에  
열혈투사들 더운 피 뿌리며  
빨찌산청년장군 수령님따라  
해방조선을 안아온 승리의 길  
그 길에 빛나오른 별무리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과 함께  
고귀한 청춘 서슴없이 바쳤기에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이름  
이 땅엔 청춘영웅도 많아  
조국은 그대들 삶과 녀트로  
번영하는 청춘기를 아로새기며  
장엄한 진군길을 달려왔도다

수령님따라 걸어온 청춘들의 대오

장군님슬하에서 익세여진 대오  
《청년들을 사랑하라!》  
철세위인들 숭고한 뜻 지닌  
그대들 이름은 청년전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빛난다  
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  
우리 당 붉은 기폭에 스민  
내 조국 아들딸들의 피어린 위훈  
승리와 영광의 력사우에 빛나  
청춘은 조국의 영예 아니었더냐

좋다 청춘이여  
혁명선배들 걸어온 성스런 길에  
그 이름 새겨 땀뻗한 청춘이여  
힘과 지혜 로력과 열정으로  
조국땅 그 어디서나  
돌격전의 선두에 기발처럼 나뭇기라!  
자기 바친 로력과 지혜로  
크낙한 조국의 미래를 당겨오며  
꿈과 리상을 한껏 펼치라!

청년절 청년절!  
참으로 뜻도 깊구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아침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무적의 총검과 마치와 낮  
과학의 붓대를 새로이 버려든 대군  
수백만 젊은 심장이 우리러 따르는 한길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조선의 청춘은 이미  
강성할 래일의 제주봉을 튼튼히 잡았거니

용감하라 청춘!  
돌진하라 청춘!  
백두산위인들 손길아래 자라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 녀트로 지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청춘대오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가를 웨친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며  
최후승리의 붉은 기발  
8월의 창공높이 추켜들었다!



# 해방년의 초여름에

김 홍 군  
그림 김광석

## 1

뜨락에서 별안간 흰등이가 킁킁거렸다. 처음엔 집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노라 자기 존재를 알리듯 한두번 심상하게 내지르더니 점점 잦아지는 소리가 무엇을 경계하는듯 날카로와졌다.

60을 넘긴 나이로 일찍 잠기를 털고앉아 어둠속에서 빼금빼금 대통을 빨아대던 락훈령감은 그 소리에 까닭모를 불안을 느꼈다. 그대로 앉아 듣고 있을수만 없어 몸을 일구었다. 열기설기한 살창에 바른 문창호지덕에 귀틀벽과 어슴푸레 구별되는 문쪽을 향해 발터듬을 해갔다.

문을 여니 아직도 미명이라 귀뜨지 못한 골짜기가 어둠속에 누워있었다.

《성가스레 웬일이노?》

그 소리에 마당 한귀에 가 선 흰등이가 고무를 얻은듯 더 승이 나서 골짜기아래쪽을 향해 찢어지는 소리를 뽑아댔다.

령감곁에 자리를 펴고 기척없이 누워있던 로친이 대수롭지 않은 소리를 했다.

《베짐승을 보고 그러겠지비.》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

판장동의 본부락이라 할수 있는 생여골이 이곳에서 30리길이다. 가호가 스무개도 안되는 그 마을에서 인가를 찾아 또 50리 나가야 부거면에 이르게 되니 로인네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심심산골이었다. 세상을 등진 이 방하수골에 첫새벽에 인적이 있다면 그건 벌써 심상치 않은 일이다.

최락훈로인이 처자권속을 이끌고 이 막바지에

짐을 푼 20여년사이 있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장가든 네 자식이 솟을 굽는데 편리하게 이끌저골 외판뜸에 집을 짓고 분가해사는 이곳에는 최로인네 일가뿐이어서 올 사람이 없었다.

아래쪽에서 어둠을 찢으며 번쩍거리는 전지불빛이 불쑥 나타났다. 별스레 가슴이 후둑거렸다. 가난을 유산처럼 물려받고 사는 산골사람들이 고작해 리용하는것이 초롱불이었으니 어둠을 섬찍하게 가르는 전지불빛은 마음의 안정을 뒤엎기에 충분했다. 일찌기 나라를 빼앗긴 때로부터 사람대접받기를 단념하고 숨어사는 그들에게 좋은 일로 사람이 찾아들리는 만무했다.

전지불은 곧추 로인네 귀틀집을 향해 다가왔다. 두억시니처럼 보이는 땃사람의 형체가 전지불뒤에서 언뜻거렸다.

퇴지에 나선 로인은 승악을 부리는 흰등이를 눈쫓히며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을 맞았다.

《령감.》

어둠속에서 삐딱이 부서져 나딩구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고무신바닥을 주어다 돌쩌귀를 대신해 붙여놓아 슬쩍 들어서 미당겨야 하는 삐딱을 발로 내질렀으니 가뜩이나 엉성하게 붙어있던것이 아주 떨어져나간 모양이다.

로인의 입에서 짓눌린 소리가 신음처럼 울렸다.

검은 제복을 입은 순사 넷이 우르르 담벽처럼 앞에 섰다. 놈들은 면경찰서에서 왔노라 했다. 놈들의 살기뻗친 눈길에 어둠속에서도 로인의 온몸에 서리를 끼얹는것만 같았다. 밤도와 이런 길에 떠밀려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처지에도 분

풀이를 해볼데가 없어 괜히 허세를 부리는 놈들이다. 땅도 권력도 깡그리 일본놈의것으로 되어 버린 세상에서 그 권력에 기생하고 복무하는 놈이면 리유여하를 막론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로인인데 행실머리까지 그 모양이니 당장 노성이라도 지르고싶었다.

일행의 우두머리라 짐작되는 키가 앙바툼한 놈이 뒤전에서 사람 하나를 끌어다 로인앞에 세웠다. 그리고는 그 얼굴에 전지불을 비쳐댔다. 불빛에 여기저기 멍들고 터진 험상한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본빛갈을 알수 없이 허영게 바랜 낡은 혼방직저고리의 팔소매가 거의다 떨어져 겨드랑이굵으로 약간 붙어있는 형편이고 가슴노리에 피자욱이 얼룩진것으로 보아 심통사나운 놈들이 퍼그나 닥달을 한 모양이었다.

젊은이는 성한데가 없는 얼굴을 해가지고도 로인을 보고 히죽 웃었다.

《이 자식을 아는가?》

《잘 알지요.》

자기로서도 어떻게 되어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젊은이의 입가에 여적 지워지지 않은 미소의 뜻하는바가 가슴이 가서였지만 보다는 그놈들에 대한 반감때문에 무척 젊은이를 편들게 되어서일것이다.

《어떻게 아는가?》

《젊은이가 앓는 모친의 병때문에 내 집에 왔다 갔수다.》

《그럼 이 약방문도 령감이 써주었는가?》

경찰이 내어민 종이쪽지의 글을 전지불빛에 읽으려니 픽 웃음이 나갔다. 감초가 얼마, 창출이 얼마, 당귀가 얼마 하는 식으로 일여뒹가지 내려 쓴 약방문이 너무 엉터리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어제 젊은이가 어석산쪽에 가서 솥을 굽는 셋째 규환을 찾아간다면 산을 넘더니 그가 써주었을것이었다.

《모친의 가슴앓이가 심하다기에 써주었지요.》

락훈로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어제 젊은이가 집에 잠간 머물다 갔다. 청진에서 200리가까운 길을 왔다는 젊은이의 말에 로인은 부쩍 의심이 들었다. 천연스레 어머니의 병때문에 왔노라 둘러대는 소리가 곧이들리지 않았다. 병원이 있고 의원이 많은 시내에서 골라골라 산속의 한미한 의원을 찾아왔다는것이 아무리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또 로인을 찾아왔다고 하면서도 퇴마루에 붙인 영치를 들썩거리며 건승 몇마디 말을 건넌 뒤에는 용건과는 다르게 셋째의 행처를 묻는것도 의심이 들었다. 찾아온 목적이 락훈로인의 조언이나 반자고 온게 아닌것이 뻔

드름했다.

급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젊은이를 붙잡아세웠다.

《모친의 병때문에 왔다면서 우리 셋째는 왜 찾는거요?》

《왔던김에 곰열을 좀 얻어갈가 해서...》

사냥을 하는 셋째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곰열두 내 집에 있네.》

더는 둘러댈 길이 없어진 젊은이의 얼굴에 그만에야 해식은 웃음이 떠올랐다.

《사실은...》

로인은 갑자르는 젊은이를 노려보며 독해 말했다.

《젊은이가 하는 일에 대해선 내 알바가 아니니 더 묻지 않겠소만 그 일에 우리 규환일 꺼들이지 말게. 난 우리 애한테 루가 미치는걸 바라지 않아.》...

그렇게 보낸 젊은이었다.

로인은 자기의 행동이 무의식중에 일어난것이 아님을 잘 알고있었다. 자기의 마음속에 오래동안 잠자던 정의감이 급박한 순간에 어쩔수없이 본태를 드러낸것이다.

경찰무리속에서 로인의 대답에 다소 실망한듯 찻- 입을 다시는 소리가 들렸다. 손바닥에도 들지 않는 몇글자의 약방문을 위해 수백리길을 다녀간다는 청년을 단속해놓고 틀림없는 소득을 확신한 놈들이었다. 그래 끼이끼이 밤도와 물려온 걸음이니 땡랑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시종 로인을 상대해 입심을 부린 앙바툼이경찰이 약이 올라 으르렁거렸다.

《믿을수 없다, 믿을수 없어!》

락훈로인은 별로 놀라지 않고 덤덤한 모양으로 서있었다. 젊은이를 옹호해나선 첫 순간부터 이놈들이 곱게 나오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은 그였다.

《청진서 예까지 얼마데 약방문때문에 왔단가? 말갈지 않은 소리!》

앙바툼이가 성깔진 소리로 으르딱딱거렸다.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지요. 앓는 부모를 살리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나야 할바를 해주면 되는거지.》

로인의 소리에 힘을 얻은듯 지금껏 침묵이던 젊은이쪽에서 반응을 보였다.

《난 빨리 돌아가야겠소, 어머니의 병이 급한데...》

《아니, 네놈은 이 약방문때문에 온게 아니다. 그러니 사실대로 뵈아놔야 해.》

경찰이 억지를 부렸다.

형- 젊은이가 코방귀를 꾸었다. 처음엔 로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해 서있던 청년이 배심이 살아 떡떡 맞선다.

《뭘 더 내놓으란 말이우?》

앙바름이가 약이 올라 괜히 로인과 해보았다.

《령감은 자기가 요시찰인이라는걸 명심해야 해. 이제 이놈의 걸음이 약방문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게 밝혀질 땐 령감도 무사치 못할 줄 알아.》

락훈로인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미련둥이들, 개떡이나 쳐먹어라! 어리석기란 참, 바로 그 엉터리약방문에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다니.

이끌거끌 가까이에 널려사는 자식들이 개짖는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숨이 차 헐떡거리며 들어서는 참으로 순사놈들을 알아본 그들은 아버지앞을 막아섰다. 세상을 등지고사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도덕의 엄한 계율속에서 살아온 자식들이나 자기들의 보금자리에 뛰여든 불청객에 대해선 사뭇 눈찌가 사나왔다.

《아버진 방으로 들어가세요.》

성미가 팔팔한 다섯째 은환이가 한걸음 썩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늬은이를 피롭히지 마시오. 약방문을 써준게 무슨 죄라구...》

분위기가 대번에 팽팽해졌다. 은환이의 사나운 기세에 놀란듯 경찰 한놈이 빈 격발기를 당겨 고요한 밤대기를 울리었다. 그러자 저마끔 메고있는 총을 추스르며 위협적으로 나왔다.

《흠, 네놈이나 언제 봐야 눈찌가 곱지 못하구 불량하단 말이다. 류치장맛이나 봐야 알겠는가?》

몸집이 우람한 첫째가 은환이를 밀어제끼며 앞으로 나섰다.

《아직 나이가 어린것이라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사어른들이 널리 양해해주시우.

그러구 우리 아버님이야 그저 찾아온 손님한테 약방문을 써준것뿐인데... 의술은 인술이라고 먼길을 찾아온 사람한테 인정으로 봐서 거절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순사놈들은 첫째의 공손한 어조에 더 할소리가 없는지 입을 꾹꾹 다시였다.

《형을 봐서 이번만은 용서한다. 다음번부터는 용서없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니만치 경찰을 방해하는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단 말이다. 알겠는가?》

은환이는 맛가지 않은듯 고개를 외로 틀고 어슴푸레하니 형체만 보이는 옆산을 바라보는데 첫째가 나서며 공손하게 말을 받았다.

《예, 저희들이 단단히 신칙하겠습니다.》

순사놈들은 그저는 돌아갈수가 없는지 방안을

기웃거리보고 못 먹는 감 찢어보는 심사로 허청간의 겨자루까지 쏘뜨려놓으며 한참이나 심술을 부리었다. 그리고는 청년을 불러세워놓고는 아무래도 심사가 편안치 않은지 가로보고 내려보고 하였다.

《네놈은 지금같은 비상시국에 에미병따위로 몇백리길을 다닌다는게 말이 되는가. 황국신민답지 못하단 말이다. 다음번부터는 이따위 시시껄렁한 일로 나다니다 걸려들면 없다. 알겠는가?》

청년을 정신차리게 한다면 귀뺨을 몇번 후려갈긴 순사놈들은 공연히 칼집을 절걱거리며 돌아갔다.

어둠을 찌는 전지불빛이 멀리로 사라지자 청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빙긋이 웃었다.

첫째가 다가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프지 않수?》

《뭘 일없습니다. 그깟놈들 주먹이라는게 속빈 솜뭉치나 같지요.》

청년은 노엽고 분한 생각을 삭이느라 퇴마루에 앉아 대통을 빨고있는 락훈의 앞으로 다가와 굵석인사를 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때문에 놈들에게 욕을 보셨습니다. 제 앞으로 꼭 다시 찾아뵈겠습니다.》

락훈은 어쩔 헛기침을 툴으며 대통을 뽕뽕 빨기만 했다.

청년은 싱긋 웃더니 첫째에게로 돌아섰다.

《형제분들께도 정말 신세가 컸습니다.》

《신세야 뭘, 그런데 이 밤중에 길을 떠나시겠소? 우리 집에라도 가서 쉬구서 래일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실걸 그러우.》

《아니,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다. 그럼...》

청년은 은환에게 다가가서 《이보라구 막내, 이제 오늘 터치지 못한 노기를 마음껏 터칠 날이 꼭 올걸세. 그날이 멀지 않았다니까.》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첫째가 살피가라며 삿잡문밖까지 따라나갔다.

락훈은 아무말없이 대통을 빨며 앉아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은환이 침을 뱉 뺨으며 호기를 부렸다.

《개놈들, 날을 잘 받은줄이나 알아라. 다시 한번 마주서면 그땐 아주 산귀신으로 만들어놓을테다.》

점점한 분위기를 가져볼셈으로 일부러스럽게 한말이 로인의 무거운 가슴에 더구나 납덩이같은 무

계를 더해주었다. 매사에 자기 처지를 알고 처신 하라 으르던 순사놈들의 소리가 다시금 얼음꼬챙이처럼 서늘하게 가슴에 박혔다. 로인은 모든게 이것으로 끝났으면 했다. 하지만 마구 우들렁대는 자식의 행동이 꼭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았다. 로인은 못마땅한 눈으로 아들을 흘겼다.

《그만해라, 마구 었서봐야 해밖에 볼게 없느니라.》

급해난 첫째가 동생에게 눈짓을 해댔다. 은환이 쪽에서는 그런 눈치도 모르고 내키는대로 입심을 부렸다.

《제깃놈들 뭐가 무서워서... 아버지도 참 잘하셔요. 아마 규환형님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거예요.》

로인은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하지 못할가.》

그만에야 다섯째의 입에 빗장이 질리고 무안에 젖은 민망스러운 눈길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얼굴을 흘끔흘끔 쳐다본다.

《난 너희들의 장단에 춤출 생각이 없다.》

로인은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것을 부득부득 우겨서 하는 아들들 일이 못내 섭섭했다. 하긴 말을 했다고 해도 승낙해줄수 없는 로인이었다. 이제껏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켜온 모든것이 허울뿐이었다는 생각이 재삼 가슴에 마쳐왔다. 누구에게라없이 욕이 나가 입을 움쭉거렸다.

《후례자식같으니... 아비를 속이고, 음...》

셋째 규환이 어석산밑으로 옮겨간것도 솟을 굽는데 조건이 좋아서라고 했지만 실은 아버지의 엄한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판장을 보자는것일것이다. 로인도 그 눈치를 모르지 않았다.

## 2

며칠후 로인은 대충 조반을 설때고나서 자식들의 집을 한바퀴 돌아고 나섰다. 전날에 겪은 일 같은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탄눈을 팔지 않게 신칙을 해둘 생각이었다.

락훈령감은 그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사실 다 커서 장가들어 자기 살림을 하는 자식들에게 훈시같은것은 부질없는짓이었다.

로인은 무력해진 자기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언제 덮쳐들지 모를 액운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수만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아침 일찍부터 솟구이터에 나가 있었다.

요즘 와서 목탄수요가 부쩍 높아졌다. 그래서 지난해 고무산세멘트공장에 나가 석달을 지낸 만이와 둘째에 이어 올해엔 그아래 형제들이 나가게 된 징용까지 면제되었다. 얼마전에 산판을 돌아보느라 왔다간 산판주인은 제가 교섭한 덕이라 생색을 냈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전시물자조달이 어려워진때문이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꿈을 잔뜩 해몽만 얼싸하게 해놓고 현훈증에 들떠 태평양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박판을 벌려놓은 일제가 이제 와서 바닥이 난 경제력과 기울어진 대세를 이런 보잘것없는 솟구이로나마 버티여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런 궁여지책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니 일제의 대본영과 총독부가 하는것이 또한 잔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추가로 떨어진 파제가 엄청나서 락훈로인네 자식들은 내놓고 불만이였다.

만이네 솟구이터에 이르니 옷등을 벗어내친 젊은이 일여덟이 톱으로 가마에 들여세울 참나무를 자르고있었다. 얼마전에 와서 볼 때에는 세넷이던 로력이 꼽절 붙어났다. 그때 벌써 깨름한것을 아들이 하도 처지가 가궁한 젊은이들이라고 인정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해서 눈을 감았더니 점점 판이 크게 번져가는 눈치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흐려지는것을 보고 만이가 공손히 여쭙었다.

《일감이 밀려서...》

《네가 데려왔냐?》

승낙없이 데려다쓴다는 질책이었다.

《데려온게 아니라 제발로 왔습니다.》

징용, 징병을 피해 산속에 숨어도는 사람들이라고 자초지중 이야기해주었다. 제 마당에서 화근을 자래우는 격이라 로인은 랑패한 얼굴이 되었다. 더욱 흐려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넘겨짚은듯 만이가 제격 《전번날 산판주인이 와서 보고 로력이 생겨 좋아하는 눈칩디다.》했다. 걱정말라는 위안이였다.

돌아보니 어느 가마터나 비슷한 꼴이었다. 생각 같아선 당장 보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싶었지만 사람인정이 그렇지 않아 꼭 참고말았다.

로인은 내친 걸음에 어석산밑의 셋째네 집에도 가볼 생각이였다. 코앞에서 이 지경이니 아마 그쪽은 더 말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였다. 로인이 만류하는데도 지난봄에 부득부득 우겨 여기서 산길로 40리 떨어진 곳에 옮겨간 셋째아들네였다. 무인지경 험한 산속을 몇시간 가야 하니 혼자서

는 안된다며 굳이 다섯째가 따라나섰다.

《그래 네 생각엔 어떠냐?》

어지간히 땀을 흘리며 마루에 오른 로인은 숨을 돌리고난 뒤 산을 내릴 때 은근히 물었다. 부모들의 생각밖으로 자꾸만 빠져져나가는 자식들 일로 서운한중에도 궁금했던 문제였다.

《아버지, 대사변이 눈앞에 왔어요.》

《대사변이라니?》

《조국해방이 눈앞에 왔다는 소립니다.》

《그게 네 생각이냐?》

《셋째형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항간에서도 모두 쉬쉬해요.》

《음...》

로인은 아들의 말에 회의감을 숨기지 않고 부정하듯 입을 비쭉했다.

《네 생각엔?...》

《저두 그렇게 믿어요.》

로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불쑥 물었다.

《그래서 너들두 덤비는거냐?》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우린 전민항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셋째형님도...》

《그만해라.》

《아버지도 나라의 해방을 바라시면서...》

여느 자식같으면 아버지가 그쯤 침을 놓으면 쑥 기여 들어가겠지만 집안의 막내이로 곱게 자라 고집이 어지간한 다섯째는 저 할말을 다한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밀어주셔야지요.》

로인은 쓴입을 다셨다.

《젊은 혈기엔 당장 일을 칠것처럼 생각하기가 십상이지.》

그것은 한생길에 얻은 로인의 교훈이기도 했다. 그도 젊은 한시절 룡혈포를 차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쇠신한 때가 있었다. 이 나라 독립운동사에 한페이지로 남은 평우골(봉오골)전투, 청산리(청산리)전투도 그가 전장을 누비던 시절에 맞본 패승의 절정이었다. 그때도 오래지 않아 일본놈들이 어찌어찌되리라는 소문이 내려가 돌쳐 심산유곡의 마감집 거적문까지 빠짐없이 들추고 들어갔다. 그럴상실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 나라 백성들의 간절한 념원이 과장을 더해 빚어낸 풍문으로서 현실착오에 지나지 않았다. 망국노의 한을 안고사는 이 나라 백성치고 나라의 해방을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누구들 다르랴만 로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응어리를 안고산다고 할수 있었다.

락훈로인은 망국년에 벌써 한 자식을 가진 아버지였다.

나라의 운명이자 곧 가정의 운명이었다. 망국과

더불어 깃든 락조의 그들은 락훈로인네 가정에도 어쩔수없이 비꼰다. 다행 기울어진 가세라 해도 대대로 물려오는 고려의술의 덕으로 살림은 그리 궁하지 않았다.

했어도 락훈은 칼도마에 오른 나라의 운명을 두고 팔짱을 끼고앉아 구경만 하고있을수 없었다. 맨발로 바위를 차야 발가락만 상하는게 리치라고 집안식구들이 결사코 막아나섰다. 파뿌리같은 채수염을 드리우고앉아 옷방에서 두문불출인 증조부가 그를 불러들여 무릎을 꿇겼다. 고개를 구겨박고 무릎이 저려나도록 엄한 훈계를 들었음에도 락훈은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는 안해의 어깨를 다정히 안아주고는 몰래 집을 나섰다.

도처에 의병이 끊던 세월이었다. 칼과 함께 염낭에 침통을 지르고 나선 락훈은 의병대오의 뒤를 끈질기게 물어다녔다. 때로는 칼을 휘두르며 전장에 뛰어들어 왜놈의 목을 베이기도 했고 부상자를 들쳐업고 위험천만한 탄우속을 헤치기도 하였다. 전과도 있었다. 하지만 몽대한 삿갓밑에서 남의 노예로 된 민족이 고작 가진것이 화승대이니 신식무장을 상대해 패배의 쓰라림을 더 크게 맛보아야 했다. 거기에서 명색이 군의다보니 부상병처리를 기본으로 한 락훈으로서는 남보다 비통한 순간을 더 많이 체험해야 했다.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그의 품에서 마지막숨을 거두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락훈은 한동안 기세를 올리던 의병이 쇠하여 모래불에 물젖듯 해버렸을 때에도 주저앉을수 없었다. 마음어진 안해가 만저우(만주)에까지 따라와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그만두는게 어떠냐 했지만 듣지 않고 또다시 독립군서열에 자기를 세웠다. 가다오다 잠깐씩 들려보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안아볼새도 없었다. 그렇게 애국에 끓는 젊은 시절을 미련없이 바친 수년세월이였으나 해방은 가까와울줄 모르고 잡을수 없는 신기루마냥 점점 멀어져가기만 했다.

그와 함께 락훈의 심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점점 암담해가는 시운은 그의 가슴속에 간신히 지탱해오던 모든것을 여지없이 짓이겨놓았다. 의기는 높아도 강약이 부동이라 약자의 몸부림 하나로서는 강자의 손에 든 부저가락 하나도 되찾을수 없다는것이 그가 찾은 결론이었다.

락훈은 자식들에게 자기의 전철을 밟게 할수 없었다. 아들 다섯이 이제는 커서 화술만 마시는 그에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위로해나섰다. 눈물겹게도 세살잡이막내가까지 나무총을 들고 마당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며 팡팡 총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자기의 무릎에서 숨겨간 그 많은 흥안의 청춘들의 숙절없는 인생을 자식들이 좇아가는것을 아버지가 살아서는 허용할수 없었다.

락훈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죽어서도 버틸수 없는게 고향이라 돌아오긴 했어도 왜놈이 주인노릇하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어 그예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에 집을 풀었다. 자기의 경력과 자식들의 성장을 두고 두루 타산한때문이기도 했다.

어쩌면 세상과 담을 쌓는 방법이 자신과 일가만 속박하는 가혹한 행위라고 식구들속에서까지 의견이 많았으나 이제껏 일가에 탈이 없었던 것은 굳이 이 유치한 방법의 덕이라고 로인은 생각하느터였다.

산마루를 타고 얼마쯤 내려오니 숲사이로 골짜기아래가 확 트이였다. 그들이 내리는 앞은 골짜기가 비좁아서 앞산이 맞붙어있었으나 좀 아래로 치우쳐서는 발방아의 가달처럼 산줄기가 갈라져나가 분지모양을 이루었다. 20리가량 긴 골바닥이 손을 댄것처럼 번듯해서 이곳 지명을 판장이라고 했는데 일본놈들은 여기를 경마장으로 리용했다.

지금도 경마장에서는 경마에 미친 왜놈들이 시오리구간에 온통 뽀얀 먼지구름을 일으키고있었다. 박차를 가해 미친듯이 내달는 모양이 당장 무슨 일을 칠것만 같다. 서로 앞서겠다고 악을 쓰며 왜말로 내지르는 야수의 울부짖음같은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였다.

로인은 온몸에 끼쳐오는 야릇한 긴장을 애써 누르며 무겁게 물었다.

《너희들 그 일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겠지?》

《모든것을 각오하고있습니다.》

《각오만으로 될것 같으면 좀 좋겠느냐?》

아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게 도리가 안되어선지 입을 다물었다.

로인이 발걸음을 떼며 또 물었다.

《그래 그 일에 형제들이 다 나섰느냐?》

《예, 아마 때가 되면 조선사람들모두가 일어날것입니다.》

《그렇다?!...》

로인은 눈을 편히 뜨고도 맹과니처럼 눈앞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있는 자신을 두고 재삼 랑패감을 느꼈다. 문득 생각되는바가 있어 물었다.

《올봄에 영림서놈들의 총을 앗아낸것두 너희들의 일이 아니냐?》

아들은 이윽도록 대답이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한 모양이였다. 로인이 또 한번 짚

러서야 그렇노라고 대답했다.

바라던 대답이 그게 아니었으나 어인 일인지 로인은 이제껏 마음속에 꼬물꼬물 꺼들던 불안과 걱정대신 야릇한 흥분이 차오름을 느꼈다.

지난봄에 영림서에서 화전을 돌아본다고 일행 여섯이 총까지 메고 판장동에 나타났다. 뒤송송한 세월이라 하는 일이 귀찮아진 놈들은 계획한 일을 나그네 말죽 먹이듯 해버리고는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강가에 나왔아 술추렴을 했다. 몇시간 퍼마시고 거나해진 놈들은 산천어잡이를 한다고 벗고나섰다.

그때 면에 장보러 갔던 셋째 규환이와 다섯째 은환이 그걸 띄어보았다. 고기를 잡는 정신에 놈들이 옷과 총을 벗어내친 자리에서 초간히 떨어졌을 때 셋째가 가만히 총 여섯자루를 모두 안아왔다. 어느 가위엔가 한놈이 세워둔 총이 없는것을 띄어보고 비명을 올렸다. 혼비백산한 놈들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망을 보던 다섯째가 급해났다. 어망결에 《유격대다.》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정신없이 달려오던 놈들이 놀라 돌파서 줄행랑을 놓았다. 웃지 않을수 없는 광경이였다. 그러고도 추궁이 두려워 놈들은 그림자도 보지 못한 유격대를 보았다고 과장된 보고를 했다.

그후 수군수군 돌아가는 소리가 짧은이 몇이서 그런 담이 큰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 짧은이들이 판장동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로인은 생각이 많아 셋째네 집에 이를 때까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까닭없이 지나온 과거가 되새겨졌다. 로인은 이제껏 자식들이 자기의 전철을 밟는다고 걱정해왔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망국년에는 수십명 대가정에서 유독 락훈이 혼자서 구국을 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오늘은 자식들모두가 그 길에 나선것이다. 대사변, 전민항쟁이라?!... 로인은 다섯째가 한 말을 의미심장하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것을 리해하기에는 로인이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았다.

어데선가 골개물소리가 들려왔다.

### 3

골바닥에 내려서니 길이 더 험했다. 한창 물이 올라 일새가 어지간해진 물벼들과 노박덩굴이 한데 엉키고 듚성듬성 보이는 소나무들에 머루와 다래덩굴이 감겨 아스라한 우듬지까지 뻗어올랐다. 거기에다 이 골에 특별히 많은 가래나무가 숲을 이루어 그밑에 들어서면 별이 들지 않아 어둑

시그레했다. 습기가 충분한 조건때문인지 그 밑에조차 갖가지 식물들이 허리를 치게 자랐는데 해묵은 마른 덩불과 햇풀이 뒤엉켜 발을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도무지 길이라 할수 없는데를 몇번 다녀본 다섯째가 덩불과 나무가지들을 밀어제끼며 로인에게 앞을 틈여주었다. 그렇게 개울을 건너서니 비교적 앞을 가릴만 한 오솔길이 나왔다. 오솔길의 옷쪽을 타고 산굽이를 안고다니 크지 않은 반토굴이 보였다.

그앞 개울에서 머느리가 한창 재물에 삶은 송기를 우려내고있었다.

《형수.》

일을 하는 정신에 시동생의 부름을 듣지 못한 녀인은 그냥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대신 가까이에서 놀던 손자, 손녀가 돌아보고 환성을 올렸다.

《할아버지!》

《삼촌!》

오누이는 엎어질듯 달려와 안기며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사람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애바른 마음이 연연히 마쳐왔다. 방하수풀에 함께 있을때도 몇세대 되지 않는 일가뿐이어서 적적했는데 여기서 홀로 살자니 고독하기가 더 이룰데 없을 것이었다.

락훈로인은 초봄에 셋째 규환이 무작정 가족을 들춰가지고 여기로 옮겨올 때 애당초 믿지 않았다. 셋째의 말이 돈을 벌어 잘살아본다는 것이었는데 터나 옮긴다고 사양을 하고 솥을 굽는 생활이 달라질수 없었기때문이었다.

머느리가 송기를 우리는 모양을 보니 생활이 피이기는커녕 더 궁해진 꼴이다. 그럴수밖에. 가뜰이나 밑급을 굶는 생활형편에 담보없이 터까지 옮겼으니 살아가기가 조련치 않을 것이었다.

물녘에서 일하던 머느리가 뒤늦게야 흠어져내린 머리칼을 비다듬어올리며 황황히 로인앞에 다가와 절을 했다. 물질을 하느라 견어올린 소매아래로 드러난 여원 팔이 눈에 마쳐 한 가정의 주부로 겪는 고생이 막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로인은 처자를 버리고 속절없이 나돌던 옛 세월의 자기 로친을 그대로 보는듯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남정이 제구실을 못하니 머느리가 고생이구먼...》

《무슨 말씀을... 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가 잘 돕지 못해서...》

겪는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찍여있는데도 제 남정 역성을 드는 머느리가 가룩했다.

로인은 옷자락에 매달려 떨어질줄 모르는 손자,

손녀들때문에 퍼그나 시간을 지체한 뒤에야 다섯째를 앞세우고 솥가마터로 향했다.

솥구이터는 아들이네가 생활하는 반토굴에서 옷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두개의 가마가 깊숙이 패운 산굽이의 양쪽으로 벌려있었는데 옷가마에서는 갓 불을 지핀 모양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흠을 덮은 아래가마에서는 스러져가는 마지막 연기가 끄물끄물 새어나오고있었다.

셋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여라문명되는 젊은 청년들이 옷등을 벗어내치고 산비탈에서 참나무를 끌어내리고있었다.

락훈로인은 개울가에 나앉은 부엌세간 하나 없는 솥막을 기웃거리려고 락싹했다. 그러니 이 장정들을 먹여살리는 일이 연약한 머느리의 어깨에 무겁게 얹혀있는 것이었다. 로인의 미간이 깊숙이 패웠다. 산을 넘어오기 전 자식들의 집을 돌아볼 때까지만 해도 가마터에서 돌아가는 젊은이들을 손이 바빠 채웠었다는 아들의 말을 그러마 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단순히 손을 덜자는 목적에서만인 아닌것 같았다. 애꿎은 다섯째에게 터놓을수 없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른 욕설을 겨우 참았다.

《네 형은 왜 보이지 않느냐?》

로인의 소리가 끊지 않았다. 후유—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이다. 이제 와선 먹이고 채우는 걱정은 두번째였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싸고돌다 무슨 화단이 생길지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무를 끌고내려오는 젊은이들과 수고한다고 모두거리로 인사를 하는 다섯째를 흘려보며 쓴입을 다셨다.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이 아비에게 일언반구가 없는 자식이였다.

은환은 젊은이들한테 갔다오더니 셋째형이 적정을 알아보러 아침일찍 경마장쪽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생각했던것보다 일이 더 크게 번져가고있다는 느낌이었다. 왜놈의 경마장이 코앞인데 하고 생각하니 속에서 마구 엉킨 불안과 걱정이 막걸리피듯 끓어 달아오른 속이 니얼니얼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눈에 뜨이기나 하면?...》

《그래서 저렇게 망을 세웠어요.》

아들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뒤산의 큼직한 돌들을 층층이 고여 쌓은듯 한 벼랑우에 한 젊은이가 앉아 벌쭉거리고있었다.

멀리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아슴프레 들려왔다. 골을 따라 오르는 기류가 수십리밖에서 날라온 소리였다. 그것도 바람새에 따라 요행 얻어듣는 덕이지 어느때는 해자리나 보고 가늠하기가 일쑤인 시간이다.



《아버지, 내려가시지요.》

아들을 앞세우고 내려오는 길에 나무함지를 이용 올라오는 머느리를 만났다. 일꾼들에게 식사를 가져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발이 없다더냐?》

속이 언짢아 애꿎은 머느리를 나무랐다. 옆에서 다섯째가 제격 《안전상 필요해서 그렇습니다.》했다. 그 말을 확증하듯 바위꼭대기에서 찌비찌비 찌찌 — 하는 새울음소리가 울렸다. 망을 보는 젊은이가 내는 소리가 하도 신통해 허를 찔렀다. 그러고보면 자기도 모르고 들어 그렇지 이 골에 들어 어설 때부터 저 망보는 젊은이의 시야에 들어 신호가 되었을것이였다. 로인은 입가에 빼주름히 웃음을 띄웠다. 음! 현 배잡뱅이들을 걸치고 나무를 끌면서도 군대처럼 짜였군!

반토굴에 내려오니 셋째 규환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은환이 마중을 가본다면서 나섰다.

락훈은 팔목에 매달리는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집 주변을 돌아보았다. 이깟로 귀를 엮어올리고 술가지로 지붕을 덮은 엉성한 반토굴일망정 깨끗하게 정리되어있었다. 락훈은 역시 셋째가 다르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집뒤의 샘터에 가니 그곳도 역시 알뜰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있었다. 그런데 샘물 한가운데 큼직한 나무함지에 뚜껑을 씌워놓은것이 눈에 띄었다. 무언가 해서 열어보던 락훈은 깜짝 놀랐다. 커다란 송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산물들이 차거운 샘물속에 담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손자, 손녀가 저저마다 재잘대었다.

《할아버지, 이젠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할거예요.》

《요전날 아버지가 먼데 가서 구해왔어요.》

《귀한 손님?!》

《예, 그러면서 우린 막 열어보지도 못하게 해요.》

락훈은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헛참, 정말 모를 일이다. 이 산골에서 보기 힘든 귀물인 송어까지 구해다 대접해야 할 귀한 손님이라면 대체 누굴까? 자기네는 송기를 우려먹는 처지에 말이다. 그것도 이 아비도 모르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짐작이 가지 않았다.

로인은 어둑시그레한 반토굴의 구름노전을 한 바닥에 올라앉았다. 새로 결은 구름노전이라 다스려지지 않아 어데라없이 손맛이 나뻤다. 그래도 손자, 손녀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려 허허 웃어보았다.

《할아버지 보구싶지 않더냐?》

6살난 손자가 해해 웃었다.

《아버지가 일본놈들을 쫓아내문 인차 할아버지랑 다 모여살수 있겠어요.》

《그래 일본놈을 쫓는다더냐?》

《아버지랑 저기 가마터의 삼촌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

8살난 손녀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세우고 동생을 흘렸다.

《아버지가 아무 말이나 막 하문 안된다고 했잖니?》

《체, 우리 할아버진데두. 그렇지요?》

그리고는 나불나불 아버지자랑을 계속했다.

《삼촌들이 아버지질 보구 대장이라 했어요, 산짐승 잡는 사냥군이 아니라 일본놈 잡는 사냥군이라면서.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 일본놈들이 요아래 경마장까지 왔다가두 달아난됐어요.》

《허허...》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반토굴의 열려진 문으로 다섯째 은환이 웬 사람을 업고 들어섰다. 그뒤로 두 젊은이가 셋째 규환을 업고 부축하며 들어왔다.

락훈은 어마지두 놀라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어찌된 일이냐?》

아래목에 눕힌 규환이 뭐라 입을 우물거리는데 얼굴근육이 얼어붙은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통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꼭 죽은 사람의 얼굴같았다. 그래도 눈만은 정기를 잃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입가에 애써 떠올린 미소가 옅게 비껴있었다.

몹시 놀란 로인은 후들후들 손을 떨며 통나무같이 곳곳한 아들의 몸을 어루쓸었다. 아들의 온몸이 흠뻑 젖어있었다. 규환의 옆에 누운 청년은 아예 의식이 없었다. 그 청년을 보던 락훈은 다시한번 놀랐다. 며칠전 약방문때문에 왔다가 경찰들한테 걸려들었던 바로 그 청년이 아닌가.

모두가 달라붙어 옷을 갈아입히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얼굴을 문다쳐주었다.

《적정을 알아본다더니?...》

규환은 오래도록 말을 못했다. 대신 옆의 청년들이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반나절을 꼬박 물속에 몸을 담그고있었노라고 알려주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적정을 통보해주던 선이 잘못되었다. 청진경찰서에서 우리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 탄로나 놈들에게 잡히면서 마지막으로 보내온 자료가 셋째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옛그제 렬차로 일본 룡군의 적지 않은 병력이 청진에 도착했다는 소

식이였다. 병력이 얼마며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급히 알아야 했다. 대사변이 박두한만큼 수시로 변하는 국내적정자료가 제때제때 강건너로 넘겨져야 했던것이다.

규환은 생각끝에 위험을 무릅쓰고 경마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청진지구에 오는 일본군지휘관놈들은 꼭 온천이 솟고 산수가 좋은 이곳에 몰려와 재미를 보곤 하였다. 전선으로 나가는 놈들인 경우 이곳 경마장에서 주접이 든 허파에 바람을 채우며 무훈으로 이어진 행운을 빌었고 전선에서 돌아오는 놈들은 패배의 수치로 대본영에 불리위가 받을 수모와 퇴역의 불명예를 예감하면서 울화가 치밀어 말의 배허벅을 차곤 하였다.

그 경마장끝에 작은 야외식당이 있었는데 경마를 끝낸 놈들이 거기서 간단한 주류를 마시며 한담을 하곤 하였다. 야외식당가까이에 골개수가 흘러드는 수렁이 있었다.

규환은 그 수렁에 미리 몸을 잠그고 목은 새초에 의지해 적정을 탐지해냈던것이다.

6월이라 해도 이곳 산골물은 몹시 차다. 그런 물속에 반나절을 꼼짝 않고 숨어있으려니 그 고통이 여간 아니었을것이다.

로인은 누워있는 자식을 보려니 불식간에 가슴이 북받쳐올랐다. 이제껏 나무람스럽기만 하던 마음이 홀연 뒤번져져 정이 뚝뚝 드는 소리를 했다.

《그렇게도 다른 방법이 없더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비통한 소리를 냈다.

《형우형님만 체포되지 않았어두...》

《형우라니?》

락훈로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청진경찰서의 형우형님 말입니다.》

《그런데 체포라는건?...》

로인은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형우라면 이미 오래전에 뇌리에서 지워버린 조카벌되는 사람이다. 고향산간에 돌아온 숙부를 뵈는다면 서 찾아온 그를 두고 온몸을 푸들푸들 떨며 일죽에 없는 역적이라고 고향을 친 락훈이다.

《경찰이라니?!... 이 더러운 놈! 집안이 돈을 모아 공부를 시켜놓으니 한다는것이... 천하에 수치도 모르는 짐승같은 놈! 할짓이 없어 굴이굴이 왜놈의 개노릇을 해. 이름이 아깝다, 똥. 가문에서는 그래두 참사람이 되라구 골라골라 <진> 자를 주었는데 어허- 족보에서 끊어버려두 시원치 않을 놈!》

진노한 로인의 얼굴에서 피줄이 튀어날듯 부풀어오르고 불편이 경련을 일으켜 마구 떨었다.

그래도 하는 대답이 비위가 넘죽했다.

《제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형우라구.》

그의 원래이름이 진환이었다.

로인은 기가 막혀 입을 항 벌린채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저렇게 벗고나서는 놈한테 무슨 말을 더 할소나.

《씩 사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최형우가 비실비실 문밖으로 나서며 한수 더 뺐다.

《숙부님, 후날 일이 여의치 않으면 제 이름을 대십시오. 아마 덕을 볼수 있을겁니다.》

《얼빠진 수작을 계속할테냐?》

차오르는 분기를 더는 참을수 없어 대통이고 뒤통고 손에 잡히는대로 쥐어던졌다...

몇년전 그가 고등계형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 다시는 내앞에서 그 이름을 외우지 말라고 화를 낸 로인이었다.

《아버님! 형우형님은 일찍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해왔습니다.》

《뭐라구?!》

로인의 가슴이 쿵 울리었다. 뒤이어 후회가 밀듯이 차올랐다. 사람의 진속을 모르고 함부로 모욕한 때늦은 자책이었다. 로인은 아파나는 가슴을 저도 모르게 짝 불안았다.

《그래 진환이 그 사람은 어찌 됐냐?》

셋째 규환이 한참을 잠자코 있다가 감겨드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잘못될겁니다, 아마...》

아버님, 사실 약방문때문에 왔던 이 청년이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야기방향에 락훈로인은 거북한 마음에 흠- 하고 헛기침을 곁으며 영치를 궁싹거렸다.

《고맙긴 원, 애비에게 한다는 말이 교작 그게냐?》

셋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형우형님은 체포되면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진환이라고 불러달라 했습니다.》

아들이 터져오르는 오열을 참느라 꺾꺾거렸다.

《그 말을 왜 인제야 하느냐?》

로인도 북받치는 회한을 누를길 없어 눈굽을 짚었다.

그때 숯구이터일꾼들에게 식사를 가지고갔던 며느리가 돌아왔다. 녀인도 아래목에 누운 남편을 보고 몹시 놀랐으나 시아버지앞에서 용케 자기를 다잡았다. 남편의 물음에 식사를 끝낸 청년들이 훈련을 한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옆에서 아들,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로인은 까닭모를 외로움을 느꼈다. 이제와서 말이 한 가정의 가장이랄뿐 젖혀진 떡잎처럼 되고만 자기 존재를 피로운대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젊은 한때 버리어든 뜻을 꺾고앉아 꺼지는 한숨속에 고작 해온것이 녀두리우국이였다. 나라를 위해 한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서려는 자식들을 무작정 얹어매려 했으니 자식들조차 자기를 속이고 따돌린것이다. 락훈이 예이제없이 머리를 젓는것은 오늘날 나라를 찾는 위업에 뛰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찬양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와 뜻을 같이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년에 다 해본 일로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본때문이었다.

다섯째 은환이 셋째형님은 이곳 판장인민무장대 대장이며 자기들은 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숯구이터들에 분산되여 대사변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일러주었다.

충격적인 소리임에도 로인의 얼굴은 변화가 없었다. 그 덩덤한 표정이 뜻하는바를 모르지 않는 셋째가 말을 받았다.

《아버지, 우린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습니다.》

그때에야 자식들을 외면하고 고집스레 열려진 문쪽에 시선을 박고있던 로인은 머리를 돌렸다. 자기 귀를 의심한 로인의 눈길이 성급히 셋째의 얼굴을 더듬었다. ... 어찌 그렇지 않으랴. 심심오지에 묻혀사는 로인의 귀에까지 전해져온 전설같은 백두산 김대장 이야기를 들으며 거의나 포기해버린 구국의 숙원을 다시금 그분께 의탁해보던 로인이었으니 말이다. 자식들이 다름아닌 그분의 령도를 받는다고 했으니 그의 놀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몰아내는 싸움에 2천만동포가 모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며 전민항쟁을 호소하시였습니다. 그 최후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습시다.》

들으니 새라새로운 소리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을 구상하시기 위해 지난해 여름에 벌써 이곳 판장지구를 다녀가셨다고 말하며 셋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벌써 여러해전에 북부지구의 애국적인 력량을 반일성전에 꺾기시키기 위해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해주시였는데 판장인민무장대도 그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조직되여 활동한다고 했다.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였다.

민족의 령수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성전을 진두지휘하신다!

자식들의 뜻이 그 아무리 장하다 한들 해방이라는 거창한 위업이 옳바른 령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로인이였다. 그래서 자식들의 행동을 긍정하면서도 못미더워 승산없는 일이라 앞을 막았다. 한생의 교훈이 로인의 고집에 부채질을 했다.

《아버지, 우리뿐이 아닙니다. 지금 온 민족이 **김일성**장군님의 전민항쟁호소를 받들고 일어나고있습니다.》

로인은 감동하여 줄곧 머리를 끄덕였다. 음! 옛글에도 칼 잘 쓰는 장수보다 군사를 잘 쓰는 장수를 으뜸으로 일렀으니! 수하군사를 이끌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2천만백성모두를 독립성전에 불려일으키시는 수완을 지니신 **김일성**장군님은 파시 장군중의 장군, 위인중의 위인이 아니신가!

로인은 부지중 쇠잔한 몸에 무한한 힘이 뻗쳐오름을 느꼈다. 자기도 때늦게나마 그 전민항쟁의 격류속에 뛰어들고싶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락훈로인은 수십년세월 깊숙이 묻어두었던 두자루의 총을 파내여 판장인민무장대 대장인 셋째아들에게 넘겨주었다.

《대사변의 날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싸우려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박두해오고있습니다.》

×

그때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작전도우에 마지막 붉은 화살표를 그으시기 위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소부대성원들과 함께 이곳 판장림시비밀근거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소부대, 정치공작소조 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그에 따르는 부대, 소부대, 소조들의 전투임무와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또한 대중을 전민항쟁에 조직동원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바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두달 앞둔 1945년 6월 중순이였다.

오늘 이곳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르신였던 어석산을 《승리산》이라고 부르고있다.

# 청 춘 과 화 불

박 세 일

청춘과 화불  
화불과 청춘

대오와 기수라는 말처럼  
병사와 총대라는 말처럼  
투쟁과 승리라는 말처럼  
청춘과 화불은 하나의 모습  
화불과 청춘은 하나의 의미

청춘들이 있는 곳엔  
타올라야 할 화불  
화불이 타오르는 곳엔  
빛내야 할 청춘이 있어  
청춘과 화불은 영원한 길동무

청춘들의 의지는 화불  
무엇이 두려우랴  
그 화불 추켜들고 나가면  
천리도 지척인듯 앞길은 밝고  
총알처럼 곧바로 달려간 그 길에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청춘들의 노래는 화불의 노래  
그 화불의 노래 바다기슭에 울리면  
날바다우에도 갑문은 우뚝 솟고  
천년 잠자던 간석지  
만년옥답으로 펼쳐져

오곡백과 설레며 청춘들을 노래한다

청춘들의 지혜는 화불  
그 화불 창공에 추켜들면  
주체의 궤도따라  
인공지구위성은 하늘을 날고  
원수들은 전물과 공포에 떨고  
조선의 국력은 백배해진다

청춘들의 심장은 타오르는 화불  
그 화불 누리를 밝히며  
**김일성**광장에 노도처가는  
일심단결의 불의 흐름 정의의 파도는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할  
결사옹위의 불변의 모습

그 청춘 그 화불은  
우리 수령님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의 나날에  
청춘들의 심장에 지퍼주신 투쟁의 불

오, 청춘과 화불 화불과 청춘은  
수령님과 장군님 안겨주신 조선의 힘과 기상이거니  
그 화불 높이 들고 우리는 영원히 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 청 춘 의 언 제

주 경

흰구름 발밑을 스칠듯 흐르는  
산악같은 언제우에서  
나는 터치고싶구나  
또 하나의 발전소를 일떠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의 이 긍지를

범둥이라 깊디깊은 산중에  
착공의 첫 발파소리 울리며  
수수천년 덧없이 흐르던 강을

우리는 전기강으로 만들었지

고요히 속삭이며 출렁이는  
저 푸른 물엔 어려오누나  
돌격대의 첫날 가설천막을 치고  
칼도마소리 장단맞춰 울리던  
우리 생활의 무대처럼 정든  
잊지 못할 너럭바위도

물속의 자갈 하나 모래 한줌도  
언제건설자 우리에게  
보물처럼 귀했고  
심산속의 곰취며 두릅 참나물들  
얼마나 돌격대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던가

틀어진 함마를 놓을수 없어  
돌격대원처녀가 떠넣어주는 밥을 씹어넘기며  
불꽃튀던 그 청바위는 어디  
장마비에 언제를 지켜  
사나운 물속에 뛰어들던 그곳은 어디...

언제여 너에겐 다 있었다  
꿈도 소원도 높아가는 네우에 없으며  
아직은 내 주입공처녀에게 터치지 못한  
사랑의 고백까지도

오, 삼복철 무더위를 헤치며  
언제건설장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한해사이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실 때  
우리 그날에 흘린 고마움의 눈물이  
그 어느 장석에 젖어들어  
진주보석마냥 추억을 빛내주는것이냐

언제여 너는 이제 터치리라  
물새들 깃을 치던 이 기슭에  
대인공호수가 펼쳐지는 날  
완공의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이며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불빛으로 아롱질 때

오, 조국땅우에 또 하나의 재부를 남긴  
우리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불의 성새 행복의 성새만 아닌  
**김정은**장군 결사옹위성새를 높이 쌓은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빛과 열로 너는 온 세상에 노래하리라

## 비래봉으로 가는 길

김 명 철

창문을 열어젖히니  
벌써 우리 옥포리 큰길이 미어질듯  
비래봉으로 사람들이 가는구려  
—여보 마누라 차비를 서두르오  
우리도 어서 저 길에 나서야지

오늘은 온 군이 산열매 따는 날  
좋은 계절 바람도 선들  
도토리 머루 다래 한창이겠으니  
저 읍거리에 번듯한 식료가공공장  
그 창고 채우기는 불려놓은 통장훈이요

마누라는 알고있소  
산열매가공품이 몇가지나 되는지  
내 얼마전에 저 식료공장  
장군님을 모셨던 견본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소

아니 글썄 내 지금껏 다는 모르고 살아온  
술이며 과일단졸임 단묵이며 사랑과자...  
백가지도 넘는 식료품들이  
다름아닌 우리네 창성

바로 저 산들이 준 보물이라지 않소

그래서 공장에 오신 **김정일**장군님  
더없이 기뻐하시며  
이처럼 훌륭한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  
창성사람들이 더 잘살게 하자고  
은정깊은 말씀을 해주시었나니

아, 산이 많아 못살던 벽촌에  
산이 많아 잘사는 세월을 불러오신  
수령님과 장군님 하늘같은 그 은덕에  
우리야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마음이나마 보태야 할게 아니요

우리들도 이렇게  
산열매 따는 길에 나선것을 아시면  
여기 창성사람들 위해  
생전에 그토록 마음을 써오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아무렴 비래봉으로 가는 길은  
창성이 더 잘사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지

## 창성의 푸른 숲을 보며

박 경 철

창성군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가며 시원한 바람도 맞고 언뜻언뜻 지나가는 푸른 숲을 보느라니 물렸던 피곤이 다 사라지는듯 했다. 이때 옆에 앉아 가던 80고개를 가까이 한듯 한 로인이 나를 톡 치며 묻는 것이었다.

《임잔 우리 고장 사람같진 않은데 어딜 왔나?》

《예, 여기 창성읍에 들러 취재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취재라는 말에 로인은 몸을 돌려앉더니 《그럼 기잔가?》하고 다시 물었다.

내가 작가라고 자기 소개를 하자 로인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자기 고장에 대한 좋은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다시금 느끼게 된것은 그 어느 고장이나 그러하지만 특히 여기 창성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사는 긍지와 행복감이 남달리 높다는 것이다.

《작가선생, 저길 좀 보시우... 저게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일이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나무모를 보내주시고 친히 재배방법까지 가르쳐주시여 우리가 조성한 수신평지의 과수원이라우. 세월도 빠르지, 벌써 50년이 넘었군.》 하더니 추억에 잠겨 과수원을 보는 것이었다.

버림받던 두메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주고 창성땅의 산과 들마다 억년채부가 뿌리내리도록 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생각하니 《황금산》이라고 쓴 탑이 있던 푸른 숲속에 다시 서 있는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얼마나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가.

...때는 여름이라 한껏 푸른 잣나무, 참나무 등 아름드리나무들이 머루, 다래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산과일나무들과 어울려 하늘이 안 보이게 우거져 들어오는 바람에 췌- 췌 설레이고있다.

어찌나 나무들이 울창한지 마치 천연원시림속에 들어선 기분이다.

볼수록 탐스런 나무들을 바라보느라니 50년 전 8월 아버지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역사적인 지방 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가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무성하게 자라난 이 숲속에는 창성련석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그때 심은 나무들도 많을것

이다.

그러니 이 푸른 숲은 그대로 창성군이 걸어온 수십년의 자랑스런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옛날 화전민들이 모지랑호미로 돌밭을 뛰지며 도토리죽에 눈물을 뿌리던 땅.

해방전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몇채밖에 없던 읍지구만이 아닌 온 창성땅이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을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와 병원, 탁아소와 유치원, 문화회관, 상점, 식당, 은덕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져 읍거리의 모습을 자랑하고 새로 일떠선 국수집과 학생소년회관, 살림집들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

또한 생산정상화의 동음 세차게 울려퍼지는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현대화되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고있다.

어디 이뿐이라.

논에는 벼들이 왕성하게 어우러졌고 산기슭 밭들과 언덕의 밭들엔 팔뚝같은 강냉이들이 달렸다. 산은 산마다 산열매따는 사람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물소리 유정하고 새소리 청아한 푸른 산줄기에 울려퍼지고 산촌의 정서를 질게 해주며 염소떼, 양떼들이 흐르는 속에 계단식으로 일떠선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며 전기가 짹짹 생산되고있다.

정녕 보면 볼수록 오랜 세월 남아있던 락후와 빈궁을 흔적도 없이 털어버리고 창성땅전체가 행복의 메부리, 보화의 메부리로 높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전변을 어찌 자연이 준것이라고 하랴. 나라없던 그 세월 창성사람들은 자연의 노예로 되어 온갖 채부를 깔고있으면서도 그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지지리 못살고 무권리한 인간들로 살아왔다.

그 노예의 궤줄을 끊어버리고 오늘은 창성사람들이 자연의 힘있는 정복자들로 자라나 황금산, 보물산의 주인으로 되어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려놓았다.

결국 창성이 걸어온 50년의 역사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온 자주적 인간들의 자력갱생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저 태양을 떠나 이 무성한 숲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태양의 따사론 빛발을 떠나 창성땅에 이룩된 이 모든 전변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맑고 푸른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 간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저 높고 험한 령을 넘어 창성땅을 찾고 또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자체의 원료원천에 기초한 튼튼한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가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시려 친히 가시덤불을 헤치시고 산에도 오르고 찬이슬 내린 발머리도 거니시며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그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해전 창성땅을 찾으시고 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새겨진 수많은 불멸의 자욱이 있어 오늘 창성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발을 붙이고 제힘으로 만복을 창조하며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주적인간의 전형들로 자라났다.

바로 이런 자력갱생의 창조자들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셨다.

하기에 창성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고장을 위해 크나큰 사랑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목메여부르며 끝없는 그리움속에

온 나라의 앞장에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그러나 어찌 창성사람들뿐이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기 행복의 창조자들로 자라나 자기 고장, 자기 일터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있다.

그렇다.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따라배워 자기 조국을 위해 한몸 다 바칠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으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려 애국헌신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고있다.

그이의 발걸음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예로운 인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창성의 푸른 숲속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가. 생각에서 깨어나 차창밖을 내다보니 푸른 숲은 그대로 나의 눈앞을 스쳐지나고있다. 생각도 깊게 해주는 숲을 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창성의 푸른 숲이여, 너 50년이 아닌 500년, 5 000년 세월의 끝까지 이 땅에 새겨진 전변의 위대한 력사를 길이 전하며 더욱 푸르러 설레이라.)

## 상 식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스럽고 정겨운것, 고결한것을 꽃에 비친다.

일찍부터 찬란

한 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좋은 꽃들이 많았으며 우리 인민은 꽃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여왔다.

《꽃》은 고유한 우리 말이다.

《꽃》을 오랜 옛날에는 《고시》라고 하였다.

《고시》란 말은 《녀자, 처녀》를 가리키는 《가시/고시》란 말과 통한다. 녀자, 처녀를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에서 꽃과 같은 말로 《가시/고시》라고 한것으로 보인다.

《꽃》과 《녀자, 처녀》를 다같이 《고시》

혹은 《가시》라고 하다가 《고시》는 꽃을, 《가시》는 녀자, 처녀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한단어가 두갈래로 갈라진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말

소리 《ㅅ》이

《ㅈ》으로 변하

는 현상에 의하여 《고지》로 되었고 받침이 생기게 되면서 《꽃》으로 변하였다.

《꽃》은 《ㄱ→ㄱ》로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현상에 의하여 《꽃》으로 되었고 《ㅈ→ㅈ》로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되는 현상에 의하여 《꽃》이 《꽃》으로 되었다.

이렇듯 《꽃》이란 말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문화생활의 력사, 유구한 우리 말의 력사와 더불어 고유한 우리 말로 씌여왔고 다양한 말소리의 변화과정을 거쳐 《꽃》으로 쓰이게 되었다.

## 고유한 우리 말 《꽃》의 유래

# 포 전 의 우 등 불 야 회 외 1 편

## 리 영 일

고향벌의 달래등판에서  
즐거운 이밤 우등불을 활활 지켰다  
청년분조동무들이 떠들썩 춤노래 펼치자  
오늘은 청년절 우리들의 날이 아니냐

오늘은 얼마나 뜻깊은 날이나  
영웅관리위원장아바이도 모셔왔다  
너울너울 날리는 불길앞에서 아이들은 뛰놀고  
끝끝한 청년들이 모두 모였다고  
온 마을이 흥성이며 우등불야회에 나왔다

우리 분조 모범선동원 은별아  
어서 새로 나온 군중무용 첫발을 떼여라  
들바람에 타고 대지가 다스려준  
네 얼굴 얼마나 곱니  
농장벌을 가꿔가는 선군의 새 세대  
어엿한 우리 모습 자랑스레 보여드리자

세차게 타오르는 저 우등불은  
장군님 안겨주신 화불로 지핀 불  
피눈물의 바다에서 결연히 일떠설 때  
가슴속에 맹세로 치솟아오른 불  
이 불을 안고 우리는 늘 포전에서 살아왔지

한생을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온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의 넋이 스민 고향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들이다  
쌀로써 당을 굳건히 받아들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충직한 전우들이다

훌륭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 누리게 하겠다 하신  
그이의 뜻을 우리 남먼저 꽃피우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무슨 청년분조원들이냐

청년분조작황이 으뜸이라고  
로인들과 어머니들 이구동성 말을 해도  
아직은 칭찬을 마시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 향해 달리며  
해마다 땅이 꺼지도록 더 많이 떠올리려니

축포인양 불꽃을 날려가는 우등불아  
경애하는 그이의 친필을 우리 다시금 새겨보며  
수도 평양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도  
이 시각 농장벌의 전투적인사를 보내자

선들바람 스쳐가는 창공에 별이 곱고  
믿음과 기대로 흐뭇한 고향의 눈길들앞에서  
이 땅을 떠메고갈 청춘을 마음껏 뽐내며  
우등불은 활활 춤판은 빙글빙글  
아, 청년절 이밤은 얼마나 좋으나

## 이런 날 이런 때에는

달래등 수확고판정을 보고온 리당비서  
오사리 벗긴 이삭을 꺼내놓으며  
우리들을 버쩍 취울린다네  
강녕이농사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했다고  
청년분조가 소리치며 통장훈 불렀다고

이런 때엔 너무 기뻐 춤이라도 덩실 추련만  
어인 일이나  
제대군인분조장도 처녀들도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이는것은

우리 장군님 그리도 자주 넘으시던 달래등  
날마다 오르내린 포전길에  
정히 세운 현지도표식비 바라보는 마음

누군들 모른다더냐

알알이 잘 자래운 강녕이영양단지모  
제일먼저 등판에 박아넣고도 그랬다만  
네벌김 호미날을 번쩍이며  
마지막이랑을 타고았을 때도 그랬다만

건듯 하늘이 높이 들리우고  
잘 익은 강녕이바다가 설레이는 이런 날엔  
아버지장군님 생각이 더 난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 간절하다

정말이지 올해엔  
포기포기 곡식을 매가꾸며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렸다 해도  
방울방울 그 땀방울이 아닌  
장군님 그리는 마음이 이 풍작을 안아왔거늘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믿고 따르며  
청년분조가 12월의 맹세를 지키었다고  
리당비서도 너무 기뻐  
올해농사 마무리한 다음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가 인사드리잔다

총알같이 여문 이삭을 들고  
너나없이 불타는 그리움으로 가슴들먹이는  
아, 이런 날 이런 때에는  
진정 금시라도 이 발머리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오실듯 오실듯...

## 청춘시절 추억

### 리 계 주

어릴 때에는  
서둘러 맞고싶은 시절  
나이들면  
그리워 못 잊는 시절  
누구나 맞고보내는 한시절  
청춘시절

인생의 한시절 청춘시절을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그런 삶으로 빛내인 청춘  
이 땅에 얼마나 많던가

내 때로는 렬차를 타고  
먼길을 달릴 때면 떠오르는 생각  
나의 청춘시절은 가지 않았다는 금지  
청년의 이름으로 맞아주는 역이름들과  
청년의 이름으로 바래워주는 역이름들  
나의 한생 청춘과 청춘으로 이어진 삶같아

청춘시절이  
언제 찾아오고 언제 흘러갔는지 알수 없어도  
보람찬 청춘시절을  
어제런듯 보고있다  
이 땅 그 어디나 일떠선 창조물들에 새겨진  
청춘시절의 땀젖은 자욱자욱들에서

들에 가면 청년포전이 반기고  
산에 가면 푸른 숲이 설레고  
땅속보화가 흘러나오는 탄광과 광산  
청년의 이름으로 높이 솟은 언제와 간석지별  
들은  
세월이 흘러도 산천이 변해도

조국이 지켜주고 빛내주는 우리의 청춘시절

열여덟 꽃나이 리수복영웅  
적의 화점 가슴으로 막은 그 언덕에  
나무는 자라 반세기 넘는 년륜을 새겼어도  
수령님 위해 삶을 바친 영웅의 나이에  
무정한 세월조차 나이를 더 새기기를 삼가한  
그는 열여덟 영원한 청춘

생활은 간고했어도  
창조를 위한 삶은 아름다운 법  
우리의 추억은 오늘을 위한 삶이 아닌  
래일을 위한 오늘의 삶과 투쟁속에 있어  
백발을 얻은 나이에  
고난을 띠고 여기는 삶을  
조국은 영원한 청춘대오에 세워주누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청춘시절의 삶을  
어찌 그 시절을 값있게 보냈다고 하랴  
청춘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인생은  
영원한 청춘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어도  
청춘시절의 추억은 백발을 모르나니

정녕 추억은  
꾸며낼수도 없는 량심의 자욱이거니  
시련을 이겨낸 꽃이 아름답고 오래 피듯  
우리의 추억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대앞에 내세워 빛내주시는  
고결한 삶이 남긴 청춘의 자욱이여라



## 전 충 일

### 1

부대정치부에서 조직한 군인가족회의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가슴은 명절을 맞는 어린애마냥 설레이기 시작했다.

이틀후에 희천으로 가잔다. 남편들이 일하고 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가잔다! 두세마디 안팎에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잘하는 희천바람에 살갓이 다 거칠해진 부대정치위원은 회의마감에 이렇게 말하였다.

《후방물자는 부대에서 듬뿍 싣고가니 아주머니들은 그저 빈몸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되... 남편들이 눈이 까매 기다리고있다는걸 잊지 말고 반드시 머리단장을 잘하고 가야겠습니까. 목욕도 깨끗이 하고!...》

와!— 웃음판이 터졌다. 아직 처녀리가 다분한 젊은 녀인들은 도마도알처럼 빨개지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우며 앞사람들의 잔등에 숨어버린다....

밤낮없이 수고하는 남편들앞에, 군인들앞에 어찌 빈손으로 나선단 말인가. 부대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의 군인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가족들의 수고를 헤아려 빈손으로 가라지만 안될 말이다.

래일 당장 교외의 언니네 집에 가서 염소라도 한마리 끌어와야겠다. 내 손으로 송편, 만두도 빚고... 고추장, 장갑도 마련하고... 두루두루 속구구를 하며 걸음을 내짚던 나는 등뒤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텔레비존을 봤어요?》

《텔레비존?...》

《아이참! 희천발전소건설장 방송야회!》

《오— 봤어. 정말 굉장하더구만! 야, 기초파기를 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언제가 절반나마 올라갔더구만. 확실히 군덴 군대야!》

《그렇게 감탄만 하지 말고 건설장에 지원사업 이랑 좀 팡팡 하라요.》

《이 동무 날 어떻게 보구 그래?!》

자지러진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는 인차 나를 지나치며 빠르게 앞서갔다.

아, 희천! 요즈음은 어쩔 가나 희천소리뿐이다.

《우리 남편이 바로 거기에 나가있어요!》 하고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누르며 나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서있느라니 3년전의 일이 불쑥 떠오르면서 귀뿌리가 화끈 달아오른다.

...

《퇴원할 때 산원승용차를 리용할 산모들이 있으면 접수하세요.》

담당의사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었으나 그에 반응하는 사람은 호실에서 유독 나 한사람뿐이었다.

《저, 제가...》

《동무가요?... 애아버지가 운전사라더니...》

그 순간 나를 쳐다보는 산모들의 눈길에 마치 온몸을 향해 날아드는 바늘처럼 여겨졌다.

산원에서 산모들에게 봉사해주는 승용차는 몇쟁이 차였다. 하건만 어째서인지 왈각 설음이 북받쳐 고개를 숙였다. 입만 열면 당장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았다.

그래도 대답은 해야 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

도 들릴상싶은 정적속에서 의문이 실린 눈길들이 나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애아버진… 출장…》

나는 포단에 쓴 애기를 안은채 호실에서 나와버렸다. 품에 안긴 애기는 어머니의 설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듯 썩근썩근 자고있었다.

난생처음 거짓말을 하였다. 애아버지는, 나의 남편은 굴착기운전수였던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걸은것이 어느덧 집앞이다.

서둘러 방안에 들어서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아연해졌다.

인형이며 학습장이며 의자, 지어는 경대의 화장품들마저 방안가득 널려져있다. 아이를 봐달라고 인민반장에게 부탁했었는데... 아마 급한 일이 제기되어 나간 모양이다.

회의가 늦어지면 먼저 먹으라고 차려놓고간 밥상을 방 한복판으로 끌어낸 나의 딸 진미가 《우-웅!... 우웅!》 하고 알지 못할 소래기를 질러대며 장난질을 하고있었다. 놀음에 어찌나 정신이 팔렸던지 내가 들어선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유, 무슨 놈의 계집애가 이 모양이람... 한바탕 닭아세우려던 나는 딸애의 유별난 장난질에 그만 무춤 굳어졌다.

밥사발에 박아놓은 저가락을 한손에 하나씩 잡아쥐고는 앞뒤로 제꼈다 밀었다 하면서 《윙-윙》, 《우-웅, 우-웅.》 하고 고아댄다.

《여 운전사, 적재함을 좀 바투 대라!》 하고 제법 짜증을 내더니 국사발을 밥사발앞으로 몰아온다. 그리고는 《윙!》 하고 소리치며 또다시 저가락을 앞뒤로 움직이더니 숟가락으로 접시들의 반찬들을 퍼담아 국사발에 듬뿍듬뿍 실어준다.

딸애는 굴착기운전을 하고있었다.

이제 겨우 세살잡이의 장난질치고는 너무도 실통하여 저도 모르게 호호 웃고말았다.

그제서야 나를 알아본 딸애가 벌떡 일어섰다. 움켜쥐고있던 저가락을 밥상우에 내동댕이치더니 밥알이 잔뜩 개발린 손으로 나에게 안겨든다.

《엄마, 왜 이제야 오나?》

뻘히 올라다보는 머루알같이 까만 두눈!... 실통히도 남편의 눈이다.

《밥은 먹지 않고 이게 뭐니?》

담썩 안아올려 보동보동한 불에 쪽! 입을 맞추었다.

(진미야, 너도 아빠가 보고싶니? 엄만 이제 아빠한테 간-다!)

지금껏 다른 대상공사를 맡아할 때에는 종종 휴식이 있어 남편들이 집으로 오곤 하였는데 이번 회천에서만은 사정이 달랐다.

회천발전소건설초기에 부대에는 중량화물자동차며 유압식굴착기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다나니 운전사력량이 어방없이 딸려 지금 회천에서는 운전사들이 교대라는 말조차 모르고 밤낮으로 일하고있었던것이다.

아니, 운전사력량이 딸려서만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회천발전소의 완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사는 그들이니 설사 교대운전사가 있다 해도 건설장을 떠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이다.

우리 군인가족들을 태운 빠스가 부대현장지휘부 앞마당에 도착한것은 한낮무렵이었다.

명색이 가족지원대이니만치 떠들썩한 환영은 아니라도 소박한 영접이라도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얼굴색이 거무칙칙한 낮이 선 참모 한사람뿐이었다.

《보다싶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남편들 아니, 여기 공사장의 전체 군인들이 저 언제우에서 살고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먹는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참모는 남편들을 척 내세워주지 못하는것이 마치 제 잘못이기라도 한듯 몹시도 미안해하였다.

우리들중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평양에서 빠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실새없이 입방아를 찧던 가족들이 이 순간엔 모두 병어리가 된듯싶었다. 식사하러조차 내려오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만나랴 하는 걱정들이 얼굴마다에 그대로 내비치고있었다.

바로 이때 가족들을 인솔해가지고 나온 정치위원동지가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듯 빙그레 웃었다.

《너무 걱정들 마십시오. 남편들의 자동차운전칸에서 면회를 하면 됩니다. 차를 타고다니면서 회포도 나누고 또 건설장구경도 하고... 어떻습니까? 내 생각엔 아주 리상적인 면회장소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소? 참모동무.》

《거 정말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지원물자들을 지휘부마당에 부리워놓은 다음 남편들을 찾아 참모의 뒤를 따라나섰다.

도중에 우리는 두패로 갈라졌다. 화물자동차 운전사안해들이 한패, 굴착기운전수안해들이 또

한때...

나는 굴착기운전수가족들과 함께 언제건설장으로 떠났다.

핑장하다든가 거창하다는 말로는 감히 비유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건설장정경에 나는 발이 어디에 닿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돌부리에 자주 발이 걸쳐 몇번이나 넘어질번 하였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중턱을 깎아세운 대형구호들이며 강 한복판을 가로질러 언제우에까지 이어진 벨트콘베아며 혼합장들, 용도별로 산같이 쌓아놓은 골재무지들... 우불구불 산굽이를 따라 뻗어간 작업도로를 따라 꼬리를 문 대형화물자동차행렬들과 진동다짐기를 메고 달려가는 나어린 병사까지도 나의 눈에는 신비의 세계였다.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눈에 익혀온 모습들이었지만 마치도 딴 세상에 온듯 한 느낌이 들었다.

비록 적위대복장이기는 하였으나 새하얀 목달개며 날이 선 주름발때문인지 아니면 해말쭉한 내 살결때문인지 마음은 거북스러워졌다. 진동다짐기를 메고 우리와 어기는 저 병사(그는 우리를 자세히 뜯어보면서 지나갔다.)마저 우리를 한가한 구경군으로 생각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졸아들었다.

마침내 언제우에 올라섰다.

나와 동갑인 봉실이가 어딘가를 손가락질하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저게 누구네 굴착길가?》

멀지 않은 곳에 한창 작업중인 굴착기가 있었다.

《글쎄...》

《우리 내기를 걸자요.》

《원, 애들처럼...》

우리는 달려갔다. 문득 봉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마!》

가까이 가보니 정말 운전칸에는 봉실의 남편이 앉아있었다. 혹시나 했던 아쉬운 감정을 누르며 나는, 우리모두는 제 일처럼 기뻐하면서 봉실의 등을 떠밀었다.

나는 조금해진 마음으로 다른 굴착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철판로부근에서 다짐작업을 하고있는 굴착기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번 역시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

남편을 찾는 행렬이 하나, 둘 줄어들었다. 언제우의 마지막굴착기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나와 주성이 엄마 둘만이 남았다.

굴착기는 지금 술한 군인들이 지켜보는 속에 높이가 서너메터가량 돼보이는 가파로운 경사지를 내려서고있었다. 경사지를 내려서느라 굴착기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리데관밑의 흙이 밀려내려 당장 뒤집혀질것만 같았다. 물켜선 군인들의 틈바구니로 그 광경을 지켜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꼭 천나의 주먹은 어느새 땀으로 질벅해졌다.

마침내 굴착기가 무사히 내려섰다.

굴착기가 우리를 등지고있어 운전칸은 보이지 않았으나 왜서인지 저 굴착기의 주인공이 다른아닌 우리 진미 아버지일것만 같은 예감에 벌써부터 가슴이 콩당거렸다.

나는 굴착기가 돌아서기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에돌아 앞쪽으로 달려갔다. 달려가면서도 운전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나는 그만에야 커다란 돌무지에 발이 걸쳐어 어푸러질번 했다.

주성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몸을 가누고보니 어느새 굴착기는 이쪽으로 돌아서있었다. 굴착기의 운전수는 벌써 땅에 내려선채 나를 향해 병글서 웃고있었다.

《진미 아버지!》 하고 소리쳐부르려던 나는 그만 혀를 깨물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는것이 아니라 내 등뒤에서 나를 부축하고 서있는 주성이 엄마를 보고 웃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언제우에는 내 남편이 없다.

나는 고개를 비틀었다. 알지 못할 서러움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주성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야 나는 남편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찾아갈수 있었다. 그곳은 우줄 우줄 키돋음을 하는 발전소언제와는 멀리 떨어진 강기슭의 골재장이었다.

군인건설자들과 중기계들로 벅적 들끓는 언제우와는 달리 강기슭의 골재장은 조용했다.

그 골재장에 나의 남편, 진미 아버지의 굴착기가 외로이 서있었다. 방송차며 속보판은 고사하고 급하게 뛰어다니는 군인들조차 없었다. 있다면 굴착기앞에 적재함을 들이던채 운전칸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땅에 내려서서 자동차다이야를 발길로 툭툭 건드려보는 운전사들이 있을뿐이었다. 그러다가는 적재함에 골재가 다 차면 인사말 한마디도 없이 홀 떠나가곤 하였다.

하필이면!... 무엇이 모자라서, 남들보다 무엇이 못해서 이런 한적한 곳에서 일한담.

나의 갑작스런 출현에 진미 아버지는 조갈이 든 입술을 벌린채 한동안 멍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폭 꺼져들어간 눈확, 충혈된 눈...

나의 가슴은 칼로 허비우는듯싶었다.

《영희, 이거... 어떻게 된거요?》

무슨 말을 하랴. 입만 벌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만 같은데...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채 뻔뻔하게 피발이 선 남편의 눈만 점도록 바라보았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두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가족들을 위해 내어준 숙소가 있었지만 교대운전수가 없어 낮에 밤을 이어 그냥 일하고있는 남편의 운전 칸에 함께 앉아있었다. 골재를 다 실은 자동차가 떠나가고 다음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잠깐씩 눈을 붙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이 바로 거기에 나가있어요!》 하고 자랑하고싶어하던 나 자신이 너무도 저주스러워 가슴이 찢기는듯 하였다.

너 영희, 대답해봐! 남편은 지금 여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선에서 분과 초를 쪼개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안해인 너는 그새 뭘하고있었니? 사랑은 받는것이 아니라 바치는것이라고 곧잘 외우던 네가 남편이기 전에 전우이고 동지인 진미 아버지를 위해 과연 무엇을 바쳤어?...

캄캄한 밤, 연방 들이닥치는 자동차의 전조등빛이 어둠을 칼질하는 깊은 밤이었다.

방울방울 맺히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차창밖을 내다보느라니 남편의 투박한 손이 어깨를 쓰다듬는다, 울지 말라고.

그래도 눈물을 그치지 않으니 눅눅한 손바닥으로 어깨를 두드린다, 마치 철부지 어린것을 달래듯이...

이곳으로 떠나올 때 음식가지며 속옷들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위해, 희천발전소건설을 위해 성의를 바친다는 긍지감에 들떠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가 뼈저리게 뉘우쳐졌다.

며칠후 나는 진미를 본가에 맡겨놓고 여기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정확하게는 남편의 곁에 다시 나왔다.

나뿐이 아니었다. 봉실이도 주성이 엄마도 옥실이도 거의 모든 가족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정든 집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겨놓은채 건설장으로 떠나왔다.

### 3

엣그제까지만 하여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골짜기마다에 지금은 흰눈이 쌓였다. 때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사나워졌다. 자동차들이 눈덮인 언덕길에서 뒹뒹 헛바퀴질을 해대고 작업현장으로 날라가는 밥과 국이 뽕뽕 얼어들었다.

이곳에 나온지도 이제는 퍼그나 시일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지금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리해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콩크리트부재휘틀, 유압식굴착기와 중량화물자동차에 의한 콩크리트타입 등 새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공사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다. 이제는 2012년전으로 발전소를 완공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하였다.

문제는 골재였다. 골재이자 언체의 높이이고 속도였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서야 나는 비로소 남편에 대해 품었던 아쉬운 마음, 떠들썩한 언제우에서 일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어느 정도 털어버릴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이라야 식당일을 도와주거나 군인 건설자들의 작업복을 빨아주는것 그리고 짬이 나는대로 굴착기청소를 해주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느라니 굴착기에 정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불러가며 굴착기청소를 하고있는데 골재를 실으러 온 운전사가 다가왔다.

《히야, 부러운데!... 아주머니덕에 이 굴착기가 공사장에서 제일 멋쟁이가 됐구만.》

나는 수줍어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그게 뭐 큰거라구.)

그만이 아니었다. 때벗이를 한 굴착기를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골재 때문에 자주 이곳으로 나오곤 하는 부대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답다느니, 김윤일동무가 장가를 잘 갔다느니 하면서 고무해주었다.

칭찬이 잦게 되자 나의 일손은 더욱 빨라지고 알뜰해졌다. 우리 진미 아버지의 굴착기를 여기 희천전역에서 제일 미남자로 만들테야!

굴착기청소에 이제는 재미가 붙었다. 청소를 끝낸 굴착기를 바라볼 때면 꼭 목욕을 시켜 멀끔해진 우리 진미를 보는것처럼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하지만 굴착기는 때벗이를 했어도 진미 아버지의 얼굴만은 좀처럼 추서지 못했다. 교대운전수가 없는 남편은 여전히 밤낮으로 일했다.

잠, 잠이 모자랐다. 남편에게는 밤보다도 물보다도 잠이 더 귀했다.

안해가 곁에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자니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잠이야 대신해줄수 없지 않는가.

밤에 동무라도 해주리라 마음먹은 나는 식당일을 끝내기 바쁘게 초저녁부터 남편의 굴착기에 올라갔다. 했으나 말이 없는 남편인데다 운전지장을 줄것 같아 입을 봉한채 앉아있자니 이것 또

한 고문이였다. 간혹 자동차들이 미처 오지 못해 잠시 시간이 생길 때면 남편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내맡긴채 대번에 드렁드렁 코를 끌어대곤 하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만 갔다.

남편과 이렇게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어본 적이 과연 언제 있었든가 하는 생각이 불쑥 갈마들었다.

결혼한지 4년이 되어오지만 그동안 다정히 앉아 이야기 한번 나누어본 생각이 나지 않는다. 대동강맥주공장건설, 평양대극장과 청류관개전... 지금은 또 이렇게 희천발전소... 한 대상공사를 끝내면 또다시 새로운 건설전투장으로 피로도 미처 가실새 없이 남편은 떠나갔었다.

아무리 추억을 거슬러보아도 결혼식날 상을 받을 때를 내놓고는 도무지 그런 날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이제 희천발전소건설이 끝나면 또 어떤 새 전투장이 남편을 부르겠는지?...

나는 호-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곁에 더 바짝 다가앉았다.

내가 바스락대는것이 방해가 되는지 진미 아버지가 나를 피끗 띄어본다. 그리고는 다시금 앞시창에 눈길을 준채 굴착기운전에 여념이 없다.

똑쟁이! 노상 공사장에서 살다나니 감정도 콩크리트처럼 팡팡 굳어졌는가봐.

웬일인지 화물자동차행렬이 끊어졌다.

남편은 저 멀리 큰길쪽을 바라보며 《제길할, 왜 또 이래?》 하며 짜증을 냈으나 나는 오히려 남편의 잠시간이 늘어나 좋았다.

《눈 좀 붙이세요.》

남편이 큰길로부터 나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괴곤할텐데 이제 그만 내려가오.》

《내가 방해되나요?》

나는 더 바짝 다가앉으며 남편의 팔을 끼었다.

남편은 대답대신 허 웃더니 의자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아버린다.

(똑쟁이!)

동안이 지나서 자는줄 알았던 남편이 별안간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게 참 별스럽구만.》

나는 눈이 울통해서 남편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마치도 졸전의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한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대답할 생각은 않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 진미가 그새 퍼그나 컸겠지?》

진미 말이 나오자 밥사발에 꽃혀있던 저가락이

먼저 떠오른다. 밥알이 잔뜩 게발려있던 보통보통한 작은 손... 굴착기놀음에 정신이 팔려있던 팔애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얼른거리면서 가슴이 알알해났다.

여기 나와있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진미 생각을 안해본적이 없었다.

《얼마나 곱게 번지게요. 크면서 점점 아버질 많이 닮아요... 장난은 또 얼마나 세찬지 사내애들 찜찜먹겠어요. 요전번엔 밥상에서 굴착기놀음을 해대는데 아, 글썸...》

문득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말을 어디까지 듣고 어디서부터 못 들었는지?... 진미에 대한 생각도 아마 꿈결에 해본것일지도 몰랐다.

남편의 머리가 내 어깨우에 무겁게 실렸다.

신문과 텔레비존에서, 소설책에서 밤낮이 따로없이 일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순간처럼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기는 난생처음이다.

(잠을 대신할수는 없을가?)

허무한 생각에 나는 쓰겁게 웃었다.

멀리 큰길에서 자동차불빛이 흔들거리며 오는것이 보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몇분후면 들이닥치겠는데...)

나는 다문 반시간만이라도 남편을 편히 잠자리에 눕히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운전사들에게 사정하면 그들도 리해해줄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헤덤비며 진미 아버지를 흔들어깨웠다.

《일어나세요.》

반응이 없다.

《진미 아버지.》

《...》

좀더 세게 흔들었다.

팔을 끼고 남편을 일으켜세우려고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오히려 한번 흔들어놓을수록 코고는 소리는 더 커지고 온몸이 사정없이 내쪽으로 쏠리었다. 우리 진미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무거웠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찰싹찰싹 불을 두드렸다.

《여보, 깨어나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남편과 한창 씨름질을 하고있는데 어느새 빵빵 경적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흔들어깨워도 죽은듯 반응이 없던 남편이 그 한번의 경적소리에 소스라치듯 깨어났던것이다. 그리고는 자던 사람같지 않게 눈을 부릅뜨며 굴착기시동을 건다.

(진미 아버지!)

얼이 나간 사람마냥 남편을 멀거니 바라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그의 곁에서 물러났다. 것처럼 스스럼없던 남편이 이 순간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어느날 나는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진미 아버지, 나한테 굴착기를 배워주세요.》

《?!...》

《내 말 들었어요?》

《하하하! 사람 웃기지 마오... 여기가 뭐 애들 놀이터줄 아오!》

《내가 뭐 아이예요!... 내가 뭐 여기 놀러왔어요?!》

《당신한테 그럴새면 골재 한차 더 실어주겠소.》

#### 4

나는 여기 희천땅에서 어디를 가든 걸어다니는 법을 몰랐다.

내가 길가에 나서기만 하면 구태여 손을 흔들지 않아도 지나가던 자동차들은 어김없이 태워주었다. 그들중에는 내가 아는 운전사들도 있었고 모르는 운전사들도 있었다. 아마도 나를 저들과 똑같은 전투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오늘도 나는 남편의 점심밥을 싸가지고 숙소를 나서기 바쁘게 골재장으로 가는 운전사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나의 정신은 굴착기에 가있었다.

그사이 나는 남편한테서 굴착기배우기는 코집이 글렀다고 생각하고 언제우의 굴착기(주성이 아버지 굴착기)에 찾아가 짹짹이 운전법을 익혀왔다.

무릎위에 올려놓은 밥보자기에 땀손을 얹고 움지락거리면서 운전조작을 해보느라니 밥사발에 저가락을 꽂아놓고 장난질하던 딸애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왔다.

(진미야, 엄마도 너처럼 굴착기장난을 한—다!)

밥보자기가 나의 손장난에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중했던지 자동차운전사가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는줄도 몰랐다.

《아니, 뭘합니까? 아이들처럼...》

나는 못난짓이라도 하다 들킨것처럼 와플 놀랐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아무것도 아니예요.》

(애들의 장난?!...)

창황중에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골재장에 당도하니 굴착기에는 남편이 없었다. 잠깐 자리를 뜬것 같았다.

나를 태우고온 운전사는 자동차를 굴착기앞에 맞춰서 갖다대더니 남편을 찾아 어디론가 가

버렸다.

굴착기앞에 적재함을 들이댄 자동차를 보자니 군침이 꿀깍 넘어갔다. 절호의 기회다.

나는 주변을 살펴본 다음 굴착기에 올랐다. 진미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이가 나타나기 전에 자동차에 골재를 제격 실어놓으면 그만이니까.

어느때에는 제집처럼 드나들던 운전칸이건만 지금은 마치도 남의 집에 몰래 들어선듯 하여 심장은 세차게 방망이질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시동열쇠를 돌렸다.

와르릉— 오늘따라 별스럽게 커진듯싶은 발동기 소리가 골안을 메우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발동기소리를 들은 남편이 어디선가 달려와 당장 덜미를 잡을것만 같았다. 남편이 오는가를 돌아보고싶었으나 단념했다. 그러다 남편과 눈길이 마주치는 날에는 모든것이 수포로 될것 같았다.

그동안 배운것을 곰곰히 되새겨보면서 굴착기를 선회시켰다. 무드기 쌓아놓은 골재무지에 바가지 삽날을 박자 굴착기동체가 흠칫 떨었다. 조금만 나머지 바가지를 너무 급하게 뺐구었던 것이다.

바가지에 골재를 퍼담는 공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되었다. 이제는 굴착기를 다시 선회시켜 바가지에 퍼담은 골재를 자동차적재함에 부려놓으면 된다.

누군가 자갈을 걷어차며 급하게 달려온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도 그것이 남편의 발자국 소리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마지막 한 공정을 남겨놓고 굴착기조작손잡이를 빼앗길까봐 조바심이 날대로 난 나는 성급히 굴착기를 선회시키다가 그만에야 바가지밑등으로 자동차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팡!... 굴착기도 자동차도 다같이 부르르 떨었다.

범같은 기상을 한 진미 아버지가 운전칸으로 뛰어든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신 나갔어?》

남편은 황소숨을 쉴씩 내쉬면서 한참이나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다가 문을 팡 닫아버리고 자동차 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남편을 뒤쫓아갔다. 다행히도 자동차는 별일 없었다.

《정신 나갔어? 언젠 말아먹자구 그래?》

자동차적재함에서 뛰어내린 남편이 또다시 목청을 돋구기 시작했다. 어느때 같으면 열번도 눈물을 보였을 나였지만 이 순간엔 왜서인지 것처럼 해픈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자동차운전사가 다가왔다.

《됐어, 그만하라우. 일을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거지. 동문 댁 처음 배울 때 이런 일이 없었나?…

아주머니, 일없습니다. 다 그러면서 배우지요. … 여기로 올 때 밥보자기를 안고 무얼 하는가 했더니 굴착기운전법을 익히랬구만요.》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운전사의 이 말에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이기 시작했다.

운전사의 말에 그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내가 애처로와 보여선지 남편은 더 말이 없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남편의 그 어떤 불의적인 행동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있었다. 아니, 그것을 기다렸다. 그래야만이 죄스러운 마음이 한결 풀릴 것만 같았다.

남편이 나에게로 다가온다.

나는 두눈을 꼭 감고 이제 곧 닥쳐올 그것을 예감하면서 속을 바채이고있었다.

저그럭저그럭 남편의 발밑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더니 내앞에서 툭 밟혔다. 대신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듯싶은 남편의 숨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온다.

침묵, 고요… 갑자기 땅이 꺼지는듯 한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저그럭저그럭 다시 멀어지는 발자국소리…

아, 나에게는 남편이 남기고간 그 한숨소리가 그 어떤 욕설이나 매질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을 허비였다.

(진미 아버지, 차라리…)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어질고 순박한 나의 남편이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저녁밥을 싸들고 골재장에 나갔으나 낮에 있던 그 일로 하여 차마 마주서기가 두려웠다.

굴착기주위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리던 나는 끝내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맞춘 돌맹이우에 쪼그리고앉아 남편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다.

밥이 얼어들가봐 품안에 꼭 껴안고 쌀쌀한 강바람에 몸을 웅송그리고 앉아있느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내가 꽤 굴착기를 배울수 있을까? 남편의 한마디 큰소리에 간이 콩알만 해지는 그런 담으로 어떻게 저 집채만 한 중기계를 다룰수 있담! 차라리 남들처럼 하던 일이나 해?…

그러면 진미 아버지의 잠은 누가 대신한단 말인가?…)

이때 강건너편어둠속에서 청높은 아낙네의 고향

소리가 들려왔다.

《현철이, 밥먹자요!… 현철이!》

한참만에야 짜증이 섞인 총각애의 대꾸가 들려온다.

《싫어! 나 좀더 놀래!》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가뜩이나 산란해진 내 마음을 더욱 휘저어놓았다.

(진미야! 너 지금 뭘하고있니?)

이밤따라 평양에 두고온 딸 생각이 간절해진다. (진미야!)

입속말로 조용히 딸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랬더니 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아, 진미야! 너도 지금 저 애처럼 할머니의 속을 태우진 않니? 엄마가 보고싶니?… 굴착기장난을 아직두 하니?…)

딸애와 나누고싶은 하많은 얘기를 저 하늘의 별과 속삭이며 나는 하염없이 울고울었다.

정다운 집, 이웃들… 평양이 그리웠다.

평양에 두고온 모든 생활이, 즐거운 나날만이 아닌 간혹 맞다들리곤 하던 짜증이 나던 일까지도 강그리 그리웠다.

세면장에 하루가 멀다하게 쌓이곤 하던 딸애의 빨래감이며 식료품상점으로 오가던 그 길조차 그리워졌다.

하지만 여기서 평양은 아득히 멀다.

감상에 빠져있던 나는 굴착기가 벗어선것도, 정치위원과 우리 남편이 내 등뒤에서 펴 오랜 시간을 서있으면서 나를 지켜보고있다는것도 몰랐다.

그렇게도 부드럽고 인정많은 정치위원이 우리 진미 아버지를 되게 다블러세운 사연은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자, 진미 어머니…》

나는 깜짝 놀라 후닥닥 일어섰다.

《…이젠 그만 움해있고 빨리 남편에게 대접해야지요. 남편의 배에서 아까부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어마! 정치위원동지…》

《여기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애어머니가 아이를 떼놓고 여기 나온다는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 이런 훌륭한 색시를 업고다니지는 못할망정 욕을 하다니?!…

이제부턴 진미 아버지가 착실히 굴착기를 배워 줄겁니다. 잘 배워서 어디 우리 남정네들을 깜짝 놀래워봅시다. 아니, 이왕이면 경쟁을 해서 두말 못하게 꼭 눌러놓읍시다, 하하하.》

정치위원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희천산발의 차디찬 밤대기를 흔들며 울려퍼졌다.



그날 밤 나와 진미 아버지는 그 강기슭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미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어보기는 결혼후 처음일것이다. 그 긴긴 얘기들중에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한 한마디의 말만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것 같다.

《...여보, 물론 나를 생각해주는 당신의 그 마음을 모르는바가 아니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로고에 비하면야 이 김윤일의 고생이라는게 도대체 뭐요?!...》

남편의 눈물도 그때 그 강기슭에서 처음으로 보았다.

## 5

부대정치위원이 굴착기운전을 배우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는 소식이 건설장에 퍼지자 때를 만난듯이 다른 굴착기운전수가족들도 발벗고나섰다.

가족들마다, 남편들마다 말없는 경쟁바람이 불었다. 어느 가족이 제일먼저 굴착기운전을 배우는가? 어느 남편이 제일먼저 안해에게 굴착기운전을 배워주는가?...

내가 굴착기에 매달리는것을 그리도 못마땅해하던 나의 남편 역시 뒤질세라 온갖 열성을 다해 굴착기운전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맹렬한 경쟁열풍속에 날과 달이 흘러갔다. 이제는 나의 운전수준도 퍼그나 올랐다. 식사시간이나 월참이면 남편을 대신해줄수 있게 되었다. 건설장에는 우리 부부운전수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갔다.

이무렵 우리 골재장으로 평양에서 사진기자가 내려왔다. 내려왔다기보다는 데려왔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골재를 싣고갔던 자동차운전사들이 부대지휘부마당에 있는 사진기자를 곧장 이곳으로 모셔왔던것이다.

기자는 화물자동차를 타고오면서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를 펴구어놓고 여기에 나온것만도 웅한 일인데 얘기어머니들이 굴착기까지 다루다니?!》 하고 감탄했다고 한다.

기자가 골재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굴착기운전칸에 올라가있었고 나는 그밑에서 굴착기바가지로 문어다리마냥 재치있게 휘둘러대는 남편의 운전묘리에 정신을 팔고있었다.

《바로 이 아주머니다.》

때아닌 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입이 귀밑까지 찌진 화물자동차운전사가 손에 사

진기를 든 중년의 남자와 함께 서있었다.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의아한 눈길로 운전사의 얼굴과 낮은 사람의 손에 들린 사진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주머니를 취재하겠다고 평양에서 사진기자동지가 왔습니다.》

《어마나!》

취재라는 소리에 나의 입에서는 인사말이 아니라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거나말거나 기자는 나에게 손을 불쑥 내미는것이였다.

《정말 용습니다! 그 손 좀 잡아봅시다. 백금산에만 녀성굴착기운전수가 있는줄 알았는데 여기 희천에도 있었구만요.》

나는 쑥스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그러니 저 굴착기의 운전수동무가 이 아주머니의 남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동무가 바로 김윤일동무입니다.》

《아, 김윤일!... 지휘부에서 이름을 익혔습니다.》

멋들어진 취재감이라 생각했는지 입이 벌어진 기자는 취재수첩에 무엇인가를 재빨리 적어놓고나서 나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바람에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고말았다.

《최—영—희!》

자동차운전사가 마치 돌에다 쪼아박듯 또박또박내 이름을 불러댔다.

싱글싱글 웃으며 취재수첩에 나의 이름을 적고난 기자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아주머니, 이제 남편이 골재를 싣는 동안 옷차림이랑 머리랑... 좌우간 촬영준비를 좀 잘해주시요.》

부끄러운 속에서도 나의 가슴은 명절을 맞는 아이들마냥 부풀었다.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 굴착기뒤에 몸을 숨기고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형클어진 머리를 쓰다듬던 나의 손은 차츰 굳어지고말았다. 해별에 타고 북방의 세찬 바람에 거칠어진 살결이 마치도 내가 아닌 다른 녀자의 살결처럼 여겨졌다.

거울을 내리우고 옷주체를 내려다보았다. 엇그제 입은것 같은 새 솜옷이 어느새 허영게 색이 바래였다. 무르팍이 나오기 시작한 솜바지, 앞자락이며 팔소매 여기저기에 거뭇게 배여든 기계기름...

호—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런 꼴로 어떻게 사

진을 찍는담...

굴착기동음이 멎었다. 조금 있어 나를 찾는 진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쩌나?... 결국 옷차림도 머리도 미처 다듬지 못한채 끌려나갔다.

《아주머니, 시작합니다. 빨리 굴착기에 오르십시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애꿎은 옷자락만 주물러대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진기자가 웃음을 머금고 재촉하듯 눈을 깜빡인다.

나는 굴착기에 올랐다. 사진기자가 사진기렌즈를 들이댄다. 사진기렌즈로 나를 지켜보던 기자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주 멋집니다! 아주머니가 굴착기에 앉으니 운전칸이 환해집니다.

〈굴착기의 꽃!〉... 아니, 〈언제우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 이렇게 제명을 답시다!》

찰나 담배를 뱉뱉 빨고있던 남편이 불쑥 사진기 앞을 막아나섰다.

《?!...》

《기자동지, 그만합시다.》

기자도 나도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전사도 남편의 돌발적인 행동에 눈들이 둥그래졌다.

《왜 그러니까?》

기자가 사진기를 내리우며 묻는 말이였다.

남편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못시선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기자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뭘... 다르게 아니라 우린 아직...

저 언제우에는 훌륭한 부부운전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자는 《아, 난 또... 그러지 마십시오. 지나친 겸손성은 때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될 때도 있다는걸 아시겠지요?!》 하더니 다시 사진기를 올렸다.

했건만 남편은 완강했다.

찍자거니말자거니하는 두사람의 아귀다툼을 뒤에 남기며 나는 굴착기에서 내려 고개를 푹 숙인채 굴착기뒤로 타발타발 걸어갔다.

어질고 순박한 남편의 뒤통을 너무도 잘 아는지라 이 순간에는 야속스러웠다. 분했다. 사진첩에 끼울 사진도 아니요, 청해서 찍는 사진도 아니다. 강성 국가건설대전의 벽찬 시대에 부부가 나란히 신문에 나면 얼마나 소중한 추억으로 될것인가!...

아니, 아니야!... 가슴은 알찌근했으나 나는 절레절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남편의 말이 옳다. 결사판철의 용사들이 살며 싸우는 여기 이 희천땅에서 나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진다. 나는 축

축히 젖어든 눈굽을 황황히 닦고나서 돌아섰다.

그사이 애아버지와 기사사이에 어떤 타협안이 세워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두사람 다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울긴, 섭섭하오?》

남편이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내 눈을 뵈히 들여다본다.

나는 절레절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뜨거운 눈길, 사랑이 넘치는 그 눈길을 대하자니 또 눈물이 쏟아진다. 곁에 기자가 없다면 가슴팍이라도 막 두드려주고싶건만...

《찍자구. 신문이 아니라 먼 후날 우리 진미가 볼수 있게 이 굴착기를 배경으로 한장 찍자구.》

남편의 억실억실한 눈을 바라보며 나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거렸다.

우리 두사람은 운전칸이 아니라 얼음버께가 허영게 들어붙은 굴착기리데판에 등을 기대채 나란히 앉았다. 남편이 한쪽팔을 뻗쳐 내 어깨를 그러안는다, 다른 한손으로는 나의 두손을 모두 어잡고...

이렇게 되어 우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소박한 사진 한장을 남기게 되었다. 비록 신문에는 나지 못했어도 나에게게는 지금도 그 사진이 더없이 소중히 여겨진다.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에 분칠조차 못하고 찍은 사진이었지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칫날옷을 입고 찍은 결혼식사진보다 갑절로 소중히 여겨지는 사진이다.

## 6

남편의 여가시간에야 겨우 운전칸에 앉아보곤 하던 내가 이제는 당당히 맞교대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동차적재함을 들이받는 일도, 굴착기바가지를 털면서 자동차운전칸지붕우에 돌멩이를 떨구는 일도 없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내가 굴착기운전을 할 때면 자동차운전사들이 차에서 내려 불안한 시선으로 굴착기바가지를 지켜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골재를 실을 동안 운전칸에 앉아 태평스레 담배를 피우거나 자동차다이야를 발길로 툭툭 건드려보다가 다 실었다고 신호를 보내주면 간다온다는 인사말 한마디없이 훌 떠나가곤 하였다.

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차츰차츰 멀어졌다. 웅당한 일로 여겼기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도 섭섭하지 않다.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수록 나도 이제는 한갓 지원자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사람, 여기 발전소건설장의  
당당한 전투원으로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마음은 즐겁기만 하였다.

그전 같으면 남편의 잠시간을 다문 얼마만이라  
도 더 늘려주자고 굴착기에 붙어있던 내가 이  
제는 남편보다 골재 한바가지라도 더 푸려고 쉽  
게 운전칸을 내어주지 않았다.

어느날, 그날도 남편이 교대하자고 독촉했으  
나 나는 그냥 앉아 버티었다.

《지금이 몇인데 벌써 교대해요?》

《두시가 켜 넘었소. 그러다 위병 만나겠소. 그  
만하구 내려가 식사하라구.》

《벌써요?!... 가만, 말시키지 말아요. 실어주던  
거야 마저 끝내야지요.》

말은 이렇게 하고있었으나 내 눈길은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까지 넘겨다보고있었다.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기우뚱거리며 빠져나가자  
대기하고있던 차가 적재함을 들이밀었다.

남편이 발판우에 올라섰다.

《자, 이제 교대하자구.》

나는 굴착기조작손잡이들을 몸으로 덮으며 도리  
머리를 저었다.

《싫어요!》

철부지같은 나의 응석에 남편은 어쨌으면 좋을  
지 몰라 뻥해있다가 허허 웃고만다.

뻥뻥, 경적소리가 울렸다. 골재를 싣고 떠난줄  
알았던 자동차가 그냥 서있었다. 운전칸에서 상반  
신을 내민 운전사가 나에게 소리쳤다.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나하고 좀 갈데가 있습니다!》

《어디로요?》

나는 여전히 조작손잡이들을 몸으로 덮은채 물  
었다.

《가보면 알게 됩니다! 빨리요!》

하는수없이 나는 굴착기에서 내렸다.

무슨 일일까? 차를 타고가면서 몇번이나 물어보  
았으나 그때마다 운전사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  
였다.

언제우에 올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제동  
을 하였다. 차에서 뛰어내린 운전사가 어디론가  
달려갔다.

운전사가 달려간 그곳에서는 한 병사가 대형속  
보판을 지우는중이었다.

《여! 이건 왜 벌써 지우는거야?》

운전사가 소리쳤다.

웬일인지 궁금하여 나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벌써가 됩니까. 정치위원동지가 하두 강조  
하길래 하루종일 나뒹눅습니다.》

이미 다 지워진 속보판, 그것을 들여다보며 난  
감해하는 운전사, 나는 아무리해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왜 그러나요?》

내가 등뒤에 다가온것을 알자 운전사는 마치 죄  
라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해하였다.

《사실은 저기에... 저 속보판에 진미 엄마 이름  
이 있었는데...》

아!... 눈앞이 흐려진다.

고마운 사람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술을 든 병사가 나를 쳐다  
본다는것도 잊고 빈 속보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  
다. 다행이랄까... 그래도 마지막 세글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회동무!》

나는 자동차운전칸에 오르기 전에 다시한번 속  
보판을 뒤돌아보았다.

(제목을 어떻게 달았됐을까?)

술을 든 병사는 그때까지도 지을념을 안하고 우  
두커니 서있었다.

며칠후.

남편과 교대하여 굴착기에 오르던 나는 운전칸  
앞시창 한쪽구석에 학습장크기만 한 종이 한장이  
붙어있는것을 보았다. 전투소보였다.

《언제우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

귀에 익은 제목이다. 어디서 들었더라?... 그래,  
생각난다. 평양에서 온 사진기자의 입에서 튀어나  
왔던 사진제목이었지!

참, 공교롭기란!...

×

드디어 우리는 언제를 다 쌓았다.

10년이 걸린다는 방대한 공사과제를 짧은 기  
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웅장하게 솟은 언제를 마주하고 선 나는 지  
금 꽃속에 묻혀있다. 희천시인민들이 걸어준 꽃  
목걸이와 그들이 안겨준 꽃다발, 그들이 아낌  
없이 뿌려준 축하의 꽃보라가 나의 온몸을 뒤  
덮고있다.

꽃다발을 품에 안은채 나는 산악같은 언제를 보  
고 또 보았다. 내가 퍼낸 골재로 쌓아올린 언  
제... 내가 다짐한 곳(후에 우리는 언제우에서 다  
짐작업을 하였다.)은 어디쯤이었던지?... 저것이  
정말 내가 쌓은 언제란 말인가?...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  
듯 흘러내렸다. 정치위원도, 화물자동차운전사  
도, 봉실이며 주성이 엄마도... 모두가 어깨를 들

# 황 금 산 은 영 원 하 리

박 명 철

세월은 흘러 50년  
산천은 날마다 몰라보게 변해도  
유정한 이 산촌의 거리를 걸을 때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어라  
창성련석회의를 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

온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며  
가셔야 할 곳 만나셔야 할 사람 그 얼마시랴만  
이보다 더 큰 중대사가 없으신듯  
이름없는 산촌의 자그마한 건물에서  
나라의 정사가 결정되는  
련석회의를 조직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

나날이 인민들의 살림은 펴이여도  
아직도 산골인민들의 살림살이 걱정되시여  
공장을 찾으셔도 농민들 생각  
화려한 백화점매대를 찾으셔도  
농민들의 살림살이걱정

그래서 우리 수령님  
이곳 창성땅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신  
이슬젖은 새벽은 그 얼마며  
한송이 산열매를 두고 지새신  
사색의 밤은 그 얼마던가

군의 역할을 강화하자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자  
우리 수령님 창성련석회의에서  
산골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실 때

돌이 많아 눈밖에 버림받던 서덜밭도

속절없이 꽃피고 열매지던 산열매도  
바위를 칭칭 얹어가던 흙덩굴 노박덩굴도  
귀하고귀한 황금산의 보물이 되어  
세상에 빛을 뿌리는 창성땅

한평생 이곳에 태를 묻고 살며  
산이 높고 돌이 많은 고장이라 탓하던 사람들  
벌방이 부러워 고개를 넘는것이  
평생소원이던 사람들  
가슴열고 수령님 우러러 터치던 만세소리에  
비레봉이 울었다는 전설도 생긴 창성

도시만 쳐다보던 버릇이  
옛말로 된 천지개벽 창성!  
창성의 고추장 비단 단물 술...  
종이며 가구 초물제품들이  
창성의 특산물이 되어  
온 나라에 흘러가는 명성높은 창성!

경사는 어찌 그뿐이라  
경사가 경사를 불러오는 창성  
수령님 그 사랑 못 잊어 어버이장군님  
그리도 자주 찾아오시여 군의 호주가 되신듯  
살림살이를 보살펴주시는 창성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 빛을  
뿌리는  
황금산 보물산 창성

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 빛을 뿌리는 황금산 보물산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해빛아래  
영원토록 솟아 빛을 뿌리리!

먹이며 울고있었다. 온 건설장이 울고있었다.  
얼마나 간고한 나날이었던가, 얼마나 벅찬 나날  
이었던가.

그 나날에 우리는 콩크리트언제만을 쌓은것이  
아니였다.

먼 후날 뒤돌아보며 아름답게 추억할 인생의 커  
다란 자욱을 여기 희천땅에 새겼다. 애오라지 수  
척해진 남편만을 생각하여 희천으로 달려나왔던

내가, 남편의 모자라는 잠시간을 위해 굴착기운전  
을 배우던 이 최영희가 이제는 어머니조국과 숨  
결을 같이하고 조국의 재부에 자기 몫을 보탬  
줄 아는 조국의 딸이 되었다.

지금 나의 색바랜 저고리 안주머니에는 한장  
의 사진과 함께 네겹으로 정히 접은 한장의 전  
투소보가 진귀한 보물인양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 건설자의 멋

## 전 수 철

야전천막도 화식기재도  
용접기도 측량기도 맞들이도  
모두 실었으니 이제 떠나야지  
허나 운전사동무 잠깐 기다려주오  
우리가 꾸린 집 한번 더 보고가기요

부엌의 가시대도 창문도 장판도  
한번 더 닦아주고 떠나기요  
이 집에서 살게 될 주인들이  
손이 가서야 되겠소

벌써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하듯  
방송에선 축하의 노래만 나오누만  
현관의 인민반표식도  
새집출입문우에 문패자리도  
우리와 이웃하고 살자고 불드는것만 같구려

정작 떠나자니 눈물이 나는구려  
보오 기증기운전공 영육이  
마당가 화단에 물을 주는걸  
용접공 박동무 미장공 최동무도  
모두 눈물이 글썽하여  
차에 오르지 못하는구려

바로 한해전  
기초를 박던 이곳에  
꿈인듯 솟아난 초고층살림집  
제가 짓고도 꿈만 같아  
출입문손잡이를 놓지 못하는구려

고난과 시련을 의지로 헤쳐가던 그 마음들이  
봄눈처럼 녹는 오늘의 이 기쁨  
건설자란 바로 이런 멋에 사는 법  
살림집벽체가 어찌  
철근과 콘크리트혼합물이라고 하겠소  
그것은 우리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산 증거물

언제나 건설자 우리들이 가는 곳에서  
맞아주는것은 생소한것이였어도  
언제나 건설자 우리가 떠날 때  
바래워주는것은 인민반의 주소와

활짝 피여 웃는 화단의 꽃들...

떠나자니 눈물이 나는구려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활짝 꽃피난 새집 새 거리  
이 집 이 거리에서 살 주인들은 모두  
평범한 근로자들

이 희한한 새집들이경사를 안겨주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신 로고 베푸신 사랑  
우리 어찌 다 알겠소  
하지만 그것만은 잊을수 없구려

해맞이식당에 오시여선  
란간의 시공도 조명도 잘되었다고  
우리 건설자들을 치하도 해주시고  
결혼식식당에서 첫번째로 결혼식을 하게 될  
신혼부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랑의 말씀

경애하는 그이의 축복을 받을  
그 신혼부부가 누구일지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떠나더라도 축하의 마음  
결혼식식당의 창가에 남겨놓고가기요

아마 결혼식 그날 그 순간  
그들을 축하하여 축배잔을 쥘으며  
축하의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새 건설지구에 기초의 말뚝을 박을게요  
건설의 설참 《일터의 휴식》노래에 맞춰  
흥겨운 군중무용을 펼칠수 있으리

어서 떠나기요  
발동을 걸었으니 곧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러주신  
새 건설전투장을 향해 단숨에  
이것이 건설자 우리들이 사는 멋이 아니겠소  
멋이라도 이런 멋이 그 어디에 있겠소!

# 그리움의 거리 그리움의 밤

권 오 준

그리도 황홀하게 바라보던  
은하수비긴 밤하늘이  
내 사는 집 45층지붕에서 시작된듯  
하늘에도 땅에도 별바다 별바다  
대동강은 땅우에 흐르는 은하수인듯

정녕 꿈인듯싶어  
내 살을 꼬집어보기도 그 몇번  
허나 꿈아닌 생시!  
기쁨 때면 말을 대신하는 눈물이  
불을 적시고 옷섶을 적시고 방바닥을 적시는 밤

어린애마냥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손자손녀들 하는 말에  
더욱 눈물의 동을 터치는 새집들이날  
—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늘은 모두 울보야

웁다! 이밤엔 어른들모두 울보되었단다  
눈물이라도 심장에서 솟는  
피보다 더 진한 감사의 눈물  
영원히 식지 않을 보답의 눈물이란다

이밤엔 누구인들 잠들수 있으랴  
백밤 천밤을 새운들 잠이 오랴  
모두 배란다에 나와 바라보는 만수대언덕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과 장군님 우러러 눈물젖나니

수도의 중심 여기에  
인민의 새집 새 거리를 일떠세우시려

어버이장군님 바치신 로고와 헌신으로  
이민위천의 기념비로 솟아오른 집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하루빨리 꽃피우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건설정형을 자주 알아보신 거리거니

오늘의 이 행복한 모습 그려보시며  
12월의 영결의 함박눈을  
화창한 봄날 이 거리에 쏟아져내릴  
기쁨의 꽃보라로 맞으시며  
태양의 미소 사랑의 미소를  
창가마다 남기고가신 장군님이시였거니

계단을 올리는 발자국소리에  
뭉클 가슴적시는 생각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새집들이기쁨 함께 나누시려  
우리 집에 들어서실것만 같아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밤

이밤 누가 노래의 선창을 떴었느냐  
만수대언덕에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 우러러  
축복받은 밤에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여  
그리움의 노래에 불타는 맹세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천세만세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로 잠 못드는 밤이여

## 아이가 되고파라

성 연 일

이제라도 내 다시  
되돌아갈수 없을가  
어릴적 즐겁던 소년단시절로  
푸른 하늘 창창한 **김일성**경기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는 행복한 아이들

저들속에 나도 벵타이 매고 함께 있고싶다  
나는 아동작가  
꽃송이같은 그 웃음 노래에 담으며  
무지개같은 그 꿈을 동시에 담으며  
어른이 되었어도 아이되여 산다고

그 기쁨속에 내 살아왔건만  
아니여라 노래도 동시도 아닌  
아이들의 저 웃음을 나도 웃고싶어라  
아이들의 저 행복을 나도 안고파라

내 아무리 있는 재능 다 쏟는다 해도  
어이 다 노래에 담을수 있으랴  
저 멀리 북변땅 외진 산골마을에서  
소년단대표로 뽑힌 나 어린 소녀  
너무도 꿈만 같은 가슴설레임을  
바다 한복판 이름없는 섬마을아이  
파도를 헤가르는 배우에서  
—평양아!  
소리쳐부르던 그 환희를

다 담을수 있으랴  
난생처음 사랑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땅 온 나라를 내려다보는 기쁨에 겨워  
기창마져 열고싶었을 그 엉뚱한 생각들을  
평양으로 달려오는 수천리 먼먼길  
사랑의 특별열차를 바래워주는 그 손저음을

나는 그저 아이들이 부럽기만 해  
텔레비존앞을 떠날줄 몰랐더라  
중앙동물원을 찾는 아이들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굴러보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은 아이들과 함께  
나도 터치는 웃음 배그네에 실어도 보고

아, 이 나라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불러  
경축행사를 보란듯이 펼쳐주신 사랑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로 억세게 자라라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은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셨거니  
행복이란 그 한마디로 다할수 있을가  
아이들이 받아안은 오늘의 이 행복을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를 터치는 아이들  
저들의 눈가마다에 맺힌 눈물의 반짝임  
그것은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행복의 노래이며 아름다운 시

아이들아 오늘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노래를 주렴 시를 주렴  
시인의 상상력으로도 가닿지 못할  
행복과 기쁨의 절정에 서있는  
내 나라의 꽃봉오리 너희들이 부러워  
아, 나는 정녕 아이가 되고파라 되고파라!

## 상 식

### 고 질적인 침묵과 건강

로씨야의 작가 레브 톨스토이는 《침묵은 제일 큰 처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특히 외롭게 지내는 과묵한 로인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언으로 된다. 항상 침묵해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침묵이 처벌로 된다는것보다 병을 가져다준다고 하는것이 더 적중할것이다.

물론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침묵이 하나의 성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침묵해있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무슨 일이든 마음속에 품고있으면 몸에 해롭다.

우선 침묵하면 소심해지고 소극적인 심리가 생겨나며 정신적으로 긴장해지며 오랜 기간의 긴장상태는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침묵은 침착성이 아니라 우울증의 전

주목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과묵한 사람이었으며 발병 초기에 특별히 침묵하고 주위의 사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원히 말도 안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했으며 음악도 즐기지 않았다.

또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주 저도 모르게 정신적구속에 의한 심리적모순에 빠져있다. 그들은 사건의 초기에는 얼마간 흥미를 가지지만 그 어떤 저항에 부딪치게 되면 의식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될수록 침묵을 지킨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감정은 구속되고 답답한 상태에 처해있게 된다. 하여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고집스러운 성미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혼자있기를 좋아하며 성격도 피벽해진다.



리 명 현

생산을 전문하는 기업소나 공장치고 제품출하장이 없는 기업소는 아마 우리 화력발전소뿐일 겁니다. 대신 송전선이 뻗어져나가 그물망처럼 퍼져온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으로 빛과 열, 힘을 주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그 종합에너지-전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래야 볼수가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전기를 일으키는 증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증기라 하면 안개와도 같은, 맑게 개인 가을날 아침 깊은 산중의 호수가 수면 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증기를 드람(끓는 물에서 증기를 분리시키는 장치)에서 일으켜 그것이 타빈날개를 세차게 돌려주도록 압을 조성하기 위해 수차레나 높은 열을 가해줍니다.

최대힘을 낼수 있을만큼 가열했을 때 그 증기는 젖빛색이 없어집니다.

그런 증기를 바로 우리 열직장에서 생산하고있단 말입니다.

예? 뭐라구요? 이야기방향이 판데로 가는것 같다구요? 아닙니다. 전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사람들이 우릴 마치 큰 위훈이나 세운 영웅이나 되는것처럼 떠들고있는데 우린 자기 할바를 한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릴 평가해주겠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요.

...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다가가고있었습니다.

도시는 래일의 새로운 활기를 품에 안고 고즈넉한 정적속에 잠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영삼교대장과 나는 밤교대였습니다.

서둘러 발전소정문에 들어서는데 그때에야 퇴근하는지 기업소 로동과장동지가 마주오고있었습니다.

《여, 격발기! 그래 여전히 상태는 좋은가?》

나는 씩 웃으며 크게 대답했습니다.

《예, 격발기는 언제나 격동상태에 있습니다.》

《좋아!》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로동과장을 돌아보며 영삼교대장이 물었습니다.

《광세동무, 나하고 십년나마 함께 일하면서 듣는 소리다? 동물보고 왜 격발기라고 하오?》

《예- 제대로여와서 배치받을 때 한 말을 여적 잊지 않고 두고두고 외웁니다.》

직장까지 가는 길에 나는 영삼교대장에게 추억도 새롭게 그때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린 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과에서 열흘



나마 로동안전교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난뒤 기업소로동과장은 끝끝한 청년제대군인들을 미덥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들모두를 타빈직장에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자리를 차고일어섰습니다.

《저는 좀 고려해주시시오.》

《왜 타빈직장이 어때서?!… 발전기는 우리 기업소에서 심장이나 같소!》

《압니다. 하지만 심장도 피가 있어야 고동칠게 아닙니까! 발전기가 총이라면 타빈은 총신이구 전기는 총알이라구 볼수 있습니다.… 전 총신이나 총알두 좋겠지만 격발기가 되자는겁니다. 그래서 증기를 생산하는 열생산직장에 가겠습니다.》

《동무!… 이미 결정된 문제니 타빈직장에 가서 일하시오! 기회를 봐서 내 조절해주겠소.》

《후에 보자는건 무섭지 않습니다. 증기와 인연을 맺을바치고 처음부터 맺어야 끝까지 끊기지 않을게 아닙니까!》

《이 동무 고집이 하늘소 뒤발통 한가지군!… 증기와 인연을 맺는단 말이지… 총신이 아니라 격발기가 되겠다!… 이 친구 꽤나 피짤데!…》

로동과장이 느물느물 웃으며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것이었습니다.…

《하하하…》

영삼교대장은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됐구만. 격발기라, 종구만. 그런데 나한테 왜 여태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소? 섭섭하구만.》

그러자 내가 바빠났습니다.

《아니, 영삼동무! 그게 무슨 얘기거리나 되는 겁니까? 웅색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우뚝 멈춰섰습니다. 영삼교대장은 달빛에 환히 보이는 얼굴에 사람좋은 웃음을 떠올리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됐소. 광세동무, 내 그저 해본 소리요. 우리야 서로를 너무도 잘 알지. 자, 가지요.》

우리 둘은 서로가 신뢰에 찬 미소를 나누고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가노라니 영삼교대장에게 처음 혼나던 때가 방불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입직하여 몇해가 지난 어느날이었습니다.

석탄을 미분하는 뿔분쇄기운전공이었던 나는 인

차 드람, 화실, 송풍기 등 보이라부분들을 관리하는 현장운전공이 된다는 흥그러운 마음으로 오후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있었습니다. 그 흥심에 나는 뿔분쇄기가동상태를 방관시하였습니다. 얼마안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영삼조작반장이 (그때는 반장이였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화실온도가 떨어지고있는데 뭘 하고있소?》

그러면서 분쇄기 주축메달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보오! 지금 메달에 윤활유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소!》

그는 성을 내며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낼듯 쏘아보는것이였습니다.

굳은 덩이가 많은 원탄을 으깨여 초미분상태로 만드는 분쇄기에서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주축메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동시 한초도 멈춤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까 회리한 다음 뿔(회전통에서 원탄덩어리들과 섞여 부딪치면서 부스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구형철알)을 교체했소?》

《교체할 때가 아직 되지 않은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나다.》

《뭘요? 동문 조작상요구라는 말을 어떻게 리해하고있소?》

조작상요구대로 전부 교체해서 다시 쓸만 한것들은 선별해야 할게 아니요? 한심하구만.》

조작반장은 나보다 나이가 6살이나 우입니다. 하지만 키도 작고 몸이 체소한데다 좁은 어깨가 안쪽으로 굽을사 하여 건장한 장정로력 체모라곤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불찌라도 튀어나올듯 한 그의 눈동자를 마주보자니 마음의 안정을 단번에 잃게 되더군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난 뭐 감정이 없고 말할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일이 크게 잘못되기라도 했는가!…하는 생각에 나는 툭하니 말대꾸를 하였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동무가 해이되었단 표현이요! 미분탄립자가 커지면 열이 손실되고 그러면 증기압이 떨어진다는걸 모르오? 그렇게 되면 타빈 분당회전수가 보장되지 않아 정격주파수가 나오지

못한다는걸 그대 모르는가 말이요? 이런 상태에선 현장운전공이 될수 없소. 분쇄기에서두 손을 떼오. 래일부터 급탄기출구에 가서 일하오!》

순간에 나는 입을 항 벌리고 굳어졌습니다. 급탄기출구라면 처음 입직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나는 입직초기의 신입생으로 돌아가는것으로 됩니다. 이걸 나를 생등이로 취급한다는 소리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합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소! 반장이 뛰길래 직장에서 결정한 문제를 변경시키겠다는거요?》

그러거나말거나 영삼반장이 분쇄기 전원개폐기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에서 귀중한 한 부분이 떨어져나가기라도 한듯 가슴이 훔쳐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로는 못 돌리오. 시간이 걸려도 메달을 교체해야 하겠소... 급탄기에서 일하는건 동무마음대로 하오!...》

다시 말하는데 이 분쇄기에서두 손을 떼오! 직장에는 내가 그렇게 제기하겠소!》

나는 당장에 허망한 상태에 빠져 고개를 푹 떨구고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내가 속한 3교대 교대장이 결원이어서 대리로 그 사업까지 맡아보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 치는것이었습니다.

우리 직장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말 좀 들었으면 들었지 비 맞은 수탉처럼 잔뜩 어깨를 떨어뜨리구... 뒤에서 보니까 다리까지 휘청거려...》

나는 쓰겁게 웃고말았습니다.

《참! 직장장동지두... 어깨는 모르겠지만 다리까지야 휘청거렸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게 험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듣는거지. 그대 오늘 반장이 한 비판이 접수되나?》

《그가 한 말이 옳기는 옳습니다.》

《옳으면 옳은거지 무슨 대답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비판도 옳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공감이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도리어 제 인격을 해치는 법이야... 내 이야기 하나 하겠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때였네. 제국주의자들이 우릴 질식시켜보자구 집요하게 경제봉쇄를 해왔지. 온 발전소가 보이랴를 살리자구 떨쳐나섰네. 그때 영삼반장

이 화실에 직접 들어가 밀불을 살려 거기에 미분탄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보이랴를 살리자는 안을 제기했네. 그건 가스중독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네. 그러나 다른 방도는 없었지...》

결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어.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투이기도 했지. 온 발전소가 우리를 지켜봤네.

조종반은 영삼반장이 단독으로 조종했네. 모두가 현장에 날라다주는 밥을 선택로 먹으면서 일했네. 무려 10시간동안이나... 그래서 끝내 화실온도를 정상수치로 올렸네...》

말은 바른대루 자네를 현장운전공으로 올려오자구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영삼반장이야!... 그런데 그게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두 해이되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석탄과 중유가 허실된다는걸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석탄이 검지만 그게 내는 열은 굉장하지. 그러나 그 석탄에 불을 지피는 사람의 마음은 더 뜨거워야 해! 이게 우리 열관리공들의 기본 자세야! 심장에 불이 없는 사람이 석탄을 태워 생산한 증기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울텐가?!... 자넨 다른건 잘하는것 같은데 이것만은 톡톡히 아는것 같지 않아!》

난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속에서 뜨거운것이 불끈불끈 치밀어올랐습니다.

난 천천히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직장장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오는것인지 알수 없는 힘을 받아 말마디에 박력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리랴구 믿었네. 역시 패기가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보풀이 인 책을 주는것이었습니다. 보이랴구조와 그 운영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걸 보구 보이랴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고 또 그걸 잘 관리운영하자면 제일 중요한게 무엇인가를 잘 연구해보라구. 학생이 학년진급때 치는 시험이라구 생각해도 좋아. 내 말뜻을 알겠나?》

《합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장은 힘을 주자는것인지 만족하다는것인지 알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삼반장과의 관계는 그후 어떻게 되였는가구요?

이제 막 이야기하려던 참입니다. 일이 끝나면

기술학습을 하였고 일할 때는 짬만 있으면 현장에 올라가 화실, 드람, 절란, 통풍계통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를 주의깊게 관찰하였습니다.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나는 어차피 현장에 무조건 올라가야 하겠으니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해두자는 배심이었습시다.

영삼반장이 이걸 눈치채지 못할리 없습시다.

그러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교대전반을 보면서 내가 맡은 출구에서 이상이 없도록 은근히 원심을 쓰는것이 험등하게 알렸습시다.

선택이 하나고 지향이 같다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구래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던 나날에 나는 영삼반장과 함께 명승지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관광을 우리 교대에선 영삼반장 한사람이 가게 되었답시다.

그런걸 그가 한사코 나를 보내자고 제기했답시다. 나는 그 사연을 후에야 알았지만 어쨌든 종당에는 영삼반장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명승지관광길은 그야말로 즐겁고 흥겨웠습시다.

숲의 향기가 짙은 맑고 청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니 가슴이 쨍하니 열리는게 온갖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것 같았습시다.

점심시간에 우린 너럭바위들에 둘러앉아 준비해온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대동강》병맥주도 한두병씩 마셨습시다.

잠간 휴식을 하고 봉우리꼭대기에 있는 루정으로 올랐습시다. 돌계단을 오를 때 영삼반장이 나한테 말을 건네더군요.

《광세동무! 전번에 뿔분쇄기를 돌리지 못한다고 개폐기를 끌 때 말이요...》

《반장동지도 참! 그 말은 왜 꺼넌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기때문에 내버려두라는 말이 있습시다.》

《난 광세동무가 우리 교대에서 앞으로 핵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아프라고 우정 마음먹고 모질게 말했소... 솔직히 말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야 안되지...》

가식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그의 말이 무척 고마웠습시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투박스러운데가 있지만 솔직하고 인정이 많습시다.

영삼반장의 말이 옳습시다.

석연치 않은게 있다는거야 속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땐 속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였습니다... 허지만 반장동지가 처벌을 제때에 주었기때문에 난 이래저래 리득을 많이 봤습시다. 앞으로도 잘못하면 그보다 더한 처벌이라도 주저말고 주십시오. 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구 이전에 잘못된것들은 너그럽게 용서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 우린 래일부터 영 작별해야 할 사람들 갈구만!》

우리는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는새 루정까지 올라왔습시다.

전망대에서 명승지전경을 둘러보니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이런 곳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드니 더 감개무량하였습시다.

《언제부터 물어보자고 했는데... 반장동문 누구한테서 일을 배웠습니까?》

《우리 교대에 최아바이라고 오랜 기능공이 있었소. 그분이 나한테 열관리공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었고 오랜 경험이랑 보이랴를 조종하는 감각적능력이랑 넘겨주었소. 환갑이 지났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하시다가 화실앞에서 순직했소. 오래전부터 앓던 순환기질병 증세가 갑자기 발작하여 종내 쓰러지고말았지... 최아바이 사회생활경력은 한줄밖에 되지 않소. 그분의 자서전에서 사회생활부분은 기껏 많이 잡아서 두석줄뿐일거요. 량심적으로 사셨고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최아바이는 공장이 숨죽고 달리던 열차들이 떴어서던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나날에 우리 전력생산자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밤낮으로 현지도길에 계신다고 늘 마음 괴로웠했소. 우린 장군님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말이요. 그래서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로 사시였지.

난 정말 그 아바이를 잊을수 없소. 그래서 늘 자랑하곤 하오.

그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내세워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이요!...》

숙연히 우리는 영삼반장의 목소리가 내 가슴에 젖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최아바이가 나에게도 뜨거운 정을 주는 친혈육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영삼반장은 그후 인차 우리 교대장으로 정

식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작업반휴계실앞에 다달았습니다.

우리 교대성원들은 벌써 다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휴계실안의 공기가 별스레 팽팽했습니다. 직장장과 생산과 지령장이 나와있는걸 봐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다를까 그때 정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두시간전에 10호보이라급수관에 설치된 편속토출변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전 교대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보았지만 종시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보이라를 멈추고 압력을 떨군 다음 바킹을 교체하자는것이 그때의 유일한 방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하루가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한시 한초가 새로운데 하루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잇달아 머리속엔 무서운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전기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 쇠물이 식어 굳어진다면... 구급환자를 소생시키는 수술장조명이 전압이 떨어져 어두워진다면... 긴박한 원료, 자재를 수송하는 열차의 기관차가 단 몇분이라도 전기때문에 지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와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인가.

또 보이라를 멈추었다가 다시 살리자면 석탄은 또 얼마나 많이 소비해야 하는가.

10호보이라를 세워서는 안된다!

우리 교대에서 말자!

그때 우리 동무들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겁니다.

《교대장동지! 우리 교대에서 해냅시다! 10호를 세워서는 안됩니다.》

나는 나직하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부교대장동무 의견에 난 찬성이요!... 직장장동지!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직장장이 사뭇 긴장한 눈길로 나와 교대장을 엿바꾸어 훑어지게 쳐다보는것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머리속에서 여러 갈래의 가능성과 타산이 몇십번이고 교차되고있다는 것이 알렸습니다.

이때 생산과 지령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교대도 못했는데 안전하게 보이라를 세워야 하오. 흥분하지 마오.》

나는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대답했습니다.

《전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흥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는 천날 키워 하루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전투고 우리도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해

낼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도 가늠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지령장이 까딱 움직이지 않고 눈에 힘을 주어가며 나를 지긋이 바라보는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때 직장장이 결심이 선듯 우리를 지지해주었습니다.

《지령장동무! 이 동무들을 한번 믿어보지요... 아니, 이 동무들은 꼭 해낼거요. 보이라를 제 손으로 세워야 하는 이 동무들의 심정도 리해가 되지 않소?》

드디어 지령장도 결심을 내린듯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증기속에서 수리작업을 해야 하니 두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땐 할수 없습니다.》

《들었나, 교대장?》

교대장이 작업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호현장에 누가 직접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혼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와 가죽장갑을 끼고 변를 개를 틀어잡았습니다.

《10호현장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은 나한테 맡겨두오.》

《교대장은 교대전반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옛날 헛내기로 알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싱깁이를 하는 모양을 직장장이 또 아리송한 웃음을 짓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웃음을 지을 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나한테 애용하던 책까지 주며 기술학습을 시켰던 그가 내가 만족한 답변을 했을 때도 그런 웃음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장운전공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있는 일이었으니 퍼그나 오래된 일이지만 왜선지 그때 그 일이 어제 있는 일이런듯 불시에 떠오르는것이었습니다.

...

《그래 그새 좀 연구해봤나?》

책상위에 그 책을 올려놓고 자신만만하게 서있는 나를 슬쩍 올려다보며 하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보이라를 직접 관찰해보니 꼭 생물유기체 같습니다. 승수관으로 흐르는 물이나 화실에 투입되는 석탄은 유기체에 필요한 수분이나 음식물 같고 그물망처럼 치밀하게 늘어져있는 각종 규격의 판들은 피줄, 송풍기와 배풍기는 폐처

럼 보입니다. 열원천을 내는 화실은 심장같이 생각되구요. 재처리장치와 연도는 비뇨기계통이라 구 볼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편관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보이란 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관리공들이 누구나 할것없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직장장의 두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단한데!··· 연구를 많이 했다는게 알려··· 합격이야!··· 그렇지만 절반밖에 맞이지 못했어. 아직 한문제가 더 있지?》

《그런 보이라를 잘 관리운영하자면 그것을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동무 종내 날 감동시키는군!··· 자기 무기를 정통하고 사랑하는 군인이 싸움을 잘할수 있는것처럼 우리 발전소에서 리치는 갈아. 좋아!··· 응, 표준대답이야!··· 잘했어!··· 이 책을 아주 가지라구. 기념으로 말이야.》

《지금까지 애지중지해온 책이겠는데 저한테 준단 말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끔한 사람으로 보이냐?··· 이래봐두 속은 자네보다 더 젊었어!··· 그리구 장차 자네같은 사람들이 직장의 기둥이 되어야 해!··· 그러니 어려워하지 말고 진사해두라구.》

《고맙습니다, 직장장동지!··· 그럼 전 이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직장장이 《가만!··· 동무 올해두 휴가를 번지자구 그래? 영?··· 이달안으로 휴가를 받으라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네.》하고 날 다시 붙들어서웠습니다.

《그거야 의무성을 떠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무 제대군인이지?!··· 군대때 상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대답했나?》

《〈알았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몰랐습니다.》

《난 직장장이니까 동무의 직속상관이야!··· 그때 어떻게 하겠나?》

《그럼 받겠습니다.》

《무슨 대답이 왜 그렇게 맥이 없어!··· 하루에 한끼두 변변히 못 먹는 사람처럼··· 후방과장이 그러는데 동문 룡라식당에 갈적마다 고기쟁반국수도 곱배기래!··· 난 한그릇도 배찬데··· 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이야!··· 그러니 군대식으로 다시 대답하게!》

아래사람을 다블릴줄 아는 이런 초급일군앞에선 꼼짝할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하긴 못해도 이쯤돼야 수백명을 거느린 한개 직장을 통솔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이나 있겠습니까. 썩 내키지 않았지만 난 그가 만족할수 있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장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때 직장장이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무슨 뜻인지 가늠이 잘 안 가는 웃음을 또 지었습니다.···

《교대장! 부교대장하고 같이하게. 혼자선 힘들어. 조종반엔 내가 있으니 걱정말구···》

결국 교대장과 내가 들어가기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10호보이라주변은 온통 증기천지였습니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력이 센 전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란간, 경사가 급한 증계단, 열기설기 늘어선 관들, 철골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있는 구조물안을 뽀얀 증기속을 헤치고 지나가자니 천천히 손더듬, 발더듬을 해가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10호보이라승수관에 다달았습니다.

우리가 막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입구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영삼동무, 팡세동무! 주의해서 빨리 끝내고 나오시오. 내 기다리겠소.》

(아니?!)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귀에 익은 책임비서동지의 목소리였던것입니다. 아마 현장실태를 보고받고 달려나온 모양입니다.

순간 책임비서동지가 기다리고있다는 생각이 따스하게 들었습니다. 자연히 책임비서동지를 처음 만나던 때가 머리속에 떠올랐습니다.

···3년전에 10호보이라대보수를 금방 끝내고났을 때입니다.

승수관보수를 끝마치고 목욕실로 가는데 직장장이 나타났습니다.

《팡세동무! 몸을 씻고 기업소당위원회에 가오. 책임비서동지가 동무를 부르요.》

나는 그때까지 책임비서동지를 개별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수천명의 종업원이 있는 연합기업소책임비서를 만나는것이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왜 찾을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저으기 긴장했습니다.

《팡세동무라고 했지요?》

《열직장 3교대 김광세입니다.》  
《어디 아픈데는 없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출근부를 보십시오. 아니면 로동과에 전화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말수더구가 많은 나를 향해 책임비서동지가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집에선 다 잘있소?》  
《아들과 딸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있습니다.… 처도 직장엔 나갑니다.》  
《그래 지금도 격발이 잘되오?》  
나는 대번에 얼퍼름해졌습니다.  
피곳 입직초기 직장배치때 로동과장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때 일을 알고 지금까지 기억하고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왜서인지 무어라 표현할수 없는 따스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난 아직 조종반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늦추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 일이 잘되는 법이요.… 난 광세동무가 보이라일에 완전히 능통해서 매번 단번조준하여 확신성있게 방아쇠를 당기는 사격수가 되기를 바라오.》  
《고급기능공이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동무한테 한가지 과업을 주자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과업이든 맡겨주십시오!》  
《역시 패기가 있군!… 구체적인 임무는 직장당 위원회에서 줄거요.… 한가지 부탁이 있소. 영삼동무는 다 좋은데 건강치 못한게 탈이요. 허리증도 있고… 그래서 동무가 곁에서 잘 도와주어야 하겠소.》  
《알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책임비서동지!》  
그후 나는 3교대세포비서로 선거되었고 겸해서 부교대장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문제의 토출변에 당도했습니다.  
증기의 온도는 더 높아지고 습이 더 가빠졌습니다. 바늘땀치가 얼굴을 마구 찢어대는것 같았습니다.  
이겨내야 한다!  
이쯤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강철증산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분, 일초가

새로와 수백도나 되는 가열로안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벌리지 않았는가.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광야에서 생눈을 움켜쥔으며 검질기게 달려드는 적들과 사생결단의 혈투를 벌렸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는다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한초마저 쪼개서 써야 하는 긴박한 속에서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변을 침착하게 해체했습니다. 그때에는 뜨거운 열기가 몸에서 나는 열인지 증기의 열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돌덩이처럼 똑똑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끝내 아홉개나 되는 바킹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고비는 넘긴셈입니다.

《교대장동지! 뒤처리하는 내가 하겠으니 먼저 철수하십시오!》

나이기도 우이고 몸도 약한 그를 위해서 나는 명령조로 웨쳤습니다.

《그럼 칭찬은 저 혼자만 받겠?!… 언제부터 그런 리기주의자가 되었소!》

난 더 할말이 없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는지…

차츰 증기가 걷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수리한 토출변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공이다!》

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교대장이 픽 꼬꾸라졌습니다. 그를 다급히 일으켜세우려는데 나 역시 온몸의 힘이 발밑으로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어나보니 우리가 병원침대에 누워있는것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산소가 희박한 증기속에서 많은 땀을 흘려 탈수증이 온데다 일이 됐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의 탕개가 풀리니 우리는 물주머니가 된채로 정신을 잃었던것입니다.

책임비서동지가 우리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라고 지시하고 뒤일을 봐주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대한 소문이 내려가 돌쳐 날아퍼졌습니다. 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영웅이나 되는듯이 병원으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술한 로동자들이 찾아와 꽃다발이며 갖가지 과일들을 놓고 앉습니다. 그속에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파분한 호사를 했습니다.

이틀만에 영삼교대장과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몰래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평양의 밤거리는 얼마나 휘황하든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지도에 의해 더 휘  
황찬란해진 이채로운 불장식들에 의해 수도의 거  
리는 하늘나라의 은하세계가 땅위에 펼쳐진것만  
같았습니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이 빛을 생산하는 자신의 직  
업에 대한 긍지감이 뿌듯한 속에 문득 처음 제대되  
여왔을 때 나의 아버지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치하는대로 가서 일해라. 그제 내가 말해주  
고싶은건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사내로서 뭘  
가 해볼만 한 일을 해야 긍지스럽고 또 그런 일  
에 능수가 되는 과정에 생활의 보람도 찾게 되고  
자신도 억세여진다는것이다. 알겠냐?》

사실 우리가 한 행동은 성과나 위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당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정이고 사랑이란 말  
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인격은 선택된 하  
나의 지향을 끝까지 지켜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살  
아가려는 한생의 노력에 있다고 말입니다.

과열증기가 흐르는 판을 보셨습니까.

그속으로 흐르는 증기의 온도는 5백도가 넘고  
압력은 120입니다.

그런 증기가 흐르는 판에 쇠붙이나 흙이 아닌  
물질을 갖다대면 설사 누기가 찼다 해도 순간  
에 화약처럼 불이 당깁니다.

생산완성된 증기가 최종분사구로 빠져나갈 땐  
시퍼런 불길입니다.

썩 하는 휘파람소리를 내며 불길을 내뿜는 산소  
용접기나 플라즈마용접기를 보신적이 있겠지요?...

물이 보이지 않는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동력  
이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간혹 맥을 놓는 때도 있  
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고 고무가 될 좋은 작  
품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만을 충직하게 받들어 이 초소를 생이 다  
하는 마지막순간까지 억세게 지켜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작품에 꼭 반  
영해주십시오.

## 상 식

### 전자오물과 그 위험성

전자오물이란 이미 폐기되었거나 다시 사  
용할수 없는 전자제품을 말한다. 실례로 못  
쓰게 된 텔레비존, 낡은 컴퓨터와 랩동기, 폐  
기된 손전화기 등이다.

전자오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사람과 환  
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텔  
레비존, 컴퓨터, 손전화기, 음향기 등에는  
다량의 유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낡은 가정용전자제품에는 여러가지 유해로  
운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연, 카드미움,  
수은, 크롬화합물, 폴리염화비닐 등이다.

연은 사람의 신경, 혈관계통과 콩팥을 파  
괴할수 있다. 크롬화합물은 피부, 신경세  
포에 위협을 주며 천식을 일으킬수 있다. 수  
은은 뇌부위의 신경을 파괴한다.

만일 이러한 전자오물을 제멋대로 폐기

하거나 매몰하면 대량의 유해물질들이 지  
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심히 오염시키  
게 된다. 또한 전자오물들을 태우면 다량  
의 유독성기체들을 방출하여 대기오염을 조  
성하게 된다.

오늘날 전자오물은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  
나로 제기되고있다. 특히 최근 전자제품의  
갱신주기가 급속히 빨라지는것으로 하여 전  
자오물의 산생속도도 대단히 빨라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오물은 현대과학기술의 발  
전이 가져온 독해물이며 이러한 전자오물  
의 영향은 미래에도 계속되게 될것이라고 예  
측하고있다.

전자오물에 의한 오염을 막자면 그에 대한  
회수관리를 잘하며 순환이용형처리구조를 형  
성해야 한다.

# 어머니와 함께 글을 씁니다 외 1편

조 석 영

내 어릴적 나의 어머니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서  
이 아들의 조그마한 손을 덧잡고  
나의 뱃에 새겨주며  
수령님... 조국... 행복...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제날  
크고 마디진 이 아들의 큰 손이  
여위고 가늘어진 어머니손을 덧잡고  
수령님... 장군님... 사랑... 한자한자  
뱃에 새기며 글을 썼습니다

심장을 세상에 내보이듯  
한자한자의 글이 눈물에 젖어도  
누려온 사랑에 보석처럼 빛나는 글발  
글발마다에 어려오는 못 잊을 사연들

수령님위해 한목숨 바치는것  
그것은 전사의 웅당한 본분이건만  
지나온 자욱자욱 행복한 삶에  
영생의 만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수령님 주신 명령을  
최상의 사랑과 믿음으로 간직하고  
한생을 마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일에국렬사로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실 때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애국렬사릉의 돌사진속에 웃고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전의 그 모습처럼  
어버이장군님 우러러  
홀리고홀리는 사연많은 눈물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

가슴에 빛나는 공화국영웅메달과  
조국통일상의 금빛메달  
거기에서 뿌리는 빛발이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는듯싶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 바친 전사의 생은  
영생이라는 그 진리의 웨침을

오늘은 어머니와 이 아들의 손이  
하나되어 심장의 글을 씁니다  
마치 태어나 첫글을 쓰던 때처럼  
순진한 아기의 마음되어  
불타는 뱃에 새깁니다

수령님 피워주신 《붉은 봉선화》  
장군님 영생으로 가꿔주신 《붉은 봉선화》를  
우리 운명의 태양이시며 삶의 전부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해  
대를 이어 영원히 피워갈 심장의 글을 씁니다

## 전사의 군복

피눈물의 12월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하던 그날  
대학생이었던 내가  
혁명의 군복을 입을것을 결심하고  
인민군대를 탄원하더니  
오늘은 내가 군복을 입는다지

장하구나 아들이아  
군복은 누구나 쉽게 입는 옷이 아니란다  
군복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피도 살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그런 인간에게 주는  
조국의 값높은 표창이란다

군복을 입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애국렬사릉에도  
전승기념관의 영웅관에도 찾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곡한 당부도  
심장에 새기거라

그러면 군복입은 너의 맹세는  
더욱 굳세여지리라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 품이며



그이를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지

네가 태어나기 전  
준엄한 전화의 나날  
보위전사였던 너의 할머니는  
가정도 동지들도 모르는 전선에서  
수령님 안겨주신 믿음 《붉은 봉선화》를  
애국충정의 영원한 꽃으로 피웠거니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나의 아들이  
군복을 입은 전사의 몸은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몸이기에  
그 몸 총탄에 뚫릴수 있다 해도  
애국에 높뛰는 그 심장만은 뚫지 못하게  
군복이 감싸주고있음을 잊지 말아라

## 아 가 야

### 박 천 결

산원을 나선다 아가야  
네가 태어난 사랑의 집  
평양산원을 나선다

너와 나 우리 함께 인사를 하자  
여기 평양산원 의사선생님들께  
잘 가거라 무럭무럭 크거라  
너의 귀여운 볼 다독여주는  
간호원들께도

인사를 하자  
너를 뜨겁게 안아올려준 집  
저 대리석기둥이며 모든 창문들  
그리고 축복의 물보라 한껏 뿌려주는  
칠색무지개 령통한 분수에도

줄줄이 쏟아지는 해빛이 눈부시여  
눈을 찔프리는 아가야  
바라보렴 너의 고운 꿈이 나래칠  
저 하늘은 그러도 푸르고  
마음껏 뛰놀며 자랄  
봄빛 넘치는 저 대지우엔 아지랑이 널 부르거니

이제부터 너는 얼마나 행복할것이나  
너의 이름 또렷한 건강관리부를 안고  
날마다 찾아올 의사선생님들  
팔랭이며 오펜기를 쥐고놀  
탁아소와 유치원의 아늑한 요람과  
네가 들어설 배움의 꽃대문과 궁전들...

그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나라의 왕으로 자랄 그 나날들이  
너를 손저어 불러 안아주려니  
물어보자 아가야  
너는 행복의 박씨를 가져다주는 제비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으로  
온 집안에 웃음꽃을 떨기떨기 피울것이나

그렇단다  
너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 미래의 날과 날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가득히 펼쳐놓고 너를  
기다린  
눈물겹도록 고맙고 은혜로운 품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니  
바로 이런 다심하고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아가야 네가 태어났다 네가 안겼다

내 사랑 귀염둥아  
그래서 너를 안은 이 가슴에  
부디 소원이 있다면  
너 이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거들랑  
엄마 아빠 그 말보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먼저 배우거라

정녕  
너 이 세상에 태어나  
첫말을 그것으로 시작하고  
어서 커서 그 참 뜻을 알며  
아가야 그다음 너의 삶은  
한생을 고마움에 보답해야 하리니

진정 너의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길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아가야 너와 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자  
보답의 맹세를 담아

## 침묵의 배고동소리

김 경 일

### 《임진년원쑤》의 의미

《임진년원쑤》란 말은 내가 새롭게 찾아쓰는 표현이 아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창조해낸 언어유산인 수많은 성구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임진년이란 1592년을 뜻한다.

바로 이해에 명나라에로의 원정을 표방하여 우리 나라 남쪽기슭에 밀려든 사무라이들은 침략행로제공을 강박해나섰다.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고 소리소리 웨치며 죽음으로 항거한 동래부사 송상현의 피젖은 절규가 방방곡곡에 메아리쳐간 그날부터 조국강토에서 게다가 신은 침략의 무리를 쓸어버리기 위한 혈전혈투가 7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오늘도 일본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와 오카야마현의 비젠시 까또 그리고 같은 현의 쓰야마시에 는 포악무도한 사무라이들에 대한 피타는 절규와 한이 맺힌 귀무덤이 있다.

여기에만도 임진조국전쟁시기 학살한 무고한 수십만명의 조선사람에게서 베어낸 코와 귀가 묻혀 있는것이다.

그 기간에 왜적의 더러운 마수에 꽃다운 젊음을 꺾이운 부녀는 몇몇이며 쪽발이의 발굽에 짓밟혀 황폐화된 농토는 그 얼마였던가.

임진조국전쟁의 나날 원쑤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얼마나 구천에 사무쳤으면 《임진년원쑤》라는 고사성구가 생겨났겠는가.

내가 어릴 때 일이다.

...어디서 튕겨났는지 모를 미친개 한마리가 온 마을을 휩쓴적이 있었다.

바짝 마르고 얼룩덜룩 비루먹은 그 개는 평화롭게 병아리들을 거느린 암닭의 먹줄을 물어메치고 애꿎은 황소에게도 마구 덤벼들다가 발통에 얻어맞았다.

동네 젊은이들이 쟁기와 몽둥이를 들고 쫓쳐나와 미친개를 쫓았다.

우리 조무래기들도 작대기를 하나씩 비껴들고 어른들의 뒤를 와와 따라 뛰었다. 그때 마을의 좌상적인 할아버지가 구불퉁한 지팡이에 몸을 싣

고 허연 수염을 덜덜 떨며 갈린 목청으로 고래고래 내지르던 고향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때려라, 때려! 쫓아가 때려잡아라! 저놈의 개새끼 임진년원쑤처럼 더럽게는 미쳤구나!》

나는 그때 임진년원쑤란 가장 치사하고 더럽게 미쳐버린 개를 두고 하는 말인줄로 알았다.

그후 나는 할머니에게서 임진조국전쟁의 애국명장들에 대해서와 왜놈들의 릉지치참할 만행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임진년원쑤란 결국 왜놈과 같이 죽어도 잊을수 없고 대를 두고 용서할수 없는 철천의 원쑤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내가 다 자라 철이 든 오늘날에까지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결의》조작에 미쳐날뛰고 《랍치문제》와 《핵문제》, 《반공화국제재법》으로 우리 나라를 물어뜯고싶어 밤이나 낮이나 짓어대는 일본정객들과 이시하라를 비롯한 극우익보수분자들이 여전히 하늘아래 존재하고있거니 나에게는 이놈들이 어릴적에 본 미쳐돌아가다 무리몽둥이에 맞아죽은 그 비루먹은 개처럼 생각된다.

### 사랑이 흐르던 유보도에서

일제원쑤들의 죄행을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있다.

오래전 총각시절에 사랑하는 처녀와 바다가를 걷던 어느 저녁이었다. 처녀는 꼬마들의 스승인 유치원교양원이었는데 미모나 몸가짐의 세련미도 그랬거니와 마음씨 또한 분결같이 부드러워 내 마음을 흥뜨게 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에서 절정이 될만 한 날이었다. 말하자면 사랑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 열매로 익어 마침내 백년해로의 약속이 이루어질 운명적인 저녁이었다고 할가. 행복에 겨워 반짝이는 눈동자, 발길하니 흥조가 비긴 뺨, 숨겨워 토막지는 정찬 속삭임으로 미루어보아 처녀도 이날을 몹시 기다린듯 했다.

《저의 할머니가 말이에요.》 처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동무의 사진을 보더니 꼭 저의 증조할아버님을 보는것 같지요 뭐. 체격도 그렇고 생김생김까지...》

《증조... 할아버님이요?!》 나는 저으기 놀라서 물었다.

《정말 멋진분이었나봐요, 그런데 왜놈들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대요. 스무살도 못된 우리 할머니를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가려는걸 막아나셨다가... 할머니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끝내 한 다리를 잃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의족으로...》

순간련정의 기쁨이 해빛어려 반짝이는 물결처럼 고요히 출렁이던 내 마음의 파아란 호수에 때아닌 무게구름이 밀려들었다.

더럽고도 가증스러운 쓰레기 왜놈의 족속들! 간특하고 철면피하게 속여넘기다못해 백주에 달려들어 뺨치고 칼질하고 오라지위 위안부로 끌어난 나라의 순결한 20만의 소녀들과 처녀들, 유부녀들 중 과연 몇몇이 고향으로 돌아왔던가. 대다수가 황군의 성노예로 눈물에 젖고 오욕에 절은 다다미 한장방에서 짐승도 낮을 붉힐 갖은 시달림을 강요당하다못해 복부를 절개당하고 음부에 말뚝이 꽂히고 꽃대같이 어린 목이 뒤로 비틀려져 비내리는 황야에, 남방의 썩은 물웅덩이에 애통히도 묻혀버린것이다.

처녀는 이미 화제를 바꾸었으나 내 머리속에선련상의 흐름이 계속되었다.

일본도로 섰는 베어낸 조선인애국자의 머리를 한손에 움켜쳐들고 사진기렌즈앞에서 너털웃음을 치는 잔인한 털부숭이 왜놈의 물골, 전선주에 매달린, 사무치는 원한에 눈도 감지 못한 그 처참한 얼굴들, 새 세기에 들어서서도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총련의 학교와 사무실들을 강제수색하고 죄없는 우리 동포들을 마구 란타하며 끌어나가는 왜놈경찰들의 조폭한 낯짝들...

바로 그 순간 나는 뜻깊은 저녁의 의미를 그만에야 망각하고 부르짖 주먹으로 허공을 썩가르며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개만도 못한 놈들! 천둥에 개똥듯 암만이구지랄쳐보라지. 시궁창의 구데기보다 더 깨끈한 놈들, 예익- 똘!》

마치 그 침이 저 멀리 혼슈나 홋카이도, 더 좋기는 치졸한 난쟁이 사무라이들의 후예들이 악마구리 뿜듯 하는 도교의 한복판에 폭탄처럼 떨어지거나 할듯 나는 어둡서린 남쪽을 향해 있는 힘껏 뱉어버렸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악에 질린 처녀의 얼굴을 본것은 그다음이었다. 나는

일순 당황했으나 내쳐 걸음을 옮겼다. 누구를 욕하는지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채 못 박힌듯 서버린 처녀는 더 따라설념을 앓는듯 했다. 지금껏 처녀의 눈앞에 길차게 쌓아올렸던 나의 지성과 인격의 탑이 줄지에 와르르 무너져내린것이다. 사랑에 겨워 행복한 가슴을 한껏 부풀리던 처녀앞에서 난생처음 질욕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하여 처녀는 순간에 아연해졌다.

잠시후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처녀는 뜻밖에도 혼연히 나를 리해해주었다. 아무리 귀에 설고 소름돋는 욕설이라 해도 세기와 세기를 이어 구천에 한이 맺힌 가증스러운 《임진년원수》-일본놈들을 향해 뱉은 증오와 경멸인것으로 하여 무난히 용서된것이다. 우리는 인차 가정을 이루고 첫아들을 낳아 지금껏 행복한 살림을 꾸꾸우고있다.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불현듯 혐오와 구토감이 치솟아 침을 뱉게 되는 저주로운 나라-일본!...

## 섬나라 왜족속들의 정신도덕적저렬성

력사적안목으로 살펴보아도 일본은 철면피와 그도덕적저렬성에 있어 표본이 될만하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각 방면에서 소위 세계적수준의 돌파를 목표하고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일본이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국제적수준에 도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질적인 망각증상이다.

중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평백성들까지 정교하게 세공하고 유약까지 발라 구워낸 점토자기 그릇을 집집마다 당반에 얹어놓고 흔하게 쓸 때 사무라이들은 거칠게 후벼낸 목기나 서툴게 주물러빚은 토기에 퍼담은 피땀을 누렇게 우리나는 흙물에 말아 손으로 먹어대는 신세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시기부터 16세기 후반기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놈들이 강제로 강탈해간 물질문명의 작용이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의 일본을 상상할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왜놈들은 전혀 기억에 없는듯이 메기수염이나마 뺨 씻고 자기들이 마치 동방의 《도자기기적》을 안아온듯이 곧잘 너스레를 떨며 후안무치하게도 《신일본문명》의 《유구한 력사》

를 자랑삼고있다.

미친개 땅뚜지듯 이것저것 마구 자랑거리를 늘어놓다못해 현대에 와서는 손꼽히는 자살자수마저 궁지높이 쏘아대고있다. 실지로 일본은 패전과 더불어 수만의 할복자와 투신자살자를 냈다. 이것이 하늘만큼 자랑스럽단다.

파쑈도이첼란드는 2차세계대전 종결당시 자살자가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던지? 툭 빠져져나온 왜놈특유의 멍청한 눈망울을 뒤룩거리며 입을 헤벌린채 《우리가 열배나 더 많지.》 하듯 열손가락을 짹 펴보인다. 도이첼란드에 비해 저들의 이른바 민족정신이 열배나 강하다는 뜻이다. 자살자수와 《민족정신》이 함수관계라는것은 정말이지 놀랄만큼 이채롭고 신기한 발견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당시의 실상은 어땠던가. 실지 자살자의 대부분이 그 어떤 《민족정신》의 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지른 무참한 죄악에 대한 공포와 눈앞에 닥쳐온 무자비한 보복에 대한 참을길 없는 불안때문에 목숨을 끊었던것이다.

《대일본제국》의 무조건항복을 공표한 《천황》 히로히토의 성명은 허울뿐인 《천황》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원시적인 절대숭배사상의 중국적인 파멸감을 불러일으켜 것처럼 말세기적인 할복사태를 빚어낸것이다.

확실히 일본제국주의가 고취한 《민족성》과 《민족정신》은 나약성과 취약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약하고 병든 개가 더 짚어대는 법이다. 일본이 바로 그러하다. 승산이 보이는 대상일 때에는 맹수처럼 덤벼들다가도 조금만 강세를 보이면 대번에 꼬리를 가무리고 주눅이 들어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1945년 패망직후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자.

국가전체가 즉시 창녀로 전락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의 핵구름을 피워 수십만 인종을 한순간에 멸살시킨 미국의 사타구니에 고개를 틀어박고 일본은 겨우 명줄을 부지했다.

세부적으로 더욱 이질감을 자아내는 사실은 자기 민족의 애 어린 딸들이 백주에 네거리 한복판에서 점령군인 미군병사들에게 룰간당하는 처참하게 굴욕적인 광경을 야마도민족의 《존엄》 높은 후손들인 현지주민들이 어깨성을 쌓고 주런이 둘러서서 묵묵히 구경하곤 한것이다. 무엇을 더 논할것인가.

쥐어짜보면 가장 간특하면서도 치사스럽고 가장 뻔뻔스러우면서도 악취나게 취약한 나라가 바로

굴욕상쟁과 배신, 무덤도굴과 침략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와닿은 일본군국주의라는것이다.

주체87(1998)년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1》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을 때 일본은 불맞은 들개마냥 놀라 자지러지게 짚어댔다.

몇해전 또다시 세계를 경탄시키며 《광명성2》호가 발사되었을 때에도 호들갑스럽게 아부재기를 치며 《미싸일발사설》을 우겨대고 국제적체제를 댄 앞장에서 사축하였으며 지어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떠벌였다.

그러나 섬나라 난쟁이의 무리들은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의 위력을 너무도 오판하고있다.

곰팡이 낀 야스구니진자의 지붕아래 물려들어 황군망령들의 썩은 넋을 불러대며 재침의 야망으로 피묻은 칼을 갈고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것을 망각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우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며 우리 인민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아래 신음하며 숨져가던 어제날의 식민지약소민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 난쟁이무리들은 고질적인 망각증상에서 깨어나 바로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위성들이 저들의 머리우를 지나 우주로 날아오르던 그 순간의 처절한 공포와 전율, 절망을 영원히 털어버릴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침묵의 배고동소리

올해는 우리 나라 역사에 경이적인 민족대이동으로 아로새겨진 재일조선인공민들의 귀국실현 53돐이 되는 해이다.

나는 지금 하얀 갈매기가 스칠듯 머리우를 날아 예고 흰 파도 출렁이는 동해의 기슭을 거닐고있다. 멀리 뻗어나간 해상유보도며 키를 솟군 장덕섬의 등대가 바라보인다. 부두엔 대형화객선 《만경봉-92》호가 흰빛을 떨치며 거연히 서있다.

불현듯 유년시절부터 익히 보아온 정경이 눈앞에 삼삼히 펼쳐진다.

목매여 불러찾는 혈육들의 웨침인양 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기슭을 향해 다가오던 저 《만경봉-92》호!

선수와 선미, 현측에 하얗게 매달려 마중나온 부모형제, 친척친우들을 향해 공화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던 재일동포들...

드디어 닻을 내리면 물목이 터진듯 달려내려 일싸안고 불을 부비며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눈물과 오열로 터치던 사람들...

짓밟히고 천대받던 망국의 세월 화물선에 처실려 피같은 눈물을 뿌리며 현해탄을 건너야 했던 사람들, 죽음의 고역장과 타향만리 전선에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당당한 공화국국민으로 죽어서 뼈라도 묻히길 소원했던 사회주의조국을 찾은것이다.

목에 흰천으로 감싼 조부모의 유골함을 메고 땅에 내려선 20대의 젊은이가 풀썩 주저앉아 목놓아울며 하늘을 향해 피라게 부르짖던 그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혼이라도 계시면 보세요. 조국이예요, 우리 땅이에요!...》

부모도 없이 쌍지팽이에 몸을 싣고 겨우 계단을 내려서던 열살안팎의 소녀가 마지막계단을 두고 멈추어섰다. 별안간 지팽이를 쳐들어 바다물에 힘껏 쥐어뿌렸다. 성급히 부축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찢기는 목청으로 부르짖었다.

《걸을래요! 내 나라땅이에요! 엄마!-》

모두가 울었다. 그 어린 소녀가 저주받을 왜땅에서 빼앗겼던 두다리를 조국에 와서 다시 찾은 이야기는 온 세상이 다 알고있다.

묵묵히 서있는 배를 바라보며 가슴벅찼던 그 나날들을 더듬는 나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젖어내렸다.

《만경봉-92》호!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있어서 저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의 숨결이었고 고향의 모습이였다. 만리 이역으로 조국이 놓아준 행복의 다리였고 어머니대지의 자애로운 젖줄기였다. 그 정든 배고동소리야말로 수난많은 인생길을 참담하게 걸어온 그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부르는 조국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 정다운 배고동소리가 멎은지가 어느덧 수년 세월...

수차례에 걸친 일본반동들의 극단적인 반공화국 제재연장책동의 결과이다.

식민지범죄의 도덕적책임감이나 죄의식은 꼬물만큼도 없이 일본특유의 철면피성과 파렴치로 사랑의 배길을 칼로 베듯 막아버린것이다.

치사하고 좁스러운 사무라이의 후예들!

최초의 사무라이들은 봉건령주들의 충실한 삼살개였다. 그 삼살개의 무리가 이제는 제법 들개로

자랐다고 피비린내를 탐내어 발광하며 《대조선제재!》, 《압력!》, 《봉쇄!》하고 부절히 짚어대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구의 한구석 가랑잎같은 섬나라에 몰려앉아 독을 뿜어도 우리는 제 갈길을 간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땅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일본은 자기 땅덩어리전체가 《불침항공모함》이라고 곧잘 떠들어댄다. 확실히 일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천성적인 소아마비로 유년기에 이미 육체적 및 지적발전을 멈춘 불구자와 똑같이 유치하고 미숙하다. 어제와 오늘을 통털어 영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란 이른적도 없거니와 미래에도 영영 있어볼 가능성조차 없다는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썩은 쪽배와 다름바 없이 자기들의 파국적인 침하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하긴 가라앉아도 야단이다. 온갖 패륜과 도덕적저열성으로 하여 썩을대로 썩어 오염도가 허용한계를 훨씬 넘어선 그 섬나라가 바다에 통채로 수장되면 태평양해저의 생태환경이 위태로와진다. 극우익보수세력의 악취나는 쓰레기와 군국주의오물들이 풀린 수역엔 해양생물들이 전멸할것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 일본을 이루고있는 크지 않은 세개의 덩어리를 산산이 쪼각내어 지구밖으로, 시대밖으로, 력사이전으로 영영 떠내려보내는 것이다.

침묵하는 《만경봉-92》호!

일본반동들은 알아야 한다. 그 침묵의 한초한초에 쉬임없이 탐이 쌓아지고있다는것을, 반드시 활화산처럼 터지고야말 저주와 증오, 복수의 탐이 여기 부두가만이 아닌 이 땅의 곳곳에 산악같이 일떠서고있다는것을!

온 나라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책동도 단호히 짓뭇개버릴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선군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태양의 노래 높이 부르며 세계를 향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희망찬 새날을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배고동소리 우렁차게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사연 많은 이 부두가에서 우리 재일조선국민들이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뜨겁게 일싸안을 그날은!...

## 14세기 후반기 반침략애국주의주제 시문학에 대 하 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은 일찍부터 가난하고 천대받는 근로인민을 등장시키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사랑을 표시하였으며 반침략애국주의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였다.》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14세기 후반기는 고려의 500년력사상 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격화되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 반침략조국방위문제는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었고 고려사람들의 애국적감정도 간고한 반침략투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집요한 내정간섭과 홍두적의 침입, 왜구의 침습 등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1350년 이후 왜나라해적들은 중부조선이남과 개경근처에까지 기여들어 살인, 략탈을 일삼으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끼쳤다. 흉악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간고한 싸움에서 헤아릴수 없는 희생과 손실을 당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끝내 적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냈다.

바로 이 시기 왕성하게 창작된 반침략주제 작품들은 가장 의의있는 주제분야의 하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시문학의 애국적성격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14세기 반침략투쟁주제 시들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조국방위의 결전에 펼쳐나선 고려사람들의 불굴의 기상과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의분, 승리에 대한 신심 등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 것이다.

조준의 시 《상주 객사에서》, 정추의 《밤에 우는 개구리소리》, 류숙의 시 《계묘년 겨울 북으로 출정하는 최영을 바래우며》가 대표적실풀로 된다.

류숙의 시에서는 엄동설한의 눈보라를 헤치며 전진하는 대오의 기상을 《용맹한 장수는 백만이나 된다고》라고 부각시키고 그들의 출정노래에서 벌써 평화로운 래일을 그려본다는 주정토대로 원쑤를 한놈도 용서치 않으려는 멸적의 기상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동하게 구현되어있고 조준의 시 《상주 객사에서》에서도 한여름밤 출전을 앞두고 꿈결에도 《원쑤 쳐없애고 돌아올 날》을 그려보

다가 《닭울음소리에 깨어나는》 서정적주인공—시인자신의 강개한 체험세계와 결사의 각오, 승리에 대한 신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정추의 시 《밤에 우는 개구리소리》는 간고한 반침략투쟁으로 시련을 겪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우국의 심정을 절절히 노래한 작품이다.

신성한 우리 강토를 침범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원쑤격멸의 애국적의지는 이밖에도 쓰러진 군사들을 비통한 심정으로 추모하며 피의 복수를 하고 개선기를 휘날리라고 호소한 리첨의 시 《사근역에서》, 원쑤와의 싸움에서 용맹떨치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갈 결의를 담은 정몽주의 시 《함주에서》, 김구용의 시 《희우루》, 정추의 시 《안변에서》 등 여러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노래되고있다.

14세기 후반기 반침략투쟁주제 시들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민족적기개와 위훈을 떨친 애국명장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뜨겁게 배찬한 작품들이다.

권근의 시 《시중 최영에게 드리노라》, 《최무선장군을 찬양하여》(2수), 《공주판관 송자호가 왜적을 함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정이오의 시 《관음포에서》 등은 반왜구투쟁에서 활약한 장수들에 대한 배찬에 바쳐진 작품들이다.

반왜구투쟁에서 고려군의 도통사로 활약한 최영장군을 노래한 시들에서는 룡순이 넘도록 《의로운 절개 높이 떨치》며 풍진을 헤쳐온 최영장군의 무훈은 군사들의 용맹을 추동한다고 하면서 찬양의 격정을 터치였다.

그런가 하면 화약제조법과 화약무기를 발명하여 진포싸움에 기여한 최무선을 찬양한 권근의 시에서는 고려수군의 통쾌한 복수전을 《하늘도 화포를 만드는 그대의 충성심 도왔는가/전함을 이끌고 가서 첫 싸움에 흥한 적 무찔렀네》라고 한 다음 나라를 편안케 하고 만백성을 살려 《세상에 떨친 그대의 이름 해빛과 함께 널리 퍼지리》라고 함으로써 최무선에 대한 축하의 감정을 승전의 기쁨과 결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이 시기 시들에서 반침략조국방위의 열정은 이국살이의 류다른 체험에 토대하여 창작된 정몽주의 시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라흥유의 시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리공수의 시 《느낀바 있어》 등에서도 감명깊이 노래되고있다.

특히 정몽주의 시에서는 왜구침습문제를 해결할

외교중임을 맡고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던 시기 실지체험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사나이 나라위해 먼 곳에 다니노니/이 어찌 공명만을 위함일소냐》라고 노래함으로써 이국땅에서 겪는 고충이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고국—고려를 위한것이라는 애국의 뜨거운 열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시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결부하여 언제나 고려민족의 사신이라는 자각과 책임감을 굳게 가다듬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내면세계를 다면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높은 애국적기백과 풍만한 서정을 보장하였다.

14세기 후반기 반침략주제 시들은 또한 조국방위의 애국적감정이 부패무능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과 결부되어 격조높이 노래됨으로써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을 보다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는데서도 특징적이다.

정몽주의 시 《김득배를 제사하며》는 1362년 반흥진적싸움을 성과적으로 지휘하였던 김득배의 비극적최후를 통하여 나라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통치배들에 대한 울분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정몽주의 시에서는 전란이 닥쳐오자 삼군을 거느리고 용맹을 떨쳤던 김득배가 표창은 고사하고 도리어 처참한 죽음을 당한데 대한 솟구치는 울분을 안고 《충성스런 장한 녀는 지금 어데 있는가/ 돌아보면 푸른 산에 흰구름만 떠있어라》라고 절절히 토로하였다. 이 밑바탕에는 애국충의를 발휘한 장수에 대한 추모의 감정과 결부하여 일신의 권력을 위해 충신도 서슴없이 해치는 역적무리가 날치는 정계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적기백이 맥박치고있다.

이러한 시적정서는 고려 말기 리성계일파에게 희생된 애국명장 최영을 추모한 원천석의 시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여기서 시인은 《충성과 의로움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말아나서며》 침략의 무리를 무찔러 나라를 안정시켰던 장군의 억울한 죽음에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백성마다 눈물짓는다고 하면서 정권욕에 환장하여 《나라의 기둥을 허물어버린》 권력야심이 리성계의 반역적인 죄악을 치솟는 격분속에 단죄하였다.

그런가 하면 권근의 시 《익위군의 말을 적노라》, 리인복의 《양광도 안렴사로 부임하는 한철충을 보내며》, 전록생의 《경상도로 벼슬살이를 가는 정부령에게》, 평연의 《말을 물먹이는 그림에》, 《방아노래》 등은 부패하고 탐욕적인 통치관료들의 그릇된 정사와 토지점병에 대한 비판과 결부하여 날로 우심해지는 외적의 침략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일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보적시인들은 반침략투쟁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당대 사회적모순을 예리하게 폭로 규탄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그 사회적성격과 비판적기백을 높였다.

이처럼 고려시기 진보적시인들은 당시 격렬하게 벌어졌던 반침략투쟁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정신세계를 다양한 소재와 시적계기를 통하여 폭넓게 노래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애국적성격을 보다 강화하고 중세 반침략애국주의주제의 시문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김 은 주

##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8호 (루계 제778호)

### 편집위원회

|   |   |   |   |   |            |    |    |   |
|---|---|---|---|---|------------|----|----|---|
| 낸 | 곳 | 문 | 학 | 예 | 술          | 출  | 판  | 사 |
| 인 | 쇄 | 소 | 평 | 양 | 종          | 합  | 인  | 쇄 |
| 인 | 쇄 |   | 주 | 체 | 101(2012)년 | 8월 | 1일 |   |
| 발 | 행 |   | 주 | 체 | 101(2012)년 | 8월 | 5일 |   |

ㄱ-2634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